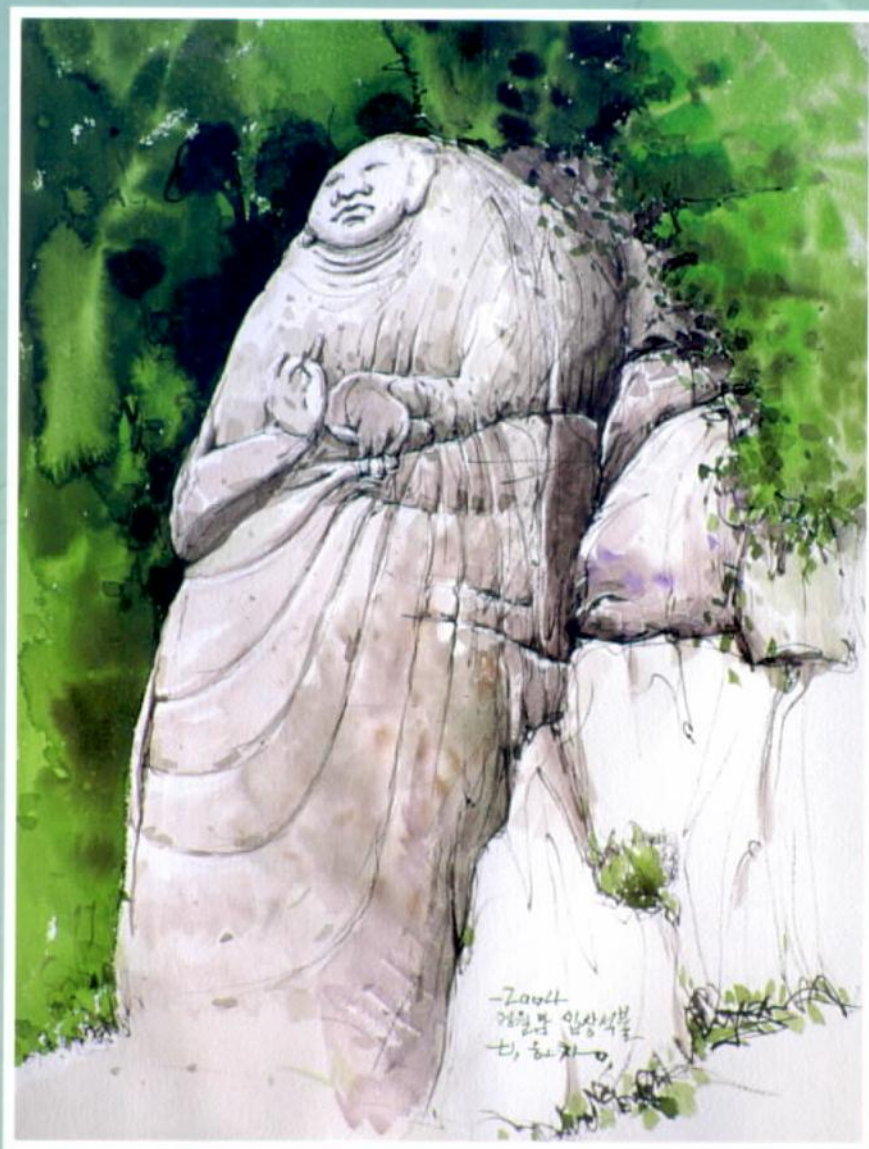


雪峰文化

제33호

2005 봄 · 여름



이천문화원

설봉산 새해 해맞이

2005. 1. 1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2005. 2. 23



문화원 학생회 입회식

2005. 4. 9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

2005. 4. 23 ~ 6. 19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

2005. 4. 23 ~ 6. 19



문화가족 주말문화 탐방

강원도 춘천시 방문 ▶
〈2005. 4. 2〉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유적답사
〈2005. 5. 28〉

서해안 갯벌체험 ▶
〈2005. 6. 25〉





日本 信樂町 방문단 이천방문

2005. 6. 8 ~ 6. 9



차례

雪峰文化

2005 봄 · 여름 통권 제33호



- 설봉산 새해 해맞이 ...01
-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문화원 학생회 입학식 ...02
-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 도자기 축제 ...03
- 문화가족 주말문화 탐방 ...05
- 日本 信樂町 방문단 이천방문 ...06

산수유꽃 필 무렵 ...08



- 한일합방의 핵심역할과 친일언론문학의 선도적 대부 ...09
- 국초 이민직 인물분석
-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21
- 이섭대천(利涉大川)의 옛날이야기 / 마장면편
-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 ...56
- 인간의 마음과 영혼 ...58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여름

박호창 32x47cm 종이위에 수채

설봉문화계시판

- 세계도자 비엔날레 ...76
- 문화행사 지상중계 ...86
- 문화행사 이모저모 ...89
- 시정소식 ...104
- 전람회소식 ...109
- 신간안내 ...112
- 문화원소식 ...113

발행인: 이상구
 편집인: 이민수
 편집위원: 강대철, 김명길, 김학철, 박호창, 신배섭, 이동준, 최충삼
 발행: 이천문화원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산105-3 (시민회관 3층)
 전화: 031) 635-2316
 팩스: 031) 637-7486
 홈페이지: www.cc2000.or.kr
 이메일: cc467ic@hanmail.net
cc2000@cc2000.or.kr

제작: 흥익기획 서울 중구 저동2가 7-2
 전화: 02) 2274-8110
 이메일: hangeeg@kornet.net
 발행일: 2005. 7. 15
 (2005 봄 · 여름 통권 제33호)

산수유 꽃 필 무렵

조혜미

(다산고등학교 2학년)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생각에만 미친 일들이
왜 이제야 봄바람에 홀려 떠오르는지.

슬픈 아픔에 지쳐
뜬눈으로 지새운 밤이 있었다.

숨쉬지 않는 마음 가지에
아픔을 견뎌낸
초록의 꽃사랑이 피어나는 걸까.

조금씩 조금씩 고개 들어
지난 날의 아픈 일들이
달혀진 내 마음을
살며시 열며 돌아난다.

선홍색으로 금새 터져버릴 것같은
해맑게 익어가는 열매
뜬눈으로 지새운 붉은 밤이
외로움에 슬프다.

-우리고장 사랑문집2에서

|| 국초 이인직 인물분석 ||

한일합방의 핵심역할과 친일언론문학의 선도적 대부

_ 출생과 반민족 행위, 친일언론문학을 중심으로 _

채 수 명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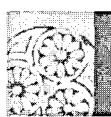
1. 들어가는 말

우리고장 출신 국초 이인직은 ‘최초의 신소설 작가이자 언론인이며 신극운동가로서 근대문단에 지대한 족적을 남겼다.’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한국 문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주도한 매국노의 상징 이완용의 심복으로 친일언론문학의 선구자이자 대부이고 밀사로서 한일합방의 실제책임자 역할을 하는 등 반민족적 친일파의 핵심거물이었다는 사실 또한 지울 수 없는 진실인 것이다.

그를 위시한 당시 친일언론 문학인들이 ‘한국, 일본, 중국(만주)은 일치단결하여 대동아를 합방해야 한다.’라는 동양삼국공영론과 아시아를 합방하려는 대동아합방론에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단군 이래 이어온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혼을 말살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등 일제에 충성을 다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신사상과 문학적 내면세계보다는 문학의 외적인 측면만 부각시킴으로서 근대문학의 위대한 선구자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해방 이후 의식이 없는 지식인들의 과오 때문이다.

그의 출생과 성장과정 및 친일활동(언론, 문학, 한일합방 핵심주역) 등 그의 생애와 나아가 사후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총체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평가함으로써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정체성 확립 등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인직의 성장과정과 흔적

1) 이인직(李人植)은 누구인가?

국초(菊初)는 1862년 7월 27일(철종13) 경기 이천 장호원 노탑리에서 이윤기(李胤耆: 본은 한산(韓山))와 모 전주 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출생했다.

그러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던지라 경성에서 살던 백부 이은기(李殷耆)의 양자로 들어가 자랐는데 5살 때 생부를, 11살에 양모 남원 윤씨를, 18살 때 생모를 사별하였다. 이렇게 6, 7년 간격으로 친부모와 양모가 각각 사망하여 혈육의 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그 충격으로 방황하자 양부는 동래 정씨와 결혼시켜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그는 얼굴에 광대뼈가 나왔고 눈이 위로 찌져 인상이 좋지 않았으며 어려운 가정 환경과 부모들이 일찍 사망해 성격마저도 괴팍했던 탓에 주변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이라 이미 예감하였다고 한다.

2) 청장년 시절과 친인척의 흔적 불투명

그가 일본에 유학 가기 전까지 국내에서의 활동, 특히 한양에서 30여 년간이나 살았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의문점이 많다. 20세 이상이면 한창 활동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급제를 위한 공부를 하다가 실패한 이후 일본에 공부에 전념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출생지 장호원의 생가터엔 옛집은 헐려 새집이 들어섰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아무리 수소문해 봐도 주변엔 친인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 때나 조부 때 다른 곳에서 살다가 그곳으로 이주해 왔거나 혹시 후손들이 있더라도 친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 때문에 쉬쉬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주변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별로 없고 국초의 조상들 산소에 대한 흔적도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언젠가 문제시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전에 흔적을 없애려 이장했거나 양자간 후 고향과 완전 등졌으며 형제 등 혈통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3. 그의 생애는 오직 친일뿐

1) 관비유학생으로서 친일변신

국초는 장년인 39세의 아주 늦은 나이에 구한국 정부의 관비유학생으로 도일하였다.(1900.2) 이는 아마도 양아버지가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여겨지며 그 역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충성심도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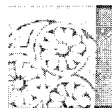
그가 입학한(1900.9) 도쿄정치학교는 고급관리와 외교관, 신문기자 등 일제의 핵심 인물들을 사관생도식으로 양성하는 학교였다. 교장 마쓰모토는 “신문기자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정치가요, 신문기자다.”라고 격려했고 출세를 보장했을 정도였으니 그들과 그의 자부심은 대단하였다. 주요 수업과목은 정치학, 경제학, 국가학, 국제법, 변론학 등 제국주의 지도자 양성에 맞도록 짜여져 있었고 고마쓰, 나네키 등 이등박문과 가까운 정우회 관련자들로 구성되어었는데 그곳에서 친일파 조중응을 만나면서 시작된 그의 활동은 곧 국가와 민족의 불행으로 이어졌다.

조선공사관의 추천으로 미야꼬(都)신문사 편집국 견습생으로 들어간 3일 후 「입사설」을 기고해(1902.11.29) 아침하였고 신문 일을 배우면서 본국의 부인을 잊을 채 일본여인 우에노(上野: ‘조선루’라는 한국식 요정을 경영)와 동거에 들어갔다.

유학생과 망명객의 교류가 문제화되자 대한제국정부는 유학생 소환령(1903.2)을 내렸으나 그는 이를 거부한 조중응과 개인적인 야욕을 부리며 졸업한(1903.7) 후 일본의 국교인 신도(神道)의 일파인 천리교(天理教)를 믿게 되었으니 철저히 친일파로서의 사상적 쇄뇌교육이 된지라 일본제국주의에 빠져 관비유학생이 오히려 매국자로 변신, 나라와 민족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했다.

2) 조중응과의 만남으로 인생 판도변화

그렇다면 조중응(趙重應: 본관 양주(楊州). 초명 중협(重協))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1860년 경성출생으로 전강유생(殿講儒生)으로서 경서를 진강(進講)하고



(1880) 1883년 서북변계 조사위원으로 중국 동베이(東北), 외몽골, 시베리아 등지를 돌아본 후 북방남개론(北防南開論)을 주장하다(1884) 탄핵을 받아 다음해 보성으로 귀양을 갔다가 사면해(1890) 일본에 다녀온(1894) 뒤 외무아문 참의, 법무형사국장 겸 특별법원판사 등을 지냈다.

친일파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는데(1896) 이 후 이인직과 의 형제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었고 열강(미국, 영국, 독일 등)들의 정치제도와 국제법 강의를 담당한 고마즈(小松綠 : 추후 1906년 통감부의 외사국장으로 부임)의 제자가 되었다. 통감부촉탁 농사조사원(1905)으로 특사로 귀국한(1906) 다음해 이완용 내각의 법무대신과 농상공부대신을 지내며 이인직과 콧비가 되어 매국활동을 하였다. 한일합방의 조약체결에 적극 찬성한 매국 7역신 답게 일제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있다가 이인직 사후 그 역시 사망했는데(1919) 친일파의 거물답게 호화관 장례식을 거행했다.

3) 일제종군과 이완용에 대한 충성 속에 언론활동

이인직은 귀국 호출명령을 어기고 버티며 나름대로 출세를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합대가 한국과 만주(중국 동북지방)의 분할을 둘러싸고 뤼순군항(旅順軍港)에 기습적인 공격을 가한 러일전쟁이 일어나자(1904.2.8) 기다렸다는 듯 일본육군성의 제1군 사령부에 한국어 통역관으로 들어가 종군하게 된다.

그가 인천에 상륙하자(1904.2.16), 일제는 한달만에 평양, 다시 압록강 우안에 집결하여 강을 건너 러시아군을 격파하고(1904.5.1) 10일 후 봉황성으로 진격할 무렵에 무슨 연유인지 종군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귀국하였다.

일제의 전승으로(1905.9.5) 인해 한국지배권을 확립함으로써 식민지배체제에 들어갈 의도가 보이자 조중응과 함께 동아청년회(지식과 사교를 통해 동아인의 단결을 이루고 문명의 보급을 꾀한다는 등 동아시아로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를 가진 침략적 친일 모임)에 가입, 본격적으로 친일행동에 나섰다. 송병준이 창간한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의 주필이 되면서(1906.2) 친일언론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4개월 만에 만세보(국민신보에 대항코자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망명지 일본에서 귀국한 손병희가 천도교를 창건한 후 그의 발의로 2월에 창간)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도쿄정치학교 시절의 은사 고마츠가 통감부 외사국장으로 부임하자 친구 조중응도 통감부 촉탁으로 일하기 위해 귀국했으며, 이인직은 이완용의 후원을 얻어 만세보를 인수했지만 재정난에 빠지자 이완용이 직접 이를 매수, 대한신문을 창간하여 그를 사장에 앉혀 놓았다.(1907.7)

이때부터 그는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대한신문) 경영자로 활동하였으며 조중응도 법무대신에 올라 반민족적 행위자로서 적극 협력하였다. 당시 정계는 친일활동의 주도권을 놓고 이완용과와 일진회 송병준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계속되었지만 권력의 비중이 이미 이완용에게 기울어졌는지라(1908) 그의 충실한 밑사로서 활동에 나선다. 한일합방의 막후공작을 위해서 연극시찰과 종교행사 등의 명목을 내세운 위장술로 라이벌 송병준 측이 모르게 일본을 뻘질나게 드나들면서 일본 정객들과 만나 밀담을 나누고 소설도 썼다.

『치악산(1908)』을 발표했고 최초의 국립극장이자 황실극장이던 협률사(協律社 : 1902-1906) 자리에 극장 원각사(圓覺社)를 세워 자작 신소설 『은세계』를 무대에 올렸으며(1908.11)『설중매(雪中梅)』이외에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등 판소리를 분창형태로 나누어 상연함으로써 우리나라 창극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러나 친일의 대동학회(유교를 유지코자 조직(1907), 헤이그 밀사사건이 나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사죄문을 보내 의병을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매도하고 '우리나라의 위기를 평안으로 전환시킬 유일한 길은 오직 일제와 결합하는 한 가지 일'임을 천명하면서 전국에 22개의 지회를 두어 유림의 친일화를 기도)가 공자교회로 전환(1909)하자 간부로서 지방조직 확대에 앞장서는 본격적인 한일합방 준비에 나서는 등 어처구니없는 반민족적 매국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친일활동의 혁혁한 공로로 이완용의 지원아래 경학원(조선왕조의 정신적 권위기구인 성균관을 격하해 설치한 기관으로 전국의 유림을 선무하는 공작을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삼았던 곳) 사성(司成)으로 임명되어(1911) 고액연봉 9백 원을(이완용 2천원, 조중응 1천6백원) 받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유림을 선무하는데 앞장섰다.

4) 이완용의 비서로 한일합방의 충실한 밀사역

당시 이완용과와 일진회 송병준과의 친일의 주도권 권력 싸움이 심화되자 그의

역할은 커졌다. 이에 이완용과 긴밀한 음모를 꾸며 특사로서 일본을 자주 드나들었고 일본정객들과 교분이 많던 동거녀가 큰 도움을 주었다. 아사쿠사에서 신파극을 배워 한국에 이식시켰고(1908.8) 신도(神道)의 일파인 천리교에 귀의했으며, 특히 일제의 핵심정책(특히 대학스승 고마츠를 통한 핵심인물)과 중대한 음모를 벌였다.

그러던 중 친일행위로 지탄을 받던 이완용은 내각총리대신으로 종현(鍾峴: 현 명동) 가톨릭 성당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 거행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했다가 나오던 중 정문 앞에서 이재명이 휘두른 칼로 세 곳(어깨, 허리, 복부)을 찔렸으나(1909.12.22) 불행하게도 목숨을 건졌다. 주동 인물들이 모두 잡혀 이재명은 교수형, 연루자 11명에게는 최고 15년, 최하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완용은 2개월간의 입원치료 끝에 회복되었지만 이 사건 후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송병준이 제안했던 한일합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중대한 판국에 일본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이 되어(1910.5) 다음달 동경에서 합방준비작업의 전초전으로 경찰권이양 조약을 맺을 때도 적극 협력하여 눈도장을 받았다.

테라우치가 삼엄한 경호 속에 부임하자(1910.7.2) 친일파 일진회의 송병준은 적극적으로 야심하고 분위기를 탐색하면서 합방에 나서자 최대정적 이완용은 점점 초조해졌고 서로 간에는 합방충성경쟁이 벌어지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때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몰랐기에 이인직을 심복(비서실장)으로 삼아 통감부 외사국장이자 그의 대학스승 고마츠(小松綠)를 극비리에 찾아가(1910.7.6.23시) 한일병합의 뜻을 전달하는 등 서로가 막후 채널로 받아들여져 금물살을 탔다.

이에 통감부는 합방을 확실하게 앞당기면서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려는 복합적인 목적에서 묘술을 써 이완용과 대립관계이던 송병준이 '가을썸 병합 논의한다. 송병준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라는 거짓정보를 주도면밀하게 극비인 것처럼 흘려보냈다. 깜짝 놀라 당황한 이완용과 이인직은 합방의 공이 송병준에게 돌아가 영화를 뺏기며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송병준보다 선수 처 한일합방을 주도적으로 완성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8월 초순 이완용은 심복 이인직을 실권자 고마츠에게 다시 보내 구체적인 합방안을 작성해 보이면서 논의하였다.

그때 상황을 고마츠는 무더운 여름밤 이인직의 돌연한 방문을 생생하게 기록해 추후 〈조선병합의 이면〉을 발표하였던 것은 강제성이 아닌 조선총리대신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자 한 의도적인 것임에 틀림없는데 당시 고마츠의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이인직)는 양미간에 찬 빛을 띠우며 우선 근본문제부터 말하기 시작하였다. 일진회가 합방론을 제창하고 또한 일본에서는 병합설이 대단하여졌다는 사정 등을 합쳐보면, 오늘날 무엇인가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최근 저는 이 수상(이완용)을 만나서 빨리 거취의 각오를 결정하시도록 근고(謹告)해 보았습니다. 2천만 조선 사람과 함께 쓰러질 것인가 6천만 일본인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길 밖에 따로 수상의 취할 길은 없습니다. 어느 쪽 길로 나가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수상은 서서히 말씀하시기를, 5적 또는 7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현 내각이 와해된다면 현 내각 이상의 친일파 내각이 새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통심할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이인직의 말을 듣고서 이것은 참 좋은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내심 기뻐하며 하하 웃으면서 손수 맥주를 따라서 그에게 권하고 나도 마셨다. 넓은 응접실에는 단 둘뿐 다른 누구도 있지 않았다.

이후에도 그는 재차 고마츠에게 찾아가 '현 내각이 와해해도 그 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라는 전갈과 함께 이완용 휘하의 내각이 직접 합방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알리자 이인직과 고마쓰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방 기초조건에 합의하였다.

'합방 후에도 한국의 황실에 대해 종전과 같은 세비를 지급하고 일본 황족의 예우를 내리며, 한국 황제의 지위를 일본 황태자의 아래에, 친왕(親王)의 위에 둔다' '내각대신은 물론 다른 원로 고관에게도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공채(公債)를 주고, 합방에 힘쓴 자 및 옛 대관 원로에게는 은금(恩金)에 영작(榮爵)을 더하고, 그 유력자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하여 총독부의 정무에 참여하게 한다'

이를 문서화시켜 도장을 찍은 후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면서 조용히 둘만의 축하 파티를 하였다. 일제는 추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 한국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여 자기들 의도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극비리에 이루어진 모의에 따라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은 동경에서 일어난 수재를 위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서울의 남산에 위치한 통감관저를 방문하여

(1910.8.16) 합방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 놓고는 가슴이 벅차 감동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일제의 삼엄한 분위기속에 내각회의를 열어 한일합방조약서를 통과시킨 후 형식적으로 어전회의 절차를 거쳐(1910.8.22)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 양여 한다'는 합방조약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이름으로 조인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방한다.'라는 합방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1910.8.29 : 국치일) 비장한 조서가 내려져 조선 왕조는 이태조 건국 후 27대 519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때 의식이 있던 대신들은 자책감과 조국의 앞날이 걱정되어 침울했고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은 분통해 목 놓아 울자 강물도, 산천초목들도 구슬피 울면서 기약이 없는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인간노예의 식민지생활은 시작되었다.

이처럼 주역 이완용과 그 충실한 심복 이인직의 치밀한 주도아래 이루어진 한일합방의 매국적인 공로가 인정된 이인직은 경학원(일제가 조선왕조의 정신적 권위인 성균관을 격하하여 설치한 전국의 유림을 선무하는 공작기관) 사성(司成)으로 임명되어(1911) 연봉 9백원의 거액을 받았다.

4. 반민족 친일언론문학의 선구적 대부

1) 반민족행위, 친일언론의 선구적 대부

앞장에서 설명했듯 이인직은 송병준이가 이끈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신보의 주필이 됨으로서(1906.2) 본격적인 친일활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이완용은 그의 활용가치를 알고 밀약을 해 4개월 만에 이완용이 주도한 『만세보』의 주필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송병준은 머리아자 오른 팔을 정적 이완용에게 빼앗겼으니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친일권력의 팽팽했던 라이벌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일진회는 손병희가 동학혁명 실패 후 함경, 평안도에서 은신하며 교세를 확장하다가 일본을 경유해 상해로 망명했다가 이상헌으로 개명한 후 도일, 국내사정을 듣고 귀국하여(1903) 개혁운동을 목표로, 이용구를 내세워 조직한 동학의 반정부운동

단체였다. 그러나 이용구가 배신해 일본군부의 조종을 받는 송병준과 야합, 유신회와 합한 일진회를 조직하여 을사조약의 찬성을 발표하였다.

귀국한 손병희는 일진회와 무관함을 밝히고 이용구 등 친일파 62명을 출교시켰으며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한(1906)후 제3대 도주로서 교세확장과 함께 일진회와 국민신보에 대항하고자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보성사를 창간했고(1906.2) 보성, 동덕 등의 학교를 인수하여 교육사업에 나섰다.

이 같은 상태에서 이인직은 도쿄정치학교의 은사 고마츠가 통감부 외사국장으로 부임하였고 조중응도 통감부 촉탁으로 귀국하였기에 그의 위치가 막강해지자 이완용은 그가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세보의 인수와 함께 대한신문을 창간한(1907.7) 후 사장에 앉혀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 역할을 하게 만들면서 본격적인 암약에 들어갔다.

이후 선릉참봉, 중추원 부찬의를 거쳐 경학원 사성(1911.7)시절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의 즉위 대례식 때 헌송문을 지어 바치는 어처구니없는 과잉충성을 보이는 등 민족의 앞날 보다는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일제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등 반민족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2) 친일문학의 선구적 대부

그의 친일문학 활동은 먼저 일본도신문에 남편을 잃은 지 13년이나 되는데도 슬퍼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묘사한 습작소설 『과부의 꿈』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1902.1.28-1.29)

그의 첫 저서인 일본판 동화집 『용궁의 사자 (1904/동경박물관)』를 일본에서 간행하였고 친일지 만세보에 처녀 장편소설이자 본격적인 신소설 『혈의 루(血の涙 : 1906.7-10)』를 연재하면서 주목을 끌었는데 일진회와 국민신보에 저항코자 한 만세보에 친일소설을 발표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내용인즉, 청일전쟁(1894)이 평양 일대를 휩쓸었을 때 일곱 살의 여주인공 옥련은 피난길에서 부모를 잃고 부상을 당하지만 일본군에 의해 구출되어 이노우에(井上) 군의관의 도움으로 일본에 건너가 소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러나 이노우에가 전사하는 바람에 그 부인한테 구박을 당하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구완서를 만나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워싱턴에서 공부하던 옥련은 극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구완서와 약혼했는

데 평양에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꿈만 같이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자유결혼을 주제로 하여 새 시대의 모랄을 제시하려 한 작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니까 옥련의 삶을 통해 교훈적·계몽적 성격을 지닌 자주독립과 중국배척 등 국제정세 속에 친일의식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적 신결혼관, 남녀평등 의식고취, 신교육 권장과 향학열 고취, 봉건성 탈피 등을 강조하였지만 청군의 부패는 비난하면서도 일본군의 만행에는 관대한 친일작품으로 표면적 주제의식과 내면적 형상화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반항을 그린 『귀의 성(1906/만세보)』의 연재와 함께 상하편(1906, 1908)을 황성 광학서포에서 출간했고 신소설 『백로주(白蘆洲 : 1906/국민신보)』를 연재하였다. 『치악산(雉岳山 : 1908)』은 경성과 춘천을 배경으로 했는데 상편은 계모를 중심으로한 가정비극과 개화풍조가 함께 얹힌 작품으로 그 주제는 계모를 둘러싼 고부간의 갈등, 갑오경장 이후의 신, 구 사조의 대립, 신교육사상의 고취, 귀족 양반사회의 부패를 비롯한 폐습의 타파 및 보복, 하층계급의 반발의식 등 개화사상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간접적 친일작품에 가깝다.

이판서 딸이 완고한 홍참의 아들 백돌에게 시집과 살지만 후실 시어머니 김씨와 시누이의 구박 때문에 눈물짓는 나날을 보낸다. 위로하던 남편이 개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장인의 도움 아래 일본으로 유학가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간부(姦婦)로 오해한지라 치악산으로 내쫓았다. 거기서 최지운과 장포수의 겁탈 위기를 벗어나 승려가 되나 탁월한 미모로 인해 과문을 당하자 우물에 빠져 자살을 기도했다가 살아나니 그의 몸종 검홍이는 복수를 계획하고 귀신 장난을 벌여 홍참의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그 하편에서는 이에 홍참의가 집을 나와 방랑하다 우연히 여승(며느리)을 구출한 후 집에 돌아와 김씨 부인을 내놓았고 목숨을 건진 이씨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유학을 마친 백돌은 처가 죽은 줄 알고 장인의 중매로 재혼하게 되나 신부가 곧 이씨 부인이었기에 너무 기뻐하면서 화목하게 살게 된다는 양반사회의 부패를 맹렬히 비판한 내용이다.

『은세계(銀世界 : 1908)』는 경성을 배경으로 한 관료층의 수탈과 학정에 대한 고발정신, 민요의 풍자적 삽입, 반봉건 사상과 자주독립의식을 고취시킨 신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로 원작사에서 창극으로 공연되었다.

전반부는 전래하던 판소리 『최병두 타령』을 개작 (농부가, 나무꾼 노래, 상두 소

리 등 삽입가요가 들어 있는 판소리 사설형태)해 부패와 학정으로 양민을 수탈하는 양반관료에 대한 평민 최병도의 현실고발과 항거로 일관되어 있는 친일적 정치소설이다. 그 후반부는 주인공인 옥남, 옥순 남매의 이야기를 창작해 덧붙인 신소설로 미국 유학에 의한 신교육의 필요성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어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풍자적으로 드러내 관권에 대한 민중의 반발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접적인 친일소설이다.

『빈선랑(貧鮮郎)의 일미인(日美人 : 1912.3.1/매일신보)』과 친일 『혈의 루』의 하편 『모란봉(牡丹峰 : 1913.2.5-1913.6.3(63회) /매일신보)』은 주제의식이 후퇴하여 평범한 애정소설에 머문 미완성의 마지막 작품이나 객관적 서술 및 뛰어난 양식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밖에 『귀(鬼)의 성(聲 : 1906 연재/ 만세보)』은 몰락해 가는 양반 계급의 이면 폭로와 피지배계층의 항거 및 처첩의 갈등을 그려 『치악산』처럼 봉건탈피와 개화사상을 드러낸 친일문학에 가깝다.

강동지의 무남독녀인 길순은 춘천군수 김승지의 첩이 되니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된 본처는 관계 기관에 청원하여 남편을 파면시키고 경성으로 불러올린다. 남편은 첩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상경하지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 김승지의 주선으로 집을 얻어 숨어살게 된다.

그러나 질투에 가득 찬 본처는 종 점순과 음모를 꾸몄는데(정부인 최가를 꼬드쳐 기어코 길순을 죽음) 아무것도 모르는 강동지 내외가 딸을 찾아왔으나 이미 죽고 있었고 음모의 전말을 알게 되어 점순, 최가, 본처를 살해했으며 관련된 침모마저 살해하려 했으나 잘못을 크게 뉘우쳤으므로 용서하고 김승지에게 권하여 같이 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를 중앙서관(中央書館)에서 상하권으로 간행하였다.(1907.1908)

이인직은 친일문학의 선구자이자 대부로서 친일활동을 통해 얻은 권력을 최대한 이용했다. 후배 문인 특히 후배인 춘원 이광수와 역사학자이자 문인이던 최남선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당시에는 전업작가가 전무했는데 유일하게 그와 열재(悅齋) 이해조(李海朝 : 1869(경기 포천출생)-1927))는 우산거사(牛山居士), 선음자(善飲子), 하관생(遐觀生), 석춘자(惜春子), 신안생(神眼生), 해관자(解觀子)로서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30여 편의 신소설을 발표(제국신문, 매일신보)한 전업작가였던 셈이다.

한편 1910년대 이인직과 친일문학의 쌍벽을 이룬 최찬식(1881-1951)은 일진회 총무원 최영년의 아들로 친일에 앞장섰고, 이해조의 『자유종(自由鐘 : 1910)』은 주인공들의 토론형식을 빌어 정치이념을 제시했으며 『화(花)의 혈(血 : 1910)』은 부패관리의 부정을 의도적으로 폭로 등 대부분의 작품이 의도적으로 일본식 신교육과 개화사상을 고취했다는 점으로 보아 그 역시 친일언론인으로서의 친일작가였다는 슬픈 사실이다.

5. 이인직의 말로와 역사적 교훈

1) 사후 일제와 친일파들의 애도

한일합방 후에도 이인직은 경학원 잡지를 창간해(1913) 유럽에 대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등 오직 일제에 충성하는데 혈안이였다. 얼마나 일제에 충성하는데 신경을 썼는지 신경통까지 발생, 점점 악화되더니 급기야 총독부의 원에 입원하자(1916.11.21) 총독부는 모든 것을 동원해 치료에 정성을 쏟는 촌극을 벌였다.

조선총독부는 그동안 친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병의 쾌우와 함께 연봉을 특별 인상(1천원)을 했으며 며칠 후 그가 사망하자(1916.11.25) 다음과 같이 매일신문에 기사화할 정도로 일제는 애도와 함께 예우를 하였다.

‘고양군(市) 용강면 아현화장에서 거행한 장의 제반의식은 천리교식으로 행하였는데 경학원 부제학 박제빈남(朴齊斌男) 등 경학원 직원일동과 천리교 신도 다수, 이완용 백(伯), 조중응 자(子), 유성준 제씨와 총독부 관리 다수가 참여해 상여금으로 450원을 하부, 대제학 자작 김윤식은 부제학 자작 이용직을 대리로 명하여 일반직원을 대동하고 제관을 행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일합방의 실무책임자이자 친일언론문학의 선구자이고 대부분 단 탓에 일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한 예우와 함께 다른 친일파들에 대한 사후 예우를 보장해 준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 더욱더 충성을 유도한 것임에 틀림없다.

2) 이인직에 대한 인식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초 이인직에 대한 이미지는 문학의 선각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이완용의 충실한 밀사로서 한일합방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등 문학의 선구자가 아닌 친일문인이었다. 이런 점에서 작은 일부와 엮만 보고 친일분자를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미화시킨 작태가 한심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작가는 정신 사상의 전도자이자 지도자로서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본성(민족사상, 역사성, 민간적인 자질, 문학, 철학)과 작품성(독창성, 표현기교성, 평가성) 및 효율성(교육성, 감동성, 전파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분	내용	
현재인식	근대소설의 선구자(혈의 루, 은세계, 치악산), 근대 연극의 선구자(원각사)	문학연극의 선구자
바른인식	관비유학생 도일, 귀국거부, 러일전쟁시 종군, 친일언론(국민신보 주필, 대한신문 사장), 친일문인, 최초의 국립황실극장 협률사를 열고 원각사 건립, 한일합방을 위한 이완용의 밀사, 실무자, 경학원 사성	한일합방의 주역

3) 이인직 친일활동의 역사적 교훈

그는 최초의 신소설가이고 최초의 민간극장을 세운 연극운동가였으며 창극의 창시자로서 초창기 문학에 크게 기여했다지만 이 같은 행동의 대부분은 친일정책으로서의 행동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를 극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개탄할 일이다. 이완용의 심복인물이자 한일합방의 실무주역의 역할을 했던 그의 행동을 직시한다면 그는 이완용에 버금가는 민족의 반역적 죄인이었다.

친일문학과 친일에 대한 구분이 없이 친일선상에 문학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 거물급 친일분자로서 냉혹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그를 근대문학의 대부분격으로 추앙시켰던 문학회와 교사들, 또한 교과서에 수록시킨 교육부의 역사의식과 교육윤리의 부재를 실감케 하고도 남는다.

특히 민족 사상이 결여된 알팍한 언어기교술에 불과한 작품성과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하는 순수 평론가들의 무능력으로 인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사주의 문화평론가들의 등장과 육성 및 활동은 문학 나아가 문화의 새로

운 패러다임(Paradigm)을 구축할 수 있으나 저널리스트로서의 스페셜리스트(전문가)가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흑백논리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보여 주고 평가함으로써 과오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탁월한 업적은 칭송하며 귀감으로 삼는 냉혹한 비판정신이 필요하다.

6.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초 이인직은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간 후 사망할 때까지 연속 친일의 극치를 보여준 민족의 역적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과오는 숨겨진 채 그동안 '최초의 신소설작가로서 구소설과 근대소설로 이어지는 소설의 전통적 연결을 시도하고 확립했으며 계몽주의사상이 담겨져 있고 문장에서 입말체와 묘사체 시도, 객관적 심리묘사 등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며 탁월한 작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 원인은 그동안 의식(민족정신 사상)이 없는 문인, 교육부, 교사들에 의해 매국자 이완용의 충실한 비서로서 한일합방의 실무주역으로서 일제를 적극 도운 친일 문학의 선구자이고 대부로서 천악무도한 민족의 역적 중에서도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철학적 민족정신사상을 가장 중시하는 문학은 곧 행동을 움직여 예술문화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근본이자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역사문학적인 평가는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인직, 그는 한국 근대문학의 대부라는 점보다 그의 행동 중에서 밝혀지지 않은 도일전의 행동을 제외하고는 도일 후부터 사후까지 그의 행동과 삶 전체는 단군 이래 보기 드문 민족의 반역행위자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울 수 없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실의 모든 실체를 숨김없이 드러내 알리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이인직이 관비유학을 가지 않았거나 송병준과 이완용간의 라이벌 인식이 없었다거나 한일합방의 밀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민족의 판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엄청난 민족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사후 9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작품성의 탁월한 과업을 저버린 채 일부의 과오만을 갖고 비난한다.'라는 일부의 비판은 역사의식과 문학정신을 모르는 의식이 없는 무지하고 물지각한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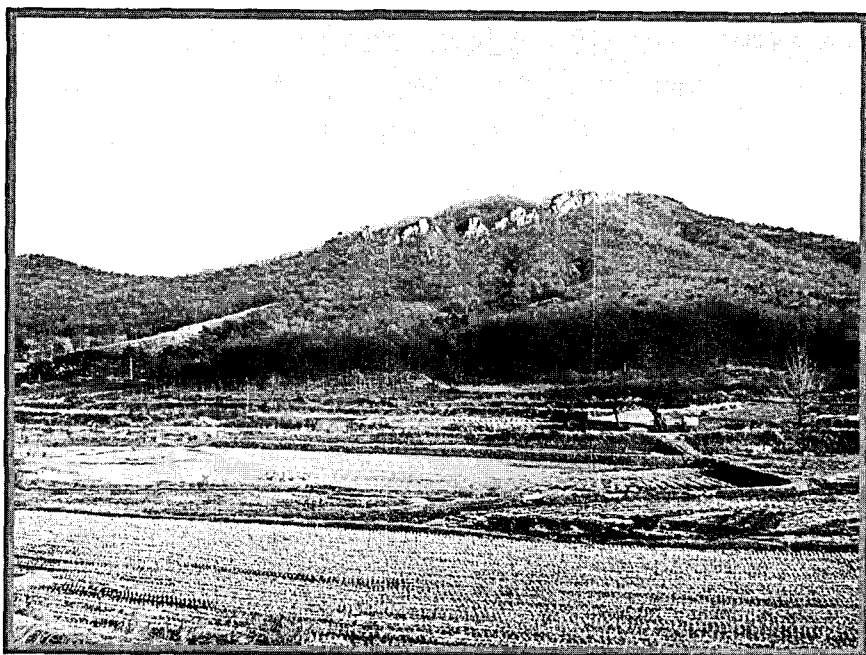
따라서 역사적 과오와 업적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 역사적인 비평과 함께 다시는 이인직처럼 반민족적 정치 작가, 나아가 지식만을 과대포장한 파렴치한 추종세력들이 나오지 않도록 가슴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조상들이 행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기술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측면에서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의 대화이자 급격하고 불투명한 국내외 환경변화속에 오늘을 사는 거울인 동시에 미래의 등불로 삼을 수 있도록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섭대천(利涉大川)의 옛날이야기

_ 마장면 편 _

이충섭 시인



돼지 울음소리가 난 도드람산

_ 장암리·목리·표교리의 전설 _

마고할미가 계룡산에 있는 산봉우리 하나를 한양 삼각산으로 지고 가다가 내려놓고 영영 다시 가지고 가지 못한 산이 있었다. 이 산 근처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가 살았다. 그런데 이 효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유명한 의원을 모셔다가 병환을 낫게 해 드리겠어요.”

“아니다. 아들아, 이제 늙은 탓이니 그리 애를 쓰지 말아라.”

효자는 수소문하여 명의를 불러다 치료를 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한 효자는 이리저리 다니며 좋은 약을 지어다 달여 드렸다. 그래도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없고 더 위독했다.

효자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병시중을 드는데 밖에서 목탁 소리가 났다.

“토드락 토드락, 시주하세요. 관세음보살.”

시주하라는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위안이 된 효자는 조금 남은 보리쌀을 바가지에 담아서 스님에게 시주했다. 보리쌀을 받은 스님이 효자의 얼굴을 보았다.

“어허 보살님, 무슨 근심이 있으시군요?”

“예, 저의 어머니께서 지금 병환으로 위독하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아 예, 어머니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면...”

“음, 이 뒷산엘 올라가서 석이(石耳)버섯을 따다가 다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오.”

이 석이버섯은 얇은 산에 있는 버섯이 아니라 바위가 많고 높은 산에서 나는 버섯이었다. 효자는 망태기를 메고 호미를 들고 높은 뒷산을 올랐다 이 골짜 저 골짜기를 넘나들어 겨우 몇 개의 석이버섯을 따다. 해질녘에 산에서 내려와 집에 오자마자 그 석이버섯을 오지 항아리 약탕기에 넣고 맑은 물을 부어 끓였다. 한참을 끓이고 나서 약물을 짜 탕기(湯器)에 담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에게 마시게 했다.

“어머니, 이 약을 잡수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에이, 소용이 없을 거다.”

“아닙니다. 쭈욱 마시세요.”

아들의 간곡한 권유로 어머니는 석이버섯 물을 마셨다. 약 물을 마시고 나서 하룻밤을 지낸 어머니가 기운이 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애야,”

“예, 어머니.”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밖에서 일을 하던 효자가 웬지 반가운 느낌이 들어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이게 무슨 약이냐? 기운이 나는 것 같다.”

“예, 어느 스님이 가르쳐 준 약이옵니다.”

효자는 어머니의 병이 차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석이버섯을 따러 뒷산 더 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망태기며, 호미도 준비하고, 이때는 긴 밧줄도 준비하여 석이버섯을 찾아 산을 헤맸다.

효자는 석이버섯을 찾아 헤메면서 바위가 많은 상상봉을 타고 올랐다. 산 위에서 아래를 보니 멀리까지 내다보이고, 산비탈 골짜기에 자리잡은 정악사(定岳寺)라는 절도 보였다.

‘아, 스님이 저 절의 스님이시구나.’

생각하며 효자는 다시 기암절벽 사이를 더듬어 석이버섯을 찾았다.

“아, 버섯이 저기 바위 낭떠러지 사이에 있구나!”

버섯을 발견한 효자는 가지고 간 밧줄을 꺼내 바위와 나무에 붙잡아 매고 한쪽 끝에는 자신의 몸을 묶었다. 그리고는 밧줄을 잡고 미끄러지며 석이버섯이 있는 바위 틈으로 내려갔다. 효자는 밧줄에 매달린채 바위틈을 더듬어 석이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런데 효자가 매달린 밧줄이 바위에 마찰하여 조금씩 조금씩 끊어져 가고 있었다. 효자가 석이버섯을 따서 망태기에 넣는데 높은 절벽위에서 난데없이 돼지 울음 소리가 크게 들렸다.

“꽤액 꽤액! 꿀꿀!”

“어허, 이상도 하지. 웬 돼지가 이 높은 곳에서 우나? 올라가 보자.”

효자는 이상히 생각하고, 다시 밧줄을 타고 바위 위로 올라왔다. 그가 올라와 보니 돼지가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살폈다.

“앗! 바줄이 다 끊어졌네. 아 신령님, 감사합니다.”

효자는 구사일생으로 딛 석이버섯을 가지고 내려와 어머니에게 다려 드렸더니 앓던 어머니가 완쾌되었다. 이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

“아니, 명의를 명약으로도 못 고치는 어머니 병을 어떻게 고쳤나?”

“예, 뒷산에 올라가서 석이버섯을 따다가 약으로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에 올라가 버섯을 딸 때 죽을 뻔했던 일도 모험담으로 삼아 다 이야기했다.

“응? 돼지가 울었다구?”

“그 높은 산 바위 꼭대기에서 돼지가 울었다니 믿을수가 없군.”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이후 동네방네에 효자의 소문이 났다.

“그 효자가 어머니를 살렸다네. 글썄 석이버섯을 따다가 약으로 써서 살렸다네.”

“버섯을 딸 때 산꼭대기에서 돼지 울음소리가 나서 효자도 살아 왔다네.”

“효자가 위험하니까, 효성이 지극한 효자를 위해 산신령이 돼지를 보내 주어 울음소리를 내게 한 거야.”

이렇게 효자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산신령이 돼지를 보내어 그 효자의 목숨까지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산, 돼지 울음소리가 난 이 산을 사람들은 ‘저명산(猪鳴山)’이라고 불렀다. 뚝울음산, 돼지 울음 소리산 등이 변음 되어 도드람산이 되었다고 식자들은 해석한다.

달래 고개

_ 해월리 전설 _

가난하게 살던 어느 집에 스무 살이 못된 오누이가 살았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었다.

“얘야, 비오기 전에 어서 오천장엘 다녀와라.”

“예.”

“장거리 웅기전에 가서 향아리를 사 와라.”

“향아리는 왜요?”

“향아리가 깨졌다. 아이구, 그릇이 깨지면 번고가 생긴다는데...”

“예,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다녀오너라. 물독을 해야 한단다.”

“어머니, 저도 오라버니 따라 장 구경하러 갈게요.”

“그럼 조신하게 다녀오너라.”

대답한 누이동생은 즐거워하며 오라비를 따랐다. 오라비는 누이동생을 데리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오천장으로 향하여 집을 나섰다. 게너미 마을에서 오천장을 가려면 작별이 마을을 지나야 했고, 작별이 마을을 가자면 달랑이 고개를 넘어야 했다.

오누이는 걸어가며 하늘을 보았다.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어 우중충했다.

“오라버니, 비가 올 것 같어.”

“그래. 부지런히 다녀오도록 하자.”

오누이는 부지런히 걸었지만 송림산 모퉁이를 돌아 달랑이 고개를 넘으려는데 걱정하는 마음을 무시하고 소나기가 쏟아졌다. 오라비는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지만 눈에 뜨이질 않았다.

비는 자꾸 오고 옷은 점점 젖어 갔다.

“누이야, 어디 비를 피할 데를 찾아보자.”

“그러지. 아, 저기 바위 굴이 있네.”

고갯길 옆에 있는 바위굴을 발견하고, 오누이는 손을 꼭 잡고 굴 쪽으로 뛰었다. 그러나 오누이의 옷은 이미 젖어 버렸다. 오누이의 여름옷은 팽목으로 만든 홰 종이 잠방이와 홀치마 저고리였다. 그들은 흠뻑 젖은 채 굴 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서늘한 굴속이고, 또 젖은 옷이라 추웠다.

“오라버니, 아이구, 추어라.”

“지금 성냥도 나무도 없으니 불도 못 피우고…”

“아이구, 추어. 오라버니.”

누이동생이 웅크리며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누이야, 좀 참아라. 비가 그치면 나가자.”

그러나 비는 오누이를 굴 속에 가두어 놓은 채 계속 내렸다. 오라비는 추워하는 누이동생에게 다가갔다. 추워하는 누이동생이 안쓰러웠다. 홰껍데기 옷이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오돌거리며 금방 올 것 같은 누이동생을 오라비는 끌어안았다. 오라비의 따뜻한 체온으로라도 녹여 주려고 누이동생을 팔과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비는 얼른 그치지 않을 모양이었다. 오라비가 끌어안은 후로 누이동생은 춥다고 보채질 않고 가만히 있었다. 오라비의 체온에 따뜻해진 누이동생은 안심 되었다. 그러나 누이동생을 끌어안은 오라비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오라비는 끌어안은 누이동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으로 보았다.

“누이야, 추우니?”

“아니. 따뜻해.”

그런데 오라비에게도 누이동생의 체온이 전달되어 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끝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어안은 누이동생의 여체에서 이성의 충동을 느꼈다. 오라비는 다른 생각을 잊고 계속 누이동생을 끌어안고 있었다. 여자로 느끼며 누이동생을 안고 있었다. 그러다가 순간 오라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구! 내가 미쳤어!”

아찔한 생각이 든 오라비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는 죄와 부끄러운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 오라비는 끌어안던 누이동생을 벌떡 떠밀고 바위굴 밖으로 뛰쳐나왔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이거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오라비는 후회를 하며 산길을 달리다가 낭떠러지를 만났다. 순간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수십 길 아래로 몸을 던졌다.

바위굴 속에 있는 누이동생은 오라비를 기다리다 마침 비가 그쳐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오라비는 보이질 않았다.

“오라버니, 어딜 갔어! 오라버니, 어디 있어.”

그녀는 오라버니를 찾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길을 걷다가 낭떠러지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어수선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십 길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아이구, 오라버니!”

오라비가 수십 길 낭떠러지 아래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누이는 조심스럽게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 오라버니를 찾았다. 그러나 오라비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왜 죽었어? 오라버니 아이구, 조심하지 않구. 어영영!”

누이동생은 오라비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오라비가 그녀를 꼭 껴안던 생각에 이르렀다.

“그랬구나! 나를 껴안다가 나쁜 생각을 하곤 죄를 지었다고 이랬구나. 어영영.”

그녀는 한참을 더 울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이구! 오라버니 그러면 달래나 보지, 죽기는 왜 죽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총각 오라비가 죽은 일이 근방에 순식간에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고개를 넘어갔다 넘어올 적마다 그 오누이 생각을 했고 이후로 이 고개는 ‘달래고개’라 불려졌다.

안배터 마을 우물

_ 이치리 전설 _

“동네에 물이 있어야 살지!”

“글쎄 말야, 이런곳에 어떻게 동네가 생겼어?”

“땅이 박토이니 물이 날까?”

“그래 동네 땅이 나쁘니, 나무도 크질 않지.”

“아이구, 그러지들 말아. 우리 조상들이 먼저 살았던 마을이 아닌가.”

“그러게. 그런데 참, 어떻게 해서든 물을 해결해야만 할텐데…”

이 동네는 안배터 라는 마을이었다. 물이 귀한 마을이니 옛부터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스님 차림을 한 도사가 찾아왔다.

“원 동네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 쫓쫓.”

동네로 들어오자 스님은 한탄하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집으로 갔다.

“시주하시오. 지나가는 중이오니 시주하시오!”

어느 집 사립짝 문 밖에서 스님이 소리쳤다.

“예!”

스님이 시주를 권하자, 안에서 여자의 음성과 함께 신발을 끄는 소리가 안마당에서 나더니 어느 새 사립짝 문에까지 왔다.

“쌀도 없고, 보리쌀도 없습니다. 좁쌀만 조금 남았으니 이거라도 시주하겠나이다.”

“나무야미타불. 어허?”

좁쌀을 받은 스님이 시주한 집주인인 부인을 바라보았다.

“어 그런데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그러나 스님은 머뭇거리다가 다시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보살님, 그러면 시주를 하신 대신에 소승이 작은 보답을 하겠으니, 내가 시키는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대로 하십시오!”

“왜 그러시옵니까?”

처음에는 부인이 낫선 스님을 꺼려했다.

“글쎄, 무서워하지 말고, 소승을 따라 오십시오.”

스님이라도 처음 보는 남자이기에 꺼려하던 부인은 머뭇거리면서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스님은 부인을 데리고 마을 앞으로 갔다.

“이곳에 느티나무를 심으십시오.”

“우리 동네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미련하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태껏 나무를 심지 않았소?”

“.....!”

부인은 무안을 당했다.

“나무를 심고나서 일년이 지나거든 이곳을 파 보시오”

“알겠습니다.”

부인이 스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들었는데, 그 스님이 간데 온데 없이 사라졌다.

“어, 이상하네?”

이런 일을 당한 부인이 집으로 돌아와 들일을 다녀온 남편에게 일렀다.

“여보, 그 스님이 마을 앞에 느티나무를 심으라고 하고는 표연히 사라졌어요.”

“어 그래? 도사님이시군.”

“그리고 그곳을 나중에 파 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다른 집 사랑방으로 마실을 간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어떤 스님이 마을에 느티나무를 심으라고 하며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 신기하네. 그럼 그 스님은 도사님이나 신령님이야.”

“그래, 신기하니까 그 스님을 믿고 나무를 심읍시다.”

“하기는 동네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으니, 그늘도 없고 놀이터도 없지.”

이렇게 해서 마을 앞에 느티나무를 구해다가 심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심은 이 느티나무가 빠르게 무럭무럭 자랐다. 1년이 되어 커다랗게 자란 느티나무 옆을 파 보았다. 물이 나왔다.

“야, 물이 난다. 물이 난다.”

물이 귀한 동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모여 들었다.

“우리 여기다가 커다랗게 샘을 팍시다.”

“그 스님이 우리 동네를 도운 거지.”

“그럼, 착하게 살면 신령님도 다 도와 주는 거야.”

땅을 더 깊이 파니 물이 펴펴 나왔다. 마을 공동 우물을 팠다. 동네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우물이 생겼다.

“우리 동네에 나무가 없으니 동산에 나무를 심읍시다.”

“들에도 심읍시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고 들에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리고 펴펴 나는 샘물을 퍼다가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동산에 나무가 푸르게 자랐다. 산에고 들에고 나무가 많이 생긴 이후로 건수가 많이 나와 아래 밭과 논이 마르질 않았다. 그 후 안배터 마을은 농사가 잘 되어 살 만한 동네가 되었다. 그리고 매년 정월이면 동네 사람들은 우물가와 느티나무 곁에서 모여 우물 고사, 당 고사를 지내 왔다.

지금도 안배터 마을에는 우물가에 수령이 500 년이나 된 느티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게 그늘을 드리우고 살아 있다.

도드람산 영보사

_ 표교리 전설 _

도드람산 근처에 사는 무당이 있었다. 그는 근동 주민들에게 유명했다. 사람들은 무당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 누구나 궁금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큰일이 생겼을 때 그 매듭을 풀고 싶으면 도드람산 무당에게 찾아 갔다.

“왜 왔고?”

“우리 집 강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고 싶어요.”

“알았네. 그럼 복채를 두둑이 내거라.”

“뭇 강아질 찾는데 두둑이 내요? 요것만 받으시오.”

“그렇다면 형편대로 내거라.”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손님이 쟁그렁하고 상위에 동전을 던졌다.

“에헤 신령님, 그놈이 어디로 갔습니까?”

무당이 대젓가락을 통속에 몇 개를 꽂더니 흔들다가 하나를 신중하게 빼더니 살
폈다.

“으음,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

“이천장 개장터엘 가 봐야겠군. 개 도둑놈이 이천장에 내다 팔 줄 알았어. 에이 이
젠 알겠군.”

강아지를 찾는 손님이 속이 시원하다 하며 나갔다.

“다음 손님! 으음, 왜 왔노?”

“예,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며칠 되었는데 들어오질 않으니, 어디로 갔는지 가르
쳐 주시오.”

“복채를 많이 내거라. 아니다. 아니다. 형편대로 내거라.”

“예, 찾아만 주신다면 더 드리지요.”

남편을 찾으려는 손님이 참쌀 자루를 내밀었다. 복채를 받은 다음 옆에 있는 항아
리에서 콩을 한 움큼 집어내어 상위에 주루룩 놓는다. 콩알들을 이리저리 굴리고,
세고, 또 움켰다가 상위에 떨어뜨리며 그 소리를 듣는다.

“아하, 북쪽으로 갔군. 가봐. 가서 찾아 봐.”

“그럴 거야, 내 그런 줄 알았어. 그년을 데리고 한양으로 갔을 게야.”

남편을 찾는 부인이 나갔다.

한참을 더 계속해서 점을 치던 무당이 짜증을 냈다.

“오늘은 왜 점치는 손님만 오나? 큰일 거리가 생겨야지.”

무당이 중얼거리는 그때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만신님! 아래 말 이 진사 댁에서 치성을 드려 달라고 전갈이 왔습니다요!”

“아, 그래? 그럼 무구(舞具)를 준비하게 곧 나감세.”

“예. 작두도 가지고 갈까요?”

“아니네, 오늘은 북, 장고, 색실 채, 제기 그릇 그런 걸 준비하게. 떡은 거기서 찌라
고 일렸지?”

“예, 잘 일러 보냈습니다.”

도드람산 무당은 아직 남은 손님을 물리쳤다.

“남은 손님은 모레 오너라. 내가 큰일을 하고 내일 오니까.”

점을 쳐보지 못한 손님 몇이 무당이 하인과 치성을 드리러 나가는 뒤에 대고 불평도하고 칭찬도 했다.

“아이구, 우리도 마저 보아 주고 가지지...”

“글쎄 말야. 답답해 죽겠는데...”

“점쟁이가 아니고 무당이니 굿이나 치성을 드리러 가는 거지.”

이 도드람산 무당에게 손님이 많이 모여 들면서 소문에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다.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며, 어려움을 풀어 주려는 착한 무당으로 소문이 났다.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소리도 잘하여 그 근방에선 어느 무당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에게는 신령스럽게 느껴지는 이 도드람산 무당도 늙어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다.

“아,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사람을 많이 속였으니 극락엔 가질 못하고..., 아, 그래도 내가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이 무구들이나 좋은 곳을 찾아 물어야겠다.”

도드람산 무당은 마침 도드람산이 명산이고 길지가 많은 것을 알아, 어느 양지바르고 좋은 곳을 골라 자기가 쓰던 무구들을 썩지 않게 잘 묻었다.

산신령이 이 가혹한 무당의 행실을 알았다.

“아, 이 무당의 좋은 정신을 이어갈 다른 무당을 찾아야겠다.”

도드람산 산신령이 다른 훌륭한 무당을 찾으러 나섰다. 세월이 얼마를 지나 마침 어느 동네 박수무당이라고 자칭하여 무당이 간절히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신이 내리게 했다. 그래서 이 박수무당의 꿈에 백발의 수염을 한 할아버지로 나타났다.

“박수야, 그렇게 무당이 되고 싶으냐?”

“예, 좋은 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흑세무민하지 말고, 우리 무속의 가치를 잘 살리는 무당이 되거라.”

“예, 춤도 배우고 소리도 배우겠나이다.”

“그러면 도드람산 제일 양지바른 곳에 가서 그곳을 파 보거라. 그곳에서 네가 쓸 무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무구를 쓰면 좋은 무당이 되느니라.”

“아 예, 신령님!”

꿈을 깬 박수는 그 길로 삼과 호미를 들고 도드람산으로 올라 갔다. 제일 양지 바른 곳을 찾아 그곳을 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무구를 가지고 화다리께에 와서 훌륭한 무당 노릇을 하며 살았다. 착한 무당 노릇을 하며 살던 그는 생각하였다.

‘내가 이렇게 무당 노릇을 하며 잘 사는 것은 도드람산 덕택이지. 무당 노릇은 그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만하고, 사람들의 덕을 빌고 내 공을 닦는 절을 지어야겠구나.”

‘희다리’ 께서 살던 박수무당은 도드람산에 올라와 절을 세웠다. 그 절이 지금의 영보사(永保寺) 터라고 한다.

효행으로 복받은 양자 아들

_ 억만리 전설 _

딸을 셋이나 낳고 아들을 못 낳은 이씨네 부부가 결국은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키우며 살았다. 아들 딸들이 장성하여 딸들을 시집보냈다. 세월이 가면서 이씨네 부부는 늙었고 그리고 먼저 부인이 죽었다. 아내를 잃은 이씨는 아직 장가를 들이지 않은 양아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던 어느 날 이씨는 생각했다.

‘아무래도 내가 가진 재산을 양자에게 주기는 아까우니, 내가 낳은 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이씨는 장성한 양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세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홀로 살던 이씨는 외로움을 느꼈다.

‘이제는 시집간 딸들의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씨는 남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먼저 첫째 딸네 집으로 갔다. 이씨는 첫째 딸네 집에서 그럭저럭 보름정도를 었혀 살았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 보름을 지냈으니, 이제부터는 둘째네 집에 가서 사시죠?”

“아니다. 난 첫째인 너의 집에서 살겠다.”

“아버지, 이 다음에 또 오시고 둘째네 집에 가셔도 살아보세요.”

“알았다. 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싫은 거지? 둘째는 이 애비와 죽을 때까지 살 거다.”

이씨는 짐을 싸 가지고 첫째 딸네 집을 나왔다. 그리고 둘째 딸네 집으로 갔다. 그는 둘째 딸네 집에서 또 한 보름을 었혀 살았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기 지루하시니 셋째네 집에서도 가서 살아 보세요.”

“알았다. 너도 애비하고 살기 싫으냐?”

이씨는 짐을 싸 가지고 둘째 딸네 집에서도 나왔다.

‘셋째도 나를 한 보름 살게 하다가 나가라고 할까? 아닐 거야.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 마누라라도 더 많이 살지 왜 나보다 먼저 죽었노.’

이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셋째 딸네 집으로 향했다.

셋째 딸은 씩씩하게 아버지를 봉양했다. 음식도 맛나게 해 드리고 옷도 새로 만들어 입히고 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셋째 딸은 언니들과 달라...’ 하고 안심하며 또 한 보름 지난 어느 날 셋째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한 곳에서만 지내시기 지루하실 터이니 큰 언니네 집으로 가서 살아보세요.”

셋째 딸이 어김없이 하는 말을 들은 이씨는 기막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것들이 내 재산을 양아들도 주지 않고 저희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는데 이 애비와 함께 살려고 하지를 않아.’

이씨는 정말 화가 나서 셋째 딸네 집에서도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나왔다. 막상 나와 보니 갈 곳이 없었던 이씨는 걸인이 되어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으로 떠돌아 다녔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한 동네 빨래터를 지나고 있었다.

“아버님 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별안간 낯모르는 아낙네가 반색을 하며 부르는 바람에 이씨는 그 아낙네를 보았다.

“저는 아버님의 양자 며느리입니다.”

그때서야 이씨는 집에서 내보낸 양자를 생각했다.

“그래 지금 잘 살고 있지?”

“예, 아버님.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씨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아이구, 아버님이 어디로 가실 데가 없으신 가 봐요. 저의 집으로 가세요.”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면서 며느리를 따라갔다. 양자네 집도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갓 낳은 아기도 있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자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걸.’ 하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양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씨를 집에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 입혔다. 이씨는 양자 아들네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

가난한 양아들네는 남의 집의 군일을 나가면서 근근히 살았다. 어느 날 양아들은 품삯 일을 나갔고, 며느리는 갓 낳은 아기를 재워 놓고 동네 잔치집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 며느리가 잔치집에서 일을 마친 후 맛있는 음식을 얻어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갓 낳은 아기를 깔고 자고 있었다. 깔린 아기는 죽어 있었다. 이를 안 이씨는 더욱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양자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죽은 아기를 산에 묻으려고 깨끗한 형겅에 싸서 방 한 옆에 두고 남편이 올 때를 기다렸다.

저녁에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우리 아기를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그만… 흑흑흑.”

“여보, 울지 마시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한 분뿐인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돌아오지 못하는 법이요.”

양아들 부부는 죽은 아기를 묻으러 산으로 올라 갔다. 그들은 양지 바른 터를 잡아 그곳을 팠다. 얼마 파지 않아서 바위가 나왔다. 양아들은 바위를 부수고 캐내며 팠다. 남편이 땀을 흘리며 밖으로 파내는 돌덩이를 옆에서 아내가 보았다. 예사 돌덩이가 아니었다.

“여보, 이게 무엇이요?”

남편이 땀을 닦으며 캐낸 돌멩이를 보았다. 누런 금덩이였다.

“금덩이가 아니요?”

“죽은 아기는 안됐지만 아버지를 잘 봉양하라고 하느님이 내리신 거요.”

이씨의 양아들 부부는 죽은 아기를 잘 묻고 돌아왔다. 그리고 캐낸 금덩이들을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부자가 되었다. 가룩한 효행으로 하늘이 내려 주신 복을 받아 양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들딸을 더 많이 낳아 기르며 오래 오래 잘 살았다.

복을 받은 양아들

— 억만리 전설 —

최씨는 아들 셋을 두었다. 부인도 일찍 죽고, 일을 할 수 없도록 늙은 아버지를, 아들 셋이 번갈아 가며 구박했다.

“에이,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강물에 가서 빠져 죽자.”

최씨는 걱정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그는 죽지 못하고 이리 저리 구걸하며 살았다.

하루는 낯선 곳을 헤메다가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게 되었다. 두리번거리다가 보니 멀리서 반짝반짝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다.

최씨가 주인을 찾자 안에서 젊은 사람이 나왔다.

“이 늙은이를 하룻밤만 재워 주소.”

“아 예, 들어오세요.”

젊은이가 안방으로 안내했다. 얼마 후 젊은이의 부인이 저녁 식사를 차려 왔다.

“시장할 테니, 많이 잡수세요.”

“고맙소.”

두 부부가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최씨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젊은이가 건넌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깔았다.

“어르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푹 주무십시오.”

젊은이가 최씨를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고, 젊은 아내는 깨끗한 새옷을 내 놓고 입게 했다.

“이 거지를 이렇게 대하여 주니 정말 고맙소.”

최씨는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건넌방에 들어가 편안하게 자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시오. 젊은 부부, 하룻밤 잘 묵었다 가오.”

최씨는 나가려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젊은 부부는 펄쩍 뛰었다.

“아닙니다.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사세요.”

“아니 되오. 형편도 어려운것 같은데 나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소.”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고아로 자라, 장성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함께 지내시면 우리가 잘 모시려고 합니다.”

“젊은이 그런 소리 마오. 나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쫓겨난 신세요. 젊은 부부는 남의 자식인데 이 늙은이를 어찌 아버지로 봉양하고 살겠소?”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아닙니다. 양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최씨는 두 젊은 부부가 하도 간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그냥 그 집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하루는 양아들 내외가 화전을 일구러 밖에 일을 하러 나간다고 인사했다.

“아버님, 저희는 화전을 일구러 나갑니다. 적적하시더라도 부엌에 차려 놓은 진지를 잡수시고 집에 계세요.”

“그래라 애들아.”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으려고, 차려 놓은 밥상을 가질러 최씨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부뚜막 한쪽이 무너져 있었다.

부뚜막이나 고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최씨는 삼태기와 호미를 찾아 가지고 뒤꼍으로 갔다. 뒤꼍 황토 흙이 있을 만한 빈터를 골라 땅을 파다.

“어, 이거 금이 아니냐?”

최씨는 신기하여 더 파 보았다. 계속 금쌀이 나왔다. 최씨는 파낸 금쌀을 다시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뒤 그곳에 표시를 해 두었다. 그리고 다른 곳의 흙을 파다가 부뚜막을 고쳤다.

저녁때가 되어 양아들 내외가 귀가하였다.

“아버님, 부뚜막을 고쳐 주셨네요?”

즐거워하며 양아들이 인사 겸 말을 건넸다.

“으음, 그런데 너희들 땅을 팔 호미를 가지고 뒤꼍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옛? 뒤꼍으로요? 알겠습니다.”

최씨는 양아들에게 표시해 놓은 땅을 파라고 지시했다. 양아들이 땅을 파다가 깜짝 놀랐다.

“아버님, 이게 금이 아닙니까?”

“그렇다. 너희들의 마음이 가룩하여 터주 신이 복을 내리신 거다.”

“아버님이 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들은 이 금쌀을 팔아 집도 짓고, 농터도 마련하고 부자로 살았다. 그리고 하인까지 여러명을 두어 떼땡거리고 살았다.

하루는 깊은 생각을 하던 최씨가 양아들 내외를 불렀다.

“애들아,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분부 거행하겠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거지 잔치를 한 보름 동안만 열어 주렴.”

그래서 거지 잔치가 열렸다. 많은 거지들이 와서 먹고 놀았다. 마지막 보름째 되는 날 최씨의 아들 삼형제가 거지가 되어 나타났다. 못된 마음씨 탓에 필시 세 아들이 거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최씨는 생각했던 것이다. 최씨는 아들 거지 삼형제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였다. 양아들 부부는 이를 알고 하인들에게 따뜻한 물을 데우고, 옷도 지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이 거지 삼형제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 입히고 사랑방 한 칸을 주어 살게 했다.

어느 날 최씨는 양아들을 불렀다.

“얘야, 또 염치없는 말을 해야겠다.”

“예, 세 아들을 분가시키라는 분부시지요? 아버님.”

“그렇다. 이 세 아들에게도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주어 분가를 시켜야 하겠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후 세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주어 분가를 시켰다. 그러나 이 삼형제는 또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나 마음이 가륙한 양아들 내외는, 날로 재산이 번창하여 아들딸을 키우고 양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잘 살았다.

대신 장가가다가 아주 색시를 얻은 노총각

_ 억만리 전설 _

“너 먼저 시집가거라.”

“오라버니가 장가를 가야 내가 시집을 가지.”

나이가 들도록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가 사는 집이 있었다.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장가를 들어볼까 하고 집을 떠나 먼 타관으로 가다가 잔치가 벌어진 동네로 들어서게 되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잔치 국수 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국수 상을 들고 다니며 잔치 일을 보는 여인에게 청했다.

“그러시구려. 아이구, 잘 생긴 총각이네. 잠시만 기다리슈.”

잔치 일을 하는 여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 음식을 개다리소반에 한 상 차려 왔

콩트르 옆은 마장면의 전설

다. 잔치 손님들 속에 섞여서 총각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잔칫집 주인이 되는 노인이 이리저리 다니며 살피다가 음식을 먹는 총각을 유심히 지켜 보았다.

“어허, 띠꺼머리를 보니 총각이로군. 여보게 총각 나 좀 보게나.”

“옛? 왜 그러시는지요?”

“내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오게.”

주인이 사랑채로 노총각을 데리고 들어가 좌정했다.

“여보게 총각, 부탁이 하나 있으니 들어주어야 하겠네.”

“무슨 일인지요? 들어 들일 만하면 들어 드리지요.”

“음, 오늘이 우리 아들을 장가 드리는 날이네. 그런데 이제 곧 신부집으로 길을 떠나야 하네.”

“예, 그러 하온데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절름발이 병신이네.”

“딱하게 되셨군요.”

“신부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병신인 줄 모르네. 우리 아들 대신으로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어 주게. 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겠네.”

노총각이 가만히 생각하니 황재를 만난 것이었다.

“아이구, 어려운 일이지만 잔치 음식도 잘 얻어먹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총각은 승낙하고 대신 장가들러 가마를 타고 신부집으로 갔다. 그런데 은밀히 들려 온 소문으로 신랑이 절름발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병신인가 신부측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몰려 나왔다. 막상 가마에서 내린 신랑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웅성거렸다.

“어디, 신랑이 절름발이라 더니 아니군.”

“그렇군, 잘 생긴 신랑인데 헛소문이었어.”

대신 장가가는 총각은 신부집에서 첫날밤까지 맞이했다. 신부는 잘 생긴 신랑을 보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 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무슨 걱정을 하며 신부를 통 건드리질 않았다.

“왜 이러시는지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신부가 이상히 생각하여 물었다. 가짜 신랑은 참을 수 없어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사실 대신 장가를 온 가짜 신랑이요.”

“옛? 그럼 진짜 신랑은 진짜 절름발이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장가를 왔소.”

처음엔 신부가 놀라는 듯하더니 태도를 바꾸어 말했다.

“기왕 혼례를 올렸으면 당신이 내 낭군이어요. 어서 웃고름을 풀어 주오.”

노총각은 어여쁜 신부가 결심을 하고 청하는 말에 앞 뒤를 접어놓고 그 날밤 끝같은 밤을 지냈다.

신랑을 대신 보낸 일이 탄로가 나자 신랑집에서는 낭패가 났다.

“어허 그거 참, 내가 잘못 생각하여 낭패를 보았군.”

“그것 보아요. 솔직하게 절름발이로 그냥 보내지. 신부를 빼앗겼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신랑집 부모는 서로 싸우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이와 반면에 신부 집에서는 천만 다행으로 경사가 났다.

“전화위복이라더니 정말 잘되었네.”

“사위가 병신이라더니 멀쩡하게 잘 생기고 똑똑하네.”

이렇게 대신 장가를 든 노총각이 진짜 장가를 들고 말았다. 얼결에 장가를 든 총각이 신부를 데리고 고향집으로 갔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신랑의 부모는 얼씨구나 좋아서 야단이었다. 또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던 노처녀 누이동생이 더욱 좋아했다.

“아이구, 그럼 그 절름발이 총각에게는 내가 시집가야겠네.”

얼결에 노처녀가 말을 해 버렸다.

“너 정말 그렇게 말했겠다?”

“그럼요. 오라버니는 얼결에 장가를 갔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처녀귀신을 면해야지요.”

“그럼 그집이 부자이고, 내가 미안하기도 하니까 중매를 봐 보자.”

그렇게 해서 신부를 빼앗겨 낭패를 본 절름발이 총각네 집으로 매파를 보냈었다. 절름발이라든가 좋으니 시집을 오겠다는 처자가 있다는 말에 다시 그 집안은 화기가 돌았다.

“암, 결혼을 시켜야지. 누가 절름발이 우리 아들에게 시집을 오겠나?”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성사가 되어 누이동생은 절름발이 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이렇게 오누이가 결혼을 하여 아들딸 낳고 잘 살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격

이 되었다 한다.

개가 물어 간 신주

_ 억만리 전설 _

“네 어미 참 예쁘더라. 응?”

“천지 현황하고…”

“애야, 네 어미 참 예쁘더라.”

“우주 영책이라.”

학동은 못 들은 척하고 천자책만 읽었다. 글방 훈장이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천자책을 읽고 있는 학동에게 귀찮게 자꾸만 말을 걸었다.

다른 학동들은 공자, 맹자까지 읽는데 아직 천자책을 읽는 이 학동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런데 부인도 있는데 과부를 골라 바람을 피우는 이 훈장의 나쁜 버릇을 알고 있는 동네 부인들이 망신을 주어 혼내려고 의논했다.

“언제 우리 그 훈장을 혼내 주지요.”

“그래요, 이번 저녁 대접은 우리 집에서 할 거요.”

“그럼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해요.”

글방에서는 돌아가며 글방 훈장에게 저녁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 그 대접하는 순서가 어느 날 과부 아들에게 돌아왔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진지를 드시라고 훈장님께 여쭙어라.”

“예, 어머니.”

초대를 받은 훈장은 과부 집에 간다는 바람에 마음이 들떠서 명주 바지저고리에 의관을 새것으로 갈아입고, 수염을 잘 다듬어 얼굴도 치장하고 과부집으로 갔다. 저녁을 차려 와서 훈장이 식사를 하는데 밥상머리에 앉은 과부는 젓가락으로 김치도 골라 주고 자반도 집어 밥숟가락에 얹어 주며 시중을 들었다.

“훈장님은 참으로 잘 생겼습니다.”

과부가 요염한 목소리로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훈장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은 체하며 식사를 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저녁 음식을 받아먹은 훈장이 얼른 일어나지 않고, 과부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더 미적이고 있다가 나중해야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아, 잘 대접을 받았으니 가겠습니다.”

“아이구, 훈장님. 왜 가시려고 합니까?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그냥 주무시죠.”

과부가 유혹하는 말을 들은 훈장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이라 얼씨구나 하고 다시 주저앉았다. 과부가 저녁상을 치우고 이부자리를 폈다. 훈장은 못 이기는 체하다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과부는 훈장의 의관을 멀쩡이 감추어 두었다.

“아, 어서 들어오시구려.”

훈장이 과부를 이불 속으로 불러들이려는 순간이었다.

“예, 잠깐 만이요. 부엌에 가서 물 좀 떠올게요.”

과부댁은 문을 열고 나갔다.

“과부댁 계슈?”

이때 밖에서 부인들이 부르는 소리가 났다.

“아, 아직 안 자는 거유? 마실 왔수!”

동네 부인들이 모른척 방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벌써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간 거유?”

부인들이 이불을 훌렁 걷어 제켰다. 이불 속에 벌거벗고 있던 훈장은 깜짝 놀라며 벌거벗은 채로 옷을 찾다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벌거벗고 나간 훈장은 추워서 군불을 때고 다 식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다. 따뜻하긴 했으나 거기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어 재 검정만 온몸에 바른 채 검둥이가 되어 그냥 자기 집으로 달려왔다. 훈장의 부인이 화가 나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 달래는 소리가 나서 열어 주었더니 시꺼먼 그림자가 방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으악!”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인데 벌거벗은 검둥이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화가 나 있던 부인이 오히려 놀래 자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망신을 당한 훈장이 복수를 하려고 몇 년을 버르고 버렸다.

과부의 아들도 장성하여 장가를 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훈장이 과부의 아들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을 글방으로 불렀다.

“으흠, 네가 장가를 가서 좋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으니 명심하거라.”

“예, 훈장님.”

“날콩을 갈아서 그 물을 싫더라도 꼭 참고 마시고 첫날밤을 지내면 좋으니라.”

과부의 아들이 장가 가는 날 새색시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첫날밤을 지내게 되었다. 훈장의 말대로 새신랑은 날콩을 갈아 달래서 그 물을 한 사발 마시고 신방에 들었다. 조금 있더니 신랑의 배속에서 도랑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억지로 참다보니 얼굴이 오만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어디가 아프셔요? 무슨 고민이 있으셔요?”

신부가 보다 못해 이유를 물었다. 신랑은 사실을 말했다.

“사실은 훈장님이 날콩 국물을 마시라고 해서 먹었더니 배탈이 났구려.”

새댁이 무슨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가 커다란 바가지를 들고 들어왔다. 신랑은 새댁이 시키는 대로 바가지에 설사를 했다. 새댁은 그 똥바가지를 수건 여러 개로 싸고 또 싸서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곤 신랑 신부는 그 날밤 아주 편하고 재미나게 합방하여 첫날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신부가 종을 불렀다.

“이걸 동네 훈장님께 갖다가 드려라. 과부댁이 잔치 음식이라고 보내신 거라고 일러라.”

“예? 새 마님,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종이 코를 킁킁거리며 그것을 훈장에게로 가지고 가 전달했다.

“과부댁이 이 잔치 음식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요.”

“오 그래, 아직도 날 잊지 않았군.”

훈장은 자기가 그리워하는 과부댁이 보낸 거라 하여, 몰래 혼자서 먹을 데를 생각하다가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가지고 가서 신주를 내려놓고 대신 그것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잔치 음식인가 보고 싶어, 여러 겹으로 싸 보자기를 푸르고 푸르다가 그만 똥바가지를 떨어뜨려 뒤엎고 말았다.

똥바가지는 깨지고, 오물은 이리저리 튀어 신주까지 뒤덮었다. 그 때 밖에 있던 개가 이 냄새를 맡고 사당에 들어와 신주를 먼저 물고 밖으로 달아났다.

“어엇, 저 개가 신주를 물고 가네!”

훈장이 달아나는 개를 소리소리 지르며 쫓아갔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었다.

“신주를 개가 물고 가네, 개 신주 물어 가네.”

훈장네 신주를 개가 물고 갔다고 그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

_ 억만리 전설 _

“아이구, 배 아파! 아이구, 배 아파!”

“곽란이 되었소? 어디 봅시다.”

“아니오. 서방님, 그런 게 아니오.”

“그럼 무엇이요? 색시, 어디가 아픈 거요?”

“아이구 아이구, 아기가 나오려구 해요.”

“무엇이라고?”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벼락 맞는 소린가. 신랑이 장가를 들러 와서 첫날밤을 맞았는데, 새색시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래도 농담인가 싶어서 신부를 살폈다.

“아이구, 사정 이야기는 나중에 해 드리겠으니, 우선 아이나 받으세요.”

결국은 첫날밤에 장가를 들러온 신랑은 신부가 낳는 아이를 받았다. 사내 아이였다.

“미안해요 서방님. 내가 혼인 전에 결혼하기로 몰래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다 소식이 없어서 그만 이렇게... 서방님 어서 날이 새기 전에 이야기를 죽여서 산에 묻어 주세요.”

“알았소. 내가 처리하겠소.”

기가 막혀 하면서도 신랑이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하니 신부의 사정이 딱하게 생겼다. 그래서 신랑은 아이를 따뜻한 형겅에 싸서 밖으로 나왔다. 신랑은 아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다시 들어와선, 신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결심하고, 우선은 산후 조리를 주선했다.

신랑이 밖으로 나가 장모를 불렀다.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장모님, 지금 신부가 배가 아파 야단입니다. 그 병은 제가 압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제 부탁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말해 보게. 사위.”

“예, 그 배앓이에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미역국을 먹어야 합니다. 그걸 해 주십시오.”

“이상하다. 그건 산후 조리에 쓰는 음식인데...”

“아닙니다. 산후에도 먹지만 설사 꺾란에도 먹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장모가 사위의 말을 듣고 쌀밥과 미역국을 끓여 가지고 와서 신방을 차린 방안에 들여 밀어 주곤 그냥 갔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나중이라도 아무 말 마시오.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시오.”

“예. 착한 우리 서방님.”

아침이 되어 혼인 행렬을 따라 색시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다가 동구밖 다리 위에 왔을 때였다.

“김서방,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

수행하는 신랑집 종에게 신랑이 말했다.

“어디서요? 도련님. 저는 아무 소리도 안들리는데요.”

“아마 저 다리 밑인 것 같은데 내려가 보도록 하게.”

“예, 도련님 아니 새 서방님.”

김서방이 다리 아래로 내려가 갓난아기를 안고 왔다.

“아이고, 사내아입니다. 신혼 날 다리 밑에서 엽둥이를 얻었습니다.”

“허허, 그것 보게. 불쌍하니 집으로 데려 가도록 하게.”

이렇게 하여 아무런 말썽이 없게 첫날밤 새색시가 낳은 아이를 신랑이 데리고 왔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직접 낳은 색시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여보시오 부인, 당신이 낳은 아이는 버렸소. 그리고 오늘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에서 우는 아이를 주어 왔소. 그 아이를 친자식 처럼 기르시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신랑은 혼자만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그 색시와 살기를 어언 환갑이 되었다. 그동안 아이는 일곱 명을 더 낳았다. 환갑 잔칫날 여덟명의 아들들을 모아 놓고 인생의 관한 이야기, 사는 이야기 등을 예를 들며 말했다.

“애들아,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첫날밤에 새색시가 아기를 낳았더라. 그
래 그때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겠느냐?”

환갑이 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었다.

맨 첫째, 다리 밑에서 주어 온 아들이 험악한 얼굴로 말했다.

“저 같으면 그 새댁을 능지처참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는 진짜 자기 아이들에게 물었다.

“예, 그냥 조용히 길러 주면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일곱 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다. 여덟명의 아버지가 된 그는 속
으로 생각했다. 다리 밑에서 주어 온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치녀를 농락한 것만 생각해도 그놈이 어떻게 못돼먹은 인간인지 알 것 같았다.

‘씨는 못 속인다더니...’

그래도 여덟 아들의 아버지는 끝까지 다리 밑에서 주어 온 자식의 비밀을 부인에
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고 모두 장성하도록 길렀다.

아버지를 위해 자식을 버리려는 효자 부부

_ 억만리 전설 _

문둥병이 걸려 고생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 효자 부부가 있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아버님의 병을 고쳐 드리지요?”

“글쎄, 그 많은 명약을 다 해다 드려도 낫질 않으니 어찌하겠소.”

“한가지 아니 해 드린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요?”

“어린 아이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일 수는 없잖소.”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그래요. 우리 어른의 것이라도 된다면 내 간이라도 드리겠는데...”

부인이 엄청난 말을 하였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심각한 얼굴로 부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의 간을 아버님께 드립시다.”

“무엇이라고요? 당신 미쳤소?”

부인이 울며불며 남편에게 대들었다.

“한 분뿐인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또 놓으면 되지 않소.”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말아요.”

이렇게 싸우고 나서 또 얼마가 지났다. 부인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이 한 말 대로 우리 아이의 간을 아버님께 드립시다.”

부부는 어린 아들을 깊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천진한 얼굴로 물었다.

“음, 산으로 진달래꽃 구경 간단다.”

부부는 흐르는 눈물을 참고 참으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으로 자식을 데리고 갔다. 진달래꽃이 만발한 깊은 숲 속에서 몸 속에 숨겼던 칼을 빼어 드는 아버지를 보고 아이가 놀래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울었다.

이때 산길을 지나던 관가의 나졸이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졸은 육모 방망이를 빼어 들고 산 속으로 달렸다.

“이게 무슨 행패요?”

아이를 해치려는 부부를 발견하고 나졸이 소리 쳤다.

효자 부부는 즉시 나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을 말했다.

“나리님, 사실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 아버지를 살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나졸은 감격하여 그 자리에 멍하니 한 참을 있다가 말을 하였다.

“좋소. 당신들의 사정이 딱하니 이 일은 없던 일로 하겠소.”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었소. 우리를 관가로 잡아 가시오.”

“미수에 그쳤으니 정상을 참작하겠소.”

“아니요. 아버지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으니 살 면목이 없소.”

또 한참을 생각하던 나졸이 말문을 열었다.

“정 그렇다면 대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간을 빼다가 보내 줄테니 당신들

은 집에 가 기다리시오.”

효자 부부는 그 말도 옳은 것 같아서 허락하고 나줄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아이는 집으로 가기가 무서워 무조건 나줄을 따라왔다. 그런데 나줄은 아이를 죽이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살게 했다.

이튿날 나줄은 개를 잡아 잡은 개의 간을 잘 써서 효자 부부네로 갔다.

“여보시오, 여기 아이의 간을 가지고 왔으니 아버지께 드리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시니 아버지 앞에서 죽을 수는 없고…, 훌훌.”

효자 부부가 그 간을 아버지에게 드리니 문둥병이 치유되었다. 병이 나은 아버지는 더 건강하여 오래 사는데, 그만 효자 부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어느 날 화려한 쌍가마가 들어 오고 있었다. 그 가마 행렬은 동네로 들어와 홀로 사는 할아버지 집앞에서 멈춰서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수군댔다.

“아, 저 집에는 저렇게 가마를 타고 찾아 올 사람이 없는데…?”

“글쎄, 부럽기는 부럽군. 그것도 쌍가마가 들어가니 말야.”

할아버지 역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가마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나는 죄가 많아 자식도 손주도 다 먼저 보내고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네 안마당으로 들어온 가마에서 내린 젊은 부부가 노인 앞에서 큰절을 했다.

“젊은이들은 누구인고?”

“예, 우리는 할아버지의 친 손주입니다.”

“으음? 우리 아들과 손주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아, 진작 올 것을…, 저는 그 때 나줄이 데리고 가서 잘 길러 준 손주입니다. 할아버지.”

젊은 부부는 바로 할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던 효자 부부의 아들과 며느리였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다. 그 후 이 손자 부부와 함께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양숙인 두 글방 학동

_ 억만리 전설 _

“목침 위로 올라서거라. 몇 번을 가르쳤는데도 또 틀리는구나. 네 집이 부자면 무얼하고, 키작은 네 친구를 보아라. 가난하여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엔 열 대를 맞아야 한다.”

목침에 오른 키 큰 학동의 종아리를 훈장님이 회초리로 때렸다.

“아야야! 아야야!”

키가 큰 학동은 종아리를 맞으며 키작은 학동을 노려보았다. 키 작은 학동은 키 큰 학동이 매를 맞는 동안 미안하여 모르는 체하고 책을 읽었다. 키 큰 학동과 키 작은 학동은 한 동네 사는 글방 친구였다.

그 날 글방에서 공부를 다하고 전처럼 집으로 함께 가는 길이었다. 산고개를 막 넘으려는데 키 큰 학동이 씩씩거리며 키 작은 학동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공부 잘하는 너 때문에 내가 또 매 맞은 거야.”

“그게 왜 내 탓이고? 내가 공부를 아니한 탓이지.”

“공부 잘한다고 너무 으스대지 말란 말야!”

두 아이가 서로 다투다가 키 큰 학동이 나무 꼬챙이를 주어서 키 작은 학동의 두 눈을 찌르고 말았다.

“으악! 아이구, 눈이 안 보이네.”

눈에서 피를 흘리며 키 작은 학동이 아프다고 소리치자, 키 큰 학동이 놀래서 집으로 줄달음질 쳤다. 두 눈이 상한 키 작은 학동은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거리며 집으로 가야 한다고 걷다가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 그래도 간신히 어느 산 속 외딴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집은 마침 빈집이었다. 키 작은 학동은 더듬더듬 집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키 작은 학동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키 큰 학동에게 와서 물었다.

“우리 애는 왜 오지 않노?”

“모르겠어요. 오늘은 올 때 따로 왔어요.”

키 큰 학동이 시침을 뚝 떼고 말했다. 키 작은 학동의 어머니가 동네 방네 아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런 시간에 키 작은 학동은 눈이 멀어 더듬거리며 오두막집 방안으로 들어갔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더듬거리며 벽장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한참을 숨어 있는데 밖에서 도깨비들이 우루루 방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어어, 어디서 인내가 나는데?”

“벽장에서 나는데.”

벽장문이 열리더니 도깨비들이 키 작은 학동을 잡아 끌어 내렸다.

“우리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집에 사는 도깨비다. 왜 말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느냐?”

“예, 잘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그래, 잘 말하면 살려 주마.”

“보다시피 나는 눈을 다쳐 장님이 되었어요.”

키 작은 학동이 사실대로 친구 학동이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깨비 대장이 다른 도깨비를 불렀다.

“야, 토끼 선생 도깨비 이리 왔!”

“옛.”

“이 불쌍한 학동이 눈을 다쳤으니,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 점을 쳐 봐라.”

토끼 선생이라 불리운 도깨비가 중얼 중얼 점을 치고나서 말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역시 동쪽으로 가지가 뺨은 약초가 손에 잡힐 것이다. 그것을 따다가 손으로 싹싹 비벼서 눈에 바르면 눈이 떠질 것이다. 알았느냐?”

“예, 알았소.”

“그리고 눈이 떠지면 그 길로 내려가다 보면 마을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 마을에 가서 좋은 일을 하여라.”

“어떤 일이요?”

“그 동네엔 커다란 고목이 하나 서 있을 것이다. 그 나무를 베어라.”

“그리하지요. 그런데 그건 나쁜 일이 아닌가요?”

“아니다. 그 동네는 자고로 물이 귀하여 고통을 받아 왔다. 그 나무를 베어 내면 물이 쿵쿵 솟을 게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게 되고 너는 좋은 일을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게다.”

콩트로 엮은 마장면의 전설

학동은 이 날 밤을 도깨비들과 어울려 외딴집에서 잤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학동은 토끼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하여 눈을 고치고, 마을로 내려 갔다. 과연 고목이 하나 서 있었다.

“이 고목을 베면 여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이 녀석이 미쳤나?”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이 나무는 고목으로 얼마 안 있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니 속는 셈치고 베어 보시지요.”

“그럼 그래 봅시다.”

학동은 간신히 허락을 받아 나무를 베어 내니 그 속에서 물이 쿵쿵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고을 사또가 학동을 불렀다.

“오호, 보아하니 영특하게 생겼구나. 여기서 공부하여 과거를 보거라.”

사또가 학동에게 상도 주고 공부도 시켰다. 학동은 금의 환향하기 전에는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과거에 합격하였다. 몇 년만에 금의 환향하였다. 그런데 부자이며 키가 큰 학동은 아직도 과거에 급제를 못하였을 뿐 아니라 어디론지 부랑 생활을 하며 다닌다고 했다. 키 작고 가난한 집 학동은 벼슬길에 올라 자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늙은 부모님을 다시 만나 잘 살았다. 

博物館은 어떤 곳인가?

이 태 호 이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1.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

최근 전국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붐이 일어난 듯 하다. 특히, 국민의 경제성장과 문화관광의 보편화는 박물관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는 처음 박물관을 “과거의 인류가 남겨놓은 것을 수집 보관전시”로 정의하여, 박물관의 자료를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977년이래 “박물관이란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교육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이라 하였다. 이로써 우리들은 문화유산을 조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포함하게 되었고 미래의 것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박물관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각종 자료를 ▶ 발굴이나 매입·기증을 통하여 수집하는 일, ▶ 분류·조사 연구하는 일, ▶ 일반인을 위하여 전시하는 일, ▶ 과학적으로 보존하는 일, ▶ 문화교류와 국가홍보를 위한 국내·외 교환전시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홍보자료의 발간, 학술강연회, 교양강좌 및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이차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박물관의 이러한 기능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화서비스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현대의 박물관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자주 찾아가는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건전한 휴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은 효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데, 소장 자료와 이들을 보관, 관리하는 전 시설이나 격납고 등 건물, 각계 각층의 방문객들, 또 박물관의 구성원 등 관리 대상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요구된다. 박물관은 자료와 건물과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에 본래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 건물이나 자료는 긴 시간을 구태여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적 구성 요소만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들은 적절한 시기에 재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2. 관광자원으로서 박물관의 여러 성격들

관광자원으로서 박물관은 상당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박물관이라는 문화시설의 본원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박물관은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여 대중들에게 교육과 위락을 담당하는 항구적인 비영리 문화시설인 까닭이다. 그러한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박물관은 제한된 공간에 역사문화 자원을 집약하고 있다.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시간적으로 장구한 세월을 경유하면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여 오랜 기간의 학습과 수많은 서적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데 박물관에서는 장구한 역사와 광범한 문화를 아주 좁은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물관 설립과 전시의 과정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박물관 전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물관은 관람자들에게 시간·공간·경비를 절약하여,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엄청난 장점을 가진다. 부분의 집합이 전체이지만, 집성된 전체 속에서 볼 때 하나의 유물은 하나 이상의 가치를 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박물관은 물적 증거물을 통한 사실성 전달과 감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역사와 문화는 실존했던 현상이지만, 일반인들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란 실로 어렵다. 그런데 박물관은 역사·문화적 증거물들을 수집·전시하고 있어서 설령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맥락을 따라 전시됨으로써 박물관은 결코 단편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체의 구도 속에서 조망될 수 있다.



▲설봉산성출토 신장상(神將像)

▲이천시립박물관 전시실 전경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진귀품을 박물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상함으로써 감동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옛말에 ‘百聞而不如一見’ 이라 했던가.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사실이 박물관에서 입증된다. 설령 방송매체나 사진 등을 통하여 접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물이 아니다. 실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보았겠지만, 간접적인 자료로써는 실물이 주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간접자료는 크기, 형상, 질감, 색상 등이 실물만큼 정확하지도 않거니와, 실물처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물은 다른 어떤 간접자료보다 더 정확한 정보와 깊은 감동을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희소가치가 큰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는 더 강한 매력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희소가치란 시간적 깊이와 역사적 결정성, 미적 아름다움과 한국적 정서, 특정 사람들이 형성한 생활방식의 구체성, 양적 희소성 등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이다. 그러므로 희소가치가 높은 전시물은 비록 그 수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동을 주고,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가 수많은 다른 전시물이 말하는 역사와 문화의 전체 맥락속에서 이정표의 위상을 차지하므로 폭넓은 감동을 자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박물관은 전시보조자료를 통하여 자율적 학습과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박

물관 전시실에 들어서면 실물자료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실물 전시자료 이외에도, 모형, 복제품, 사진 등이 시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실물이 담고 있는 정보의 망을 따라서 실물이 아닌 전시보조자료가 효과적으로 동원되어 있기도 하므로, 실물이 없던 간에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한결 용이하게 한다. 그뿐 아니라, 중심적 실물 전시자료 이외에 그것을 잘 이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그래픽, 동영상, 설명문, 설명도해, 라벨, 오디오, 비디오 등이 실물자료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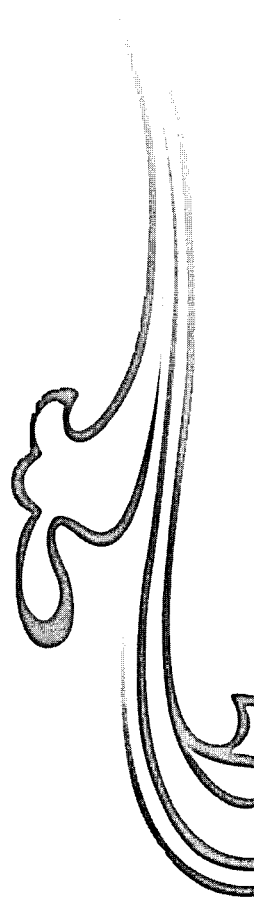
이러한 전시보조자료는 기본적으로 전시 정보를 풍부하게 할뿐 아니라 관람자에게 전시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전시실에서 관람자는 전시에 대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전시보조자료를 동원하여 설명해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관람자들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두었으며, 이것이 또한 박물관이 관광자원으로서 갖는 장점이다.

넷째, 박물관은 계절과 기후 조건에 무관하게 언제든지 관광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관광은 계절 또는 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박물관 관광은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 있다. 혹한과 혹서, 우천시에도 박물관은 실내전시물에서 관람을 한다는 특성상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는다. 더구나 시립박물관은 설봉공원이라는 쾌적한 환경내에 있으면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쉽게 관광을 도모할 수 있다. 계절이나 변화무쌍한 기후조건에 의하여 특정 장소의 유적지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이 제약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박물관은 분명 전천후 관광이 가능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박물관은 다양한 관광형태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추었다. 역사문화의 건전한 학습장이자 교육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관람을 하더라도 구애받을 것이 없다. 박물관이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태의 관광에도 부합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보조자료를 동원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문화시설이자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박물관전시의 메리트뿐만 아니라 박물관 자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한계를 지닌 관광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박물관의 전시는 전시물이 갖는 역사적 진실성과 사회문화적 원맥락이 이탈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이다. 역사와 문화는 물적 증거물만으로는 이해가 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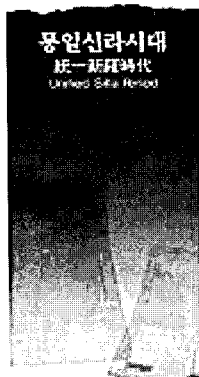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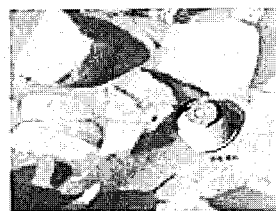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물은 청동 유물과 금·은 유물 중에는 청동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능하므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속에서 물적 증거물의 존재양상을 드러내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역사성과 실체성에 대한 검증은 하면서 편년을 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년과 재구성은 엄밀히 말해서 완벽한 편년과 재구성이 아니라 재맥락화한 것이다.

둘째, 박물관은 잊혀진 역사·문화를 의도적으로 보존하고 상기하게 함으로써 그 전시의 형식에 따라서 전시물의 본래 의미가 일그러질 수 있다. 즉, 전시 의도에 따라서 일정한 왜곡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런 문제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실제 전시연출에 있어서는 균형 감각을 잃은 전시가



▲ 전시물을 설명하는 전시패널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박물관 전시과정에서 진귀품, 완형인 것, 미려한 것 등이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데서 드러나나, 결국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물건이면서 널리 일반성을 확보하고 있던 것이 오히려 전시대상물 선택과정에서 제외되기 쉽다. 박물관 전시가 더 우아하고, 더 고상하고, 더 감동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만일 동종의 자료가 있을 때 더 허름하고 낡은 것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전시할 때 관람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전시기획자의 전시기준을 지배하게 된다. 박물관 전시자료가 갖는 대표성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셋째, 박물관의 전시물은 대개 정적이므로 일반인의 흥미를 감소시킨다. "유물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물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유물이 말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은 유물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유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도 움직임을 통

해서도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물, 즉 전시물은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서면 교실이나 교육장에 들어온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만큼 따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박물관에는 동적요소, 흥미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박물관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실내 전시가 관광에 제약성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실내 전시를 관람하는 데는 정숙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관광을 가면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든지 온몸을 흔들면서 어느 정도의 일탈 같은 것을 맛보려고 한다. 즉, 관광은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맛보는 자유롭고 신나고 흥미를 느끼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숙성을 요하는 실내전시 위주의 박물관은 한국인의 관광심리를 억압하고 또 그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3. 박물관의 역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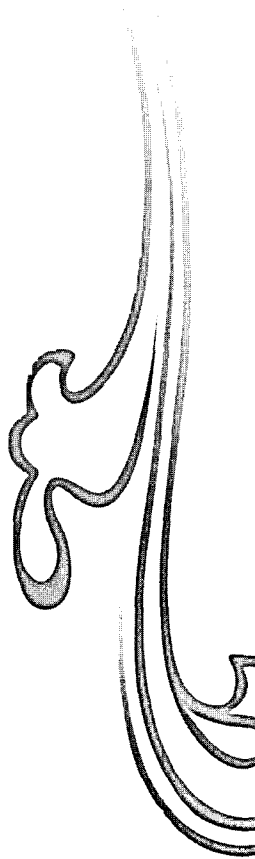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박물관에서는 일차적으로 유물의 수집 및 보존, 전시, 교육활동이라는 몇 가지 사업들을 상호연관성 속에서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의 분류체계를 나름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박물관의 분명히 해야 하고, 수장하는 자료의 양과 질, 그리고 수집전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어도 〈운영·전시를 위한 자료의 분류〉,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의 분류〉,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분류〉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먼저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분류〉가 확립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조사란 자료의 수집을 함의하고 있다. 보존이나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이전에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의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이나 관리는 자료가 어떤 거시 수집되는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진다.

다음으로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의 분류〉가 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매우 다양한 물리적·비물리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자료의 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전시를 위한 자료의 분류〉가 수립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져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운영이나 전시를 위한 자료의 분류는 또 하나의 보존이나 관리를 위한 자료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가 정적인 전시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교육적 효과의 확대재생산의 의미를 지닌 사회문화교육과 체험의 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에서는 일차적 자료수집과 전시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전시 및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별전시는 박물관의 일반 상설전시에서 보여 주지 못한 유물들을 일정한 기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람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서 한층 심화된 문화이해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박물관이건 매년 한 두 차례씩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천시립박물관의 경우 개관기념 특별전 “雪峰에서 만나는 文人 畵의 향기”에 이은 매년의 특별전 개최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전은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시유물의 종류와 점수가 다양하지 못한 상설전시의 한계를 새로운 출구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전시에 소요되는 예산의 개상 및 지원은 이천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천의 새로운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이 자리잡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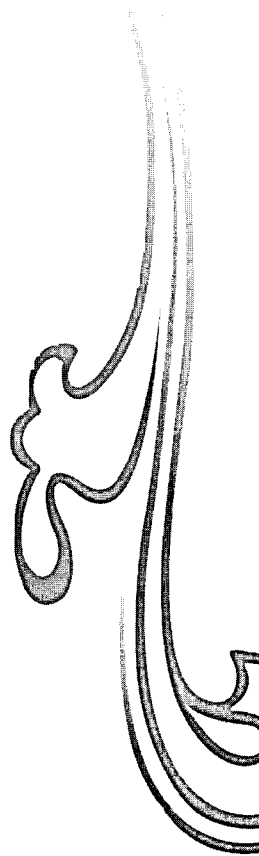
특별전시와 함께 현대적 박물관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회문화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일차적으로 박물관은 유물을 소장,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역사문화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수동적인 교육 방법이 함축되어 있다는 한계를 암암리에 지니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박물관의 사회문화교육 사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먼 거리에서 타자(他者)로서의 감동이 아닌 직접적인 주체로서의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體驗)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문화교육은 시민들의 사회적 계층 및 연령에 따라서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름을 파악한 뒤,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으로 박물관과 시민

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동의 박물관 주인이 되는 길이 된다. 기왕의 박물관 운영에서는 박물관 담당직원들만의 단독적인 사업이 많았던 관계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느끼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앞으로의 문화 담지자들이 될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이면서 필수적인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의 교육적 효과란 몸을 통해 직접 체득하는 것이 머릿속의 이념으로 전달되는 교육방식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박물관에서는 때로는 사라져 버리고 기억속에서 잊혀진 전통문화의 체험, 때로는 앞으로의 미래를 펼쳐 나갈 꿈에 대한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의 잎을 더욱 무성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어린이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여 문화사랑의 길을 심어주어야 하고, 아울러 문화 자매도시간의 문화체험을 교류하는 것도 체험의 종류와 질을 다양화하는 길이 된다. 역시 다른 자매도시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천의 도자기와 같은 명물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외부사회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립박물관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근간으로 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유도피아를 건설한 뒤에는 그것을 외부사회와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이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할 터, 그 좋은 방법이 관광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홍보활동을 다양화하는 하는 것이다. 



■ 인간의 마음과 영혼

朴光植 / 정리 - 編輯室

영혼이란 무엇인가 ·

인간이 생을 마치면 삼혼칠백(三魂七魄)이 흩어졌다고 말한다. 삼혼은 생혼(生魂)·각혼(覺魂)·영혼(靈魂)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생혼과 각혼은 있지만 영혼이 없으며, 오직 인간들에게만 삼혼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만물을 지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인간이 이용가치가 특히 높은 동식물을 연구하고 개량하여 생활향상을 이루게 된 것도, 과학문명의 발전을 통한 산업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칠백이란 우리의 감정을 말함이니 기쁘고, 성내고, 사랑하고, 즐겁고, 슬프고, 근심하고, 두려운 감정인 喜·怒·愛·樂·哀·憂·慍다. 이 칠백은 고등동물인 원숭이와 호랑이, 가축인 개·소·닭·말·고양이·양 등에게도 있으며, 텃새인 까치와 까마귀도 영물의 짐승이라고 말한다.

삼혼칠백의 총합체는 우리의 마음이며 육체는 삼혼칠백이 깃들어있는 집이다. 우리가 사는 집도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뜯고 새로 짓듯, 우리 육체가 늙어서 못쓰게 되면 주인격인 삼혼칠백이 거푸집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된다. 죽음이란 삼혼칠백이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형체도 빛깔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으니, 하느님과 영혼과 마음은 같은 것이라 우리가 느끼고 상상할 뿐이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혼(生魂)이 깃들여 있다. 뛰는 짐승, 날짐승은 물론 작은 벌레에 이르기 까지 때가 되면 짝지어 새끼를 낳고, 식물들도 종족번식을 하고 있음은 각혼(覺魂)이 있는 탓이다.

생물계의 약육강식은 하늘이 정한 이치로 약자에게는 강자를 교묘하게 피하는 재주를 주었고, 혹은 집단으로 적을 공동방어하기도 한다. 꿀벌과 개미는 정해진 역할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공동생활을 영위한다. 풀과 나무, 해조류 등은 꽃을 피워 벌나비나 바람을 통한 수분작용(受粉作用)으로 씨앗을 만들어 영원토록 종족을 보존하고, 꽃을 피울 수 없는 버섯류나 박테리아도 종족보존을 위해 정해진 방법이 있다.

모든 식물들은 때가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면 열매맺고 단풍이 지며, 겨울에는 낙엽이 저서 흙으로 돌아가니 이런 행위들이 각혼이 깃들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옛부터 영물로 대접받는 짐승들이 있다. 아득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길들이기 시작한 가축들인 소·말·돼지·개·닭 등이 이에 속한다.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는 까치, 반대로 흉사를 알린다는 까마귀도 영물이며, 한국 호랑이는 산신(山神)으로 대접 받기도 했다.

사람은 도가 극에 달하면 신선이 되고, 조류는 봉황이 되고, 어류나 파충류는 용이 되고, 곤충은 사람이 된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허전한 마음을 종교에 의지하여 덜어보려고 한다. 불도를 잘 닦으면 사후에 부처나 선관선녀(仙官仙女)가 되기도 하고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기도 한다고 하며, 기독교는 서로 돕고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서 영생불멸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정신의 진화과정

만물의 영장으로 삼촌칠백을 갖춘 우리의 마음을 심리학자들은 원시적 충격의 세계 15%, 의식 15%, 무의식 70%로 본다. 원시적 충격의 세계는 원시적 욕망의 세계로 식욕·배설욕·인증욕(認證欲)·소속욕·성욕·명예욕·정복 및 지배욕·안정과 휴식욕·미적 추구욕·창조욕 등이다.

마음의 70%를 점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체험적 경험과 학습에 의한 지식을 심전(心田)에 심어 보관하며, 더욱 개발하여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식에 떠올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심전개발(心田開發)을 위해 인간은 평생 동안 교육과 학습을 통한 노력을 기울인다.

태아교육의 예를 들어보면 학습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맨처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정자 하나와 난자가 결합해서 탄생한 생명의 씨앗은, 어머니의 자

궁 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손발과 이목구비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갖추어지면서 10개월 만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다. 지구가 탄생하면서 원시 생명체의 출현부터 인류가 나타나기 까지 수 백만년의 진화과정이 단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모체인 어머니의 생각이나 행동이 태아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태교는 늘 바른 생각, 바른 언어를 쓰고, 부정한 행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 5, 6년간의 유아기는 인류역사로 치면 원시사회에서 역사시대로 접어들기 직전까지 수 만년의 진화과정과 같다.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기이니, 불량한 부모 밑에 현명한 자녀를 기대할 수 없다.

심전개발이란 무의식의 넓은 공간을 마음의 씨앗을 심는 밭이라 생각하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가꾸어나가는 일이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최소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는 자연에서 얻는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므로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사람의 행동은 먼저 오감(五感), 즉 눈으로 보는 시각, 소리로 듣는 청각, 냄새를 맡는 취각, 맛을 보는 미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을 통해 전달된 어떤 느낌에서 출발한다. 이 느낌이 원시적 충격 가운데 필요한 욕망과 합해져서 무의식층을 뚫고 의식면으로 떠오르면, 스스로 양심(良心)과 흑심(黑心) 사이에 판단을 내리게 되고, 좋은 일이라 판단되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의식이란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아 보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감각이 충격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무의식을 뚫고 의식면에 떠오르면, 의식면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 판단을 통해 예의도덕상 합법적으로 쉽게 행동할 수 있으면 문제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도덕상 문제가 있으면 자제력(양심)과 충격력(흑심)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것이 의식작용이며 바로 영혼이니 인간만이 지닌 하늘이 주신 특권이다.

시장이가 든 행인이 때마침 식당 앞을 지나려다 보니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찔러 미각을 돋운다. 원시적 충격으로 강한 식욕이 발동하고 의식은 호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게 된다. 마침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을 지녔다면 곧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주문함으로써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주머니 속이 텅 비어 있을 때 의식 속에서는 여러 가지 궁리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시간이 흐를 수록 배는 더 고파지고 갈등도 깊어져서 무전취식을 해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또 궁리를 하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

으나 먹고 나올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다. 주인에게 사정한다고 해도 소용없겠고 몰래 도망치는 방법 뿐인데 걸려들면 큰 망신이다.

이렇게 갈등하다가 욕심이 지나치면 모험을 감행할 것이고, 끝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고 마는데 이런 작용들이 모두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마음의 수양이 덜된 사람은 욕망에 굴복하여 남의 돈을 도둑질하자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 마침 주인이 자리를 비운 점포가 있어서 번개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돈궤에서 돈을 훔쳐 나오는데 조마 조마한 마음에 식은 땀이 흐른다. 다행이도 들키지 않고 점포를 빠져나와 “휴우”하고 한숨을 쉬는데, 도둑질은 했을망정 갈등이 해소되었기에 이를 승화(昇和)라 부른다.

이런 도둑질이 한번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차례 거듭되다 보면 심전에 도둑질이란 나쁜 씨앗을 뿌려 가꾸게 되는 것이다. 조마 조마하면서도 도둑질이 성공하고 나면 후련한 쾌감까지 느끼게 된다. 마치 아무도 밟은 적이 없는 숲속을 계속 다니다 보면 풀이 죽어서 길을 이루는 것과 같아서, 도둑질이 익숙해 지다보니 평생 도둑질로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시대와 환경에 대하여

다음은 시대와 환경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필자의 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보낸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새터는 나의 9대조 수사공께서 처음 터를 잡은 곳으로 후손들이 공심 이와 용인군 외사면 아송리에 흩어져 살고 있다. 본고장인 새터에는 박씨 5가구, 이씨 2가구, 김씨 1가구 인데 박씨와 이씨는 서로 인척간이고 김씨는 상민에 속하였으나 새터에 들어와 살면서 하인 신분이 되었다.

김씨 부부가 50대에 이사오면서 11세 되는 아들 업둥이를 데리고 왔고, 큰 아들 업산이는 수원에서 머슴을 산다고 했다. 업둥이는 나보다 두 살 아래인데 내가 보통학교 4학년 때 12살짜리 업둥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나는 보통학교에 들어가기전 우리집 사랑에 설치한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웠다.

집에 있는 천자문을 가지고 가서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글을 가르치는데, 업동의 부모가 매우 기뻐하여 나더러 선생님, 선생님, 우리 도련님 선생님하고 불렀다. 해마다 설날이 되면 어른 아이가 몰려다니면서 세배를 다니지만 업동이네 집에는 가

지 않는다.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같은데, 왜 저집 노인들에게는 세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업동이 부모가 하인 신분인 탓에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후 부터는 혼자 찾아가서 세배를 하였다. 노인들은 나의 세배를 받고 어쩔줄 모르고 기뻐하면서 감격해 했다.

나는 해마다 빼놓지 않고 업동의 부모에게 세배를 올렸다.

업동에게 천자문을 모두 가르치고 나서는 이어서 국문을 가르쳤다. 국문해독 다음에는 일본어인 가나와 수학의 기초까지 가르쳤다. 그후 업동이 심상소학교에 입학하니 1학년부터 1등으로 급장이 되었다. 이 무렵 업동은 봉남(鳳男)이라 개명하였다. 나의 부친이 태평리 구장으로 계실 때 형인 업산을 용남(龍男)으로, 업동을 봉남으로 호적을 정리하셨기 때문이다.

봉남과 같은 학년인 장백만(張百萬)은 충북 제천사람인 아버지 장씨가 상처를 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집 머슴살이를 하였다. 백만에게도 업동에게 가르치던 천자문을 가져다가 가르쳤다. 이 아이는 나와 동갑으로 역시 우등생이 되어 6학년까지 봉남과 나란히 반장, 부반장을 번갈아 하였다.

어린 시절 익숙하게 보아왔던 풍습 가운데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중 하나가 행년직성법이다. 이는 정초에 日·月·金·木·水·火·土·제용계도 등 9직성(直星)을 10세 이상 남녀에 배치해 놓고, 1년간 해당 직성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특히 제용직성이 걸리는 사람은 액을 피하는 방법으로 짚으로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 그 뱃속에 해당자의 생년월일을 적어 넣고, 정월 열나흘 밤 머리맡에 두었다가 보름날 새벽에 거리에 내다 버린다. 허수아비의 손발에는 동전이나 은전을 한뼘씩 끼워 넣었으니 장난끼 있는 아이들이 이 동전을 꺼내 쓰려고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일직성과 월직성은 해와 달을 그려서 지붕마루에 꽂기도 하고, 화직성은 옷동장을 불에 사르고, 수직성은 물가에 나가 기도하기도 한다.

해토될 무렵이나 찬바람이 날 무렵에는 으레껏 많은 사람들이 병마로 고통을 받는다. 병이 나면 의원을 찾아야 하는데 가세가 빈곤한 사람들은 돈 안드는 예방법을 찾게 된다. 백방비결(百方秘訣) 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서 병점을 보아 책에 쓰여 있는대로 예방을 한다.

가령 매월 초하루는 동방 원혼귀가 달려들어 병이 되었으니, 밤 9~10시 경 북어대 가리를 넣고 죽을 쑀어 동방 50보 쯤에 가져다 버린다. 그런데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신이다.

내가 어려서 모친이 해마다 가을 찬바람이 날 무렵이면 해소병으로 고생을 하셨다.

한달에도 2,3차례씩 죽을 쑤어 버리는데 일가 할머니 두 분이 번갈아 오셔서 큰 물박에 북어대가리를 넣고 싸래기와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끓인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신다. 할머니는 환자를 일으켜 앉게하고 큰 부엌칼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썩썩 베어담는 시늉을 하신다. 그리고 염하기를 “봉화 정씨에게 침탈한 원혼귀는 이 대접을 받고 즉시 물러나라. 불응이면 지옥불에 넣을 것이니 속거천리하라” 하면서 환자에게 죽그릇 속에 침을 세 번 뱉으라 한다.

방을 나가신 할머니는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걸음만큼 가서 죽을 버리시며 “속거천리 하라” 호령하신다. 그다음 발을 세 번 구르면서 식칼을 땅에 꽂고 다른 길로 해서 댁으로 돌아가신다. 그런데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기만 했다.

농사철이 되면 고추씨 뿌리는 날, 목화가는 날, 벼씨 뿌리는 날 등을 잡는데 고초일(枯草日)을 피하고, 출행하는 날, 혼인하는 날, 출상하는 날을 모두 날짜의 길흉을 보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우물과는 날, 사초하는 날, 이사하는 날까지 모두 택일하여 시행했으니 따지고 보면 일년 삼백육십오일 자유로운 날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좋고 나쁜 날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맑게 개이고 바람이 없고 따뜻한 날이 좋은 날이고, 반대로 눈 비가 오거나 흐리고, 바람이 불고, 춥거나 지나치게 더운 날이 나쁜 날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불교나 천주교는 자기수양과 사랑과 봉사를 가르친다. 유교 역시 수신제가를 바탕으로 인륜도덕을 가르친다. 허무맹랑한 미신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 왜정시대나 625 사변을 전후한 옛날 생활고로 시달리던 시절에는 오히려 미신행위가 덜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요즘 오히려 각종 미신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종교의 자유라 하여 온갖 도사·무당·판수들이 입으로는 제도창생을 내세우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다.

종교의 역할

인간에게 만일 초능력이 있어 벽을 뚫고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 진다고 치자. 인간과 동물의 양상한 뼈와 지저분한 오장육부를 늘 보면서 살아야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진저리가 나서 못 살 일이다.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다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비롯한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역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조물주께서 인간능력의 한계를 정한 것은 오�묘한 뜻이 있다.

그러나 조물주는 인간의 마음에는 한계를 두지 않았기에 마음의 세계는 자유롭고 무한한 세계이다 마음작용은 누구나가 자유롭지만 행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 예의도덕을 지켜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법률과 제도를 통한 제약이 따르니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땀흘려 일한 댓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땀을 적게 흘리거나 또는 전혀 흘리지 않고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꿈꾼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쉽게 이를 수 없는 꿈을 욕심내다 보니, 온갖 부당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을 궁리하게 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주색에 탐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매달려 온갖 죄를 짓다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허전하여 종교를 찾기도 한다. 과학문명의 발달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환경파괴와 같은 엄청난 재앙도 함께 불러왔다. 이와같이 개인과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공자께서는 수신제가를 한후 치국평천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셨다.

석가모니는 욕망에 의한 108번뇌를 끊고, 정심(正心)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봉사로 세상의 촛불이 되고 소금이 되라하셨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천도교의 교리는 인내천(人乃天)이니 곧 사람이 하늘이란 뜻이다.

또 천도교를 시천교(侍天敎)라 하여, 즉 하늘을 내 몸 속에 모시고 다니는 뜻이니, 나는 곧 하늘이므로 늘 행동을 바르게 하여 하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을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서 인화단결하여 인류평화를 위해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어떤 종교이건 사람이 바른 종교를 갖는 일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종교에 의지하여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면서, 인간도리를 지키고, 남을 돕는 즐거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지는 각자의 취향과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천성(天性)은 타고난 성품이니 적어도 80% 이상 선조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숙언에 습관(習慣)은 제2의 천성이라 했다. 천성의 나머지 20%인 습관은 후천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천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나는 신라 시조왕인 박혁거세 할아버지의 65세 손이 된다. 박혁거세의 29세 손인 경명왕의 넷째 아들 죽성대군(竹城大君) 언립(彦立)까지는 신라왕실 계보에 등재되었고, 언립의 아들 기오(奇悟)가 고려초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우리 죽산 박씨의 시조 이시다.

시조의 12세 손인 전지(全之) 할아버지께서는 타고난 문장대가로서, 18세 때 원나라 서울인 북경에 가서 광대한 원제국의 영재들을 물리치고 장원급제하시어 이름을 떨쳤다. 원의 조정에서 궁중내관으로 외교를 담당하다가 귀국하신 후에는 한림원에서 왕자들을 가르쳐 후일 충숙왕의 사부가 되셨다.

당시 고려왕조는 원의 속국으로 정략결혼을 강요당해 충숙이 원정에 볼모로 잡혀 있고 삼촌인 심왕이 대리정치를 하고 있었다. 심왕이 간신들의 꾀임에 빠져 반란을 꾸미면서 당시 조신들의 신망이 높았던 전지 할아버지를 찾아와 협력을 요청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의 부당함을 들어 호령으로 물리치시고 아들 원(遠)을 북경으로 급파하여 일의 다급함을 알리니, 충숙왕은 급히 귀국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

문광공(文匡公) 전지 할아버지의 고손이 되는 중의(仲宜) 할아버지는 대사헌을 지냈고, 7세손인 명룡(命龍) 할아버지는 시조의 24세 손으로 인조 때 정묘호란을 당하여 평안도 병마우후(平安道兵馬虞候)로 청군 3만명의 침입을 불과 수 천의 병력으로 막게 되었다. 3일 밤낮을 용전분투하다가 마침내 성이 무너져서, 밀물 듯이 밀려오는 적병들과 최후의 일각까지 항전을 전개하였다. 활시위마저 끊어지고 칼도 부러진채 전사하셨으니 온 몸에 성한 구석이 한군데도 없었다고 전한다. 충원공(忠源公) 박명룡 장군의 무용담은 우리 가문의 긍지인 것이다.

나의 성격형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신 어른은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이다. 증조부께서는 이름난 호주가(好酒家)이셨다. 태평리 장터가 이 어른의 술마시는 주무대였고, 이천·장호원·여주 장터도 빼어놓을 수 없다. 한번 집을 나가시면 보통 3,4일에서 7,8일까지 외박을 해가면서 술로 날이 새고 저물 정도였다.

증조부의 술빛을 매번 갇아주시는 분은 이 어른의 누님이다. 이 할머니는 대월면

대포리 소두니 문화 유씨 댁으로 출가하셨으나 청상과택이 되어, 이를 딱하게 여긴 시부모가 땅 두어 섬지기를 떼어 주면서 친가에 가서 살도록 했다. 호랑할머니로 소문났으나 동생의 술빚을 대신 갚아주고 집도 두어 차례 사주셨다.

지금은 없어진 대월면 부필리 북내동에 사셨던 심제택 씨가 같은 술친구였는데, 중조부께 “여계, 자네 아들과 내 누이동생을 혼인시키세”하고 제안하여 조부님은 청송 심씨댁 규수와 결혼하셨다. 호주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조부는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으셨고,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여 농토를 장만하셨다. 외지 땅 열마지기 도조를 받고, 커다란 검은소를 대월면 초지리 동안이 안씨댁에 주어 도조 받으시는 것을 어린 시절에 목격했다.

일반 하시다보니 글공부를 못해 얼마나 갑갑하셨던지 아드님은 외지까지 보내 글공부를 시키셨으니, 음성땅 오감파 가남면 조기울 신 학자댁에 가서 10여년 동안 수학하였다. 조부께서는 머슴을 두고 크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스스로 국문을 깨우쳐, 고대소설 정음선전을 서툰 솜씨지만 한지로 된 책에 손수 옮겨 쓰시기도 했다. 이목이 청수하시고 행동가짐이 조심스러우며 남의 보학(譜學)을 잘 기억하신 탓에, 선비 대접을 받으시며 인근 유명인사들과 교유하셨다.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셨으나 지나치게 검소한 성품이었다. 일찍 결혼해서 우리 4남매를 두시고 39세 때 상처하셨으며, 태평리가 3구로 나누어지면서 새터가 3구로 될 때 구장일을 보셨는데 이때가 서기 1937년으로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해다. 용인땅에서 이사온 할머니가 아기를 낳으시다 난산으로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아버지는 양조장을 하는 일본인에게 급전을 빌려 산모를 이천도립병원으로 급히 입원시키셨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사망하니 장례를 치르고 발을 팔아 빌린 돈을 갚으셨다.

어느 해 여름 장질부사에 걸린 행객이 마을에서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연자방아간에 짚을 둘러 방을 만들어 병자를 눕히고 손수 병간호를 하셨다. 이불과 요를 제공하고 한약을 지어다가 손수 달여 먹이고, 미음을 소반에 담아 먹이기를 10여 일 만에 행객은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몇 해 뒤에 다시 찾아와 사례하기도 했다.

어느해인가는 들판에 매어 둔 소를 감쪽같이 도둑맞아 동네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소를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얼마 후 근동에 사는 분의 귀뜸으로 소를 찾았으나 도둑질한 소년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니, 그 소년이 감복하여 새사람이 되었다.

내게는 나이가 동갑으로 생일만 5개월이 빠른 삼촌이 있었다. 이 삼촌이 20세 때

만주로 떠돌다 못된 성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으니 돈 백원을 부쳐달라고 매일처럼 편지와 전보를 보내왔다. 아버지는 땅문서를 금융조합에 저당잡히고 백원을 빌려 부쳐 주었으니, 이 때 백원은 쌀 100말 가격으로 시골에서는 매우 큰 돈이었다.

병이 나은 삼촌은 건달로 그럭저럭 지내다가, 22세 때 태평리 시장에 자전거포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것을 사달라고 또 매일처럼 성화를 부렸다. 할아버지의 명으로 또 다시 나머지 땅문서를 잡히고 이백원을 빌려 삼촌에게 주었다. 자전거 포는 샀지만 집안은 땅 한 평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혼자 결심하시고 아오지 탄광 인부로 자원하여 6개월 간 일하고 귀가하셨다가, 다시 일본 규슈에 있는 나가사키 탄광 노무자로 가셨다. 1945년 봄, 만 3년의 기한을 끝내고 귀국하실 때 300원 짜리 저금통장을 지니고 오셔서, 해방 직후 금융조합 빚을 갚고 땅문서를 다시 찾아 오셨던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 분들인 선조들은 나의 선천적인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조부모나 부모같은 근친들은 후천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나의 육체는 선천적으로는 강골이지만, 어릴 때 잘 먹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 후천적인 영향으로 자라서도 몸이 부실한 편이었다.

정신은 맑고 기억력도 좋아서 6,7세 때 천자문을 암기하여 조부님의 칭찬을 들었다. 문학과 고답을 좋아하고 성질은 급한 편이지만 자제력도 강해서, 타인과의 교유도 원만한 편이다. 교직생활을 할 때는 성격이 명랑하고 노래와 춤도 잘해서 각종 모임에 인기가 높았다. 수력발전소의 모형을 출품하여 경기도교육회장상을 받은 기억도 있다.

최근에는 가정집 담장에 간단한 조형물을 부착하여 덩굴식물인 호박이나 오이를 가꾸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였다니 일본인이 이미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

육체적인 고통을 비교적 잘 참고 초지를 관철하는 의기는 충원공 할아버지의 기질을 닮은 듯하고, 문장을 좋아하는 것은 문광공 할아버지의 기질인 듯 하다. 남을 쉽게 믿어 실패를 많이 하고 남돕기를 좋아함은 아버지의 영향이며, 어릴 적부터 물욕이 적어 제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이재에 어두운 성격은 증조부와 비슷한 것 같다.

인생은 늘 참회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타인에게 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며,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마음을 잘 닦아야

임진왜란 때 왜군이 물밀 듯이 북상해 올 때 천연의 요재지인 조령을 포기한 것은 신립 장군의 실책이었다. 충주 탄금대 앞의 배수진을 격파한 왜군은 길을 나눠 여주 방면으로 강줄기를 따라 진격하고, 다른 일대는 삼남대로를 따라 서울로 진격해 왔다.

4월13일 부산포에 상륙한지 불과 보름만에 서울을 점령 당하니 당시 서울에는 도성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의기양양한 왜군이 동대문과 남대문을 들어서는 데 별안간 천지가 진동하는 호령소리와 함께 삼각 수염을 날리며 봉의 눈을 부릅 뜬 장수가,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번쩍이며 왜적들의 길을 가로막는다. 관운장의 혼령인 것이다. 혼비백산한 왜적들이 뿔뿔이 도망쳤지만 관운장의 현신이 오래 갈 수는 없어 결국 왜적에게 도성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 무렵 피난길에 오른 군신들 앞에도 관운장의 혼령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백사 이항복 대감이 관운장의 혼령을 만나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야사에 전해 온다.

“관성제(關聖帝)께서 강림하시어서 왜적을 일시나마 저지시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원결의를 실천함일세.”

“무슨 말씀인지 하문해 주시옵소서.”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나라의 신종(神宗)은 소열제(昭烈帝) 현덕(玄德)의 환생이요, 조선왕 선조는 그대의 아우 장비의 환생인데, 무도한 왜적이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왕이 곤경에 빠졌으니 우선 장군이 가서 왜적을 혼내주라 하셨소. 차후는 명의 신종으로 하여금 원군을 보내주도록 할 것이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소.”

“장군께서는 어찌해서 인도환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북 명장 안량과 문추를 불의로 습격하여 억울하게 남의 생명을 빼앗았기에 그 죄로 환생을 못하는 것이요.”

“장군께서 돌아가신지 1천4백년이 지났는데도 영혼이 살아계시는데 저같은 사람도 죽으면 영혼이 남겠습니까?”

“영의정에 오르시고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실 분이니 적어도 1천년은 갈 것이요.”

“장군의 영혼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실 수 있는지요?”

“중국민족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외다. 그대는 걱정말고 임금을 도와 충성하면 명이 조선을 도와 왜적을 패망시킬 것이요.”

관운장의 말처럼 영이란 생전에 쌓은 공적에 따라 그 크기와 존속기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석가모니·공자·예수님 등 성인들의 영혼은 우리 인류의 스승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관운장은 중국민족 최대의 영웅이니 그 영혼이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이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다.

우리들의 영혼도 두고 두고 기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적을 쌓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혹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나쁜 일을 했더라도 참회와 수양을 통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다. 필자의 보통학교 동창생이 동경에 유학하여 대학을 다니는데, 내처지와는 비교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이 들기는커녕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당시 필자의 직업이 우체부였기에 동창생이 동경에서 친가로 보내는 편지와 소포를 자주 전달하다보니 부러운 감정이 자꾸만 시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혼자서 실감한 경험이다.

우리같은 범인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작은 죄라도 지어봐야 죄가 나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통감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성장과정인 것이다. 마음쓰임은 영혼의 작용이며, 마음은 영혼이요 영혼은 하늘이니 곧 삼위일체이다.

마음씨란 무의식의 세계인 심전(心田)에 새겨진 많은 것들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골라 깊이 심어놓은 씨들을 말한다. 후에 필요할 때 심전에 심어둔 지혜를 꺼내서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게 된다. 또한 마음의 발로는 언어로 구현되어 행동으로 이행되니 이를 말씨라고 한다.

성서에 “너희 말대로 이루리라” 하셨으니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말로 죽이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살인이요 죄를 짓는 일이다. 자라나는 자녀에게 입버릇처럼 욕을 해대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렇게 욕을 듣고 자란 아이가 잘 될 턱이 없다. 옛말에 수구여병(守口如瓶)이라 함은 입을 헛되게 열지말라는 뜻이다.

마음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다.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특히 수 없이 많은 유혹에 빠져 사회악에 물들기 쉽다. 청소년들을 잘 보살피고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천문화원의 문화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법령 제4718호)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1963년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사업
-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출판 사업
- ☞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국내외 교류사업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 ☞ 지역환경 보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회원구분 :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 ☞ 정 회 원 - 입회비 30,000원, 월회비 15,000원
(연 180,000원)
- ☞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원, 월회비 5,000원
(연 60,000원)
- ☞ 특별회원 -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 발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월회비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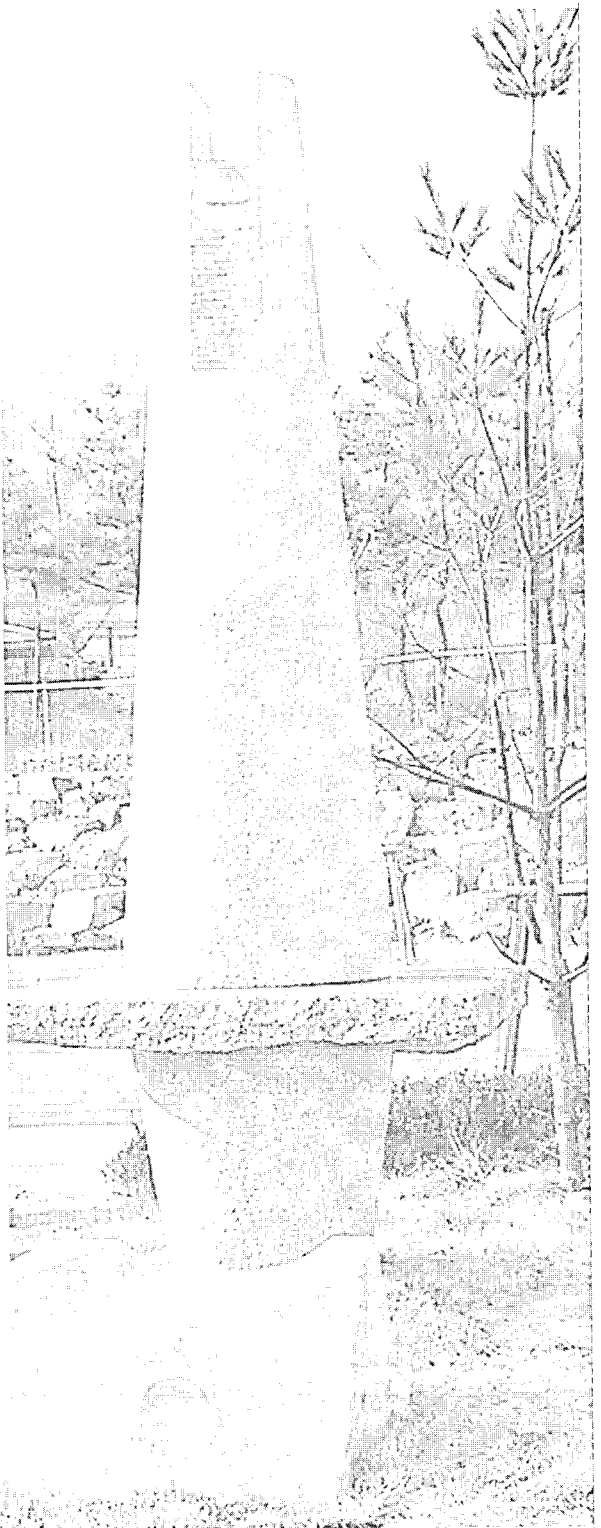
※ 회비납입통장 : 농협 233018-55-00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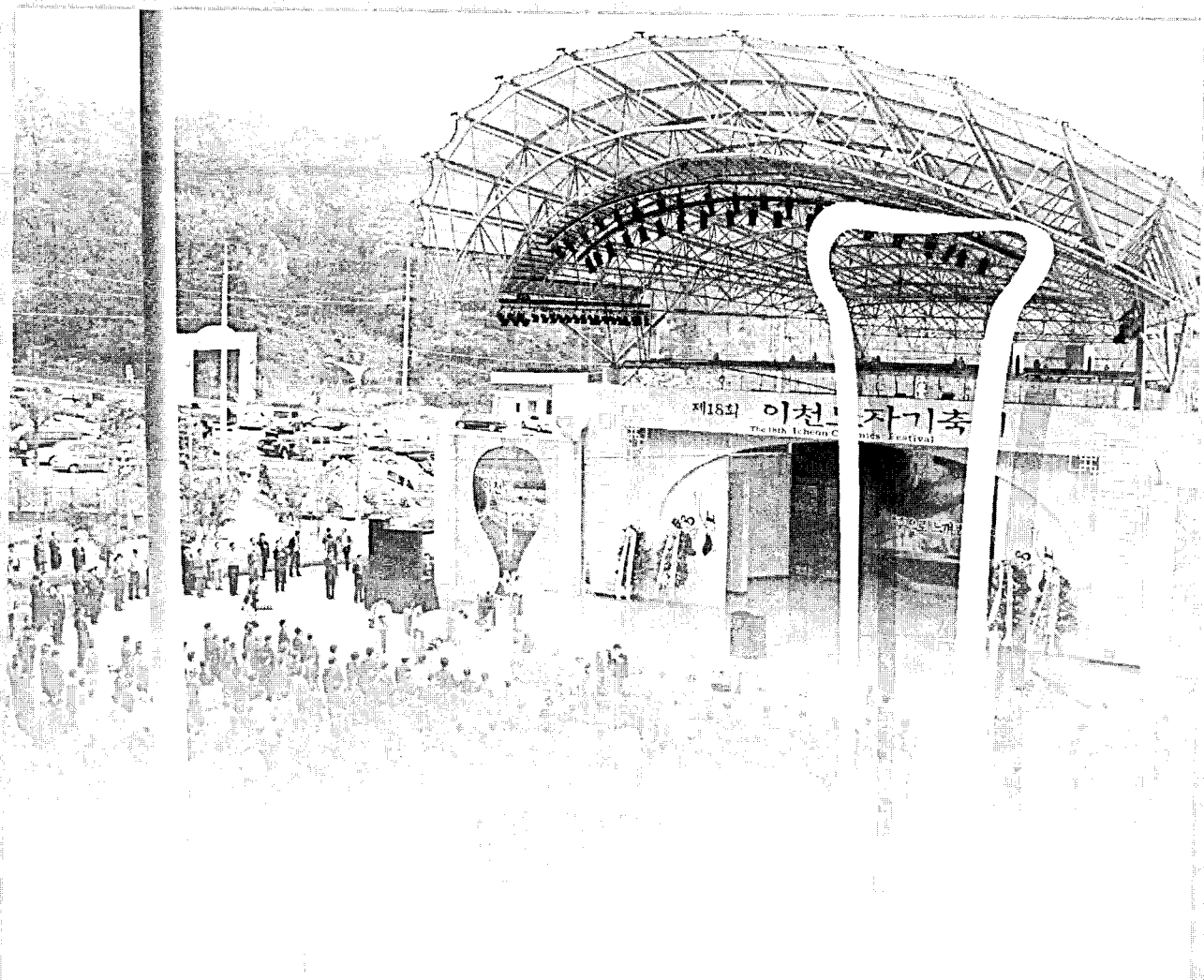
예금주 : 이천문화원

※ CMS 자동이체신청도 가능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총회를 통해 문화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규약의 준수, 총회 의사결의사항 준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갖습니다.

3. 회원가입 혜택 : 연2회 발행하는 설봉문화지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 우송, 본회에서 기획하는 각종 공연 전시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이천문화학교 수강 신청시 할인혜택, 회원증심 문화강좌 및 문화유산답사 참여, 예능 취미 교양활동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설봉문화게시판

세계도자 비엔날레	76
문화행사 지상중계	86
문화행사 이모저모	89
시정소식	104
전람회소식	109
신간안내	112
문화원소식	113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스위스 필립바드 '얼굴모양 용기' 대상 차지

당선작 26점, 비엔날레 기간 이천세계도자센터 전시



국제공모전 대상작품인 스위스의 필립바드의 '얼굴모양 용기'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주최한 제3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에 스위스인 필립 바드(Philippe BARDE)남, 49세)의 조형부문 출품작 '얼굴모양용기'가 선정됐다. 입선작 190점 중 대상으로 선정된 필립 바드의 작품은 직경 15cm정도의 용기 9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작품은 가운데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으로 결합되어 그릇의 쓰임을 가지면서도 조형적 요소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6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대상을 수상한 필립바드는 프랑스 마공 미술학교와 스위스제네바의 응용미술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제네바 응용미술학교 도예학과장으로 재직중이다. 필립 바드는 2001년 제2회 국제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았으며, 이번 제

3회 국제공모전에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생활부문에서 이도 마사노부(일본, 32)의 '하나의'가 조형부문은 라오 콰이 잉(중국, 37)의 '정물화'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은상에는 안체 라인하르트(독일, 31)의 '이동할 수 있는 티 세트', 이인숙, 엄지윤의 공동작품(대한민국, 24, 31)의 '당신의 스타일 04' (이상 생활부문), 데이빗 후어만 (미국, 59)의 '저항할 수 없는 힘 VS 움직일 수 없는 물체', 하세가와 야스코(일본, 29)의 '장벽' (이상 조형부문) 등 4점이 선정됐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세계 67개국 1천 430명의 응모, 2천475점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국제공모전의 수상작에는 아시아가 14점으로 가장 많고 유럽이 9점, 미주3점 순이며, 아시아 수상작 14점 중 한국과 일본이 각각 6점씩 수상했다.

수상작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시아와 유럽이 생활부문(아시아6, 유럽5)과 조형부문(아시아8, 유럽4)에서 고르게 수상하였으며, 이는 지난2회 공모전에서 동,서양이 각각 생활과 조형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과

는 대조를 보였다. 이번 심사 결과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 26점은 오는 4월 23일 시상식과 함께 6월 19일까지 개최되는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중 이천세계도자센터에 전시된다.

이천설봉 2005. 3. 3

“국내 최대 도자조형물 보러 오세요” 세라믹 캐슬 ‘즈엄집’ 불맞이 행사



4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세라믹 캐슬 ‘즈엄집’의 불맞이 행사가 작가 김구한(58세) 씨와 많은 축하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낮 (재) 세계도자기 엑스포 건물 옆 현장에서 벌어졌다. 즼엄집은 원래 ‘도자 집’을 뜻하는 ‘점집’에서 발전한 것으로 발음의 편의상 즼엄집으로 불린다. 즼엄집은 집 전체를 도자로 만든 것으로, 말하자면 2층짜리 집을 통째로 구워내는 셈이다.

높이 5m에 면적 4.5평, 벽체두께 30cm의 2층 구조로 완성될 즼엄집은 7m 높이의 종 모양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흙벽돌 5천장과 내화벽돌 8백장, 황토 15톤이 들어간 외벽이 이를테면 1회용 가마인 셈이다.

우리나라 흙 8종류와 도자모래가 혼합된 점토 약80톤이 사용된 즼엄집은 30cm의 두꺼운

벽체 내부의 기포와 습기제거, 상감장식의 안정을 위해 섭씨 200도로 약 한 달간의 초벌 소성을 진행한다. 그 후 10일 동안 상감의 색채를 살리고 유약의 소결과 내구성 유지를 위해 섭씨 1250도까지 높여 본소성을 갖는데 7m의 가마 내부를 수십 개의 버너로 고르게 온도를 유지하는게 관건이다.

소성된 벽체 단면은 숯과 유사한 구조의 활성 카본(Carbon)층이 두껍게 형성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가 하면 전자파와 외부열을 차단해 음이온을 집적시키고, 나쁜 냄새를 흡수하거나 습도 조절 등의 작용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건강에 좋은 집으로 탄생된다. 구조물 자체의 조형성은 물론 현관과 석창문, 온돌아궁이, 계단, 발코니 등이 설치된 완벽한 집으로 완성될 즼엄집은 관람객이 내외부에서 관람과 휴식을 하며, 새로운 건축 자재로서의 도자소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학과 보건학적 효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천저널 2005. 3. 10

58일간의 도자여행 '팡파르'

개막식서 '문화를 담는 도자' 퍼포먼스 펼쳐

재단법인 경기도 세계도자엑스포(이사장 손학규)는 '문화를 담는도자'를 주제로 이천세계도자센터,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등 3곳에서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2005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오후 3시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일본 가나가 와현 마쓰자와 시게후미 지사, 국제도자협회(IAC)토니 프랭크스회장, 주한외교사절 등 내빈과 관람객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05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은 58일간의 도자여행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화려하고 다양한 행사로 이뤄졌다.

이날 개막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지금은 문화가 국력을 좌우하고 경제의 핵심이 되는 시대이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은 지방화시대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천,광주,여주지역을 첨단도자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세계적 경쟁력과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도자산업이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도자기는 한민족의 창조적 역량과 예술적 감각이 집대성된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

며 "경기도에서는 세 차례 비엔날레를 통해 한국의 도예문화와 도자산업을 세계적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으며, 한국의 얼을 세계속에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과 광주, 여주3개 시군을 대표해 축하에 나선 유승우 시장은 "이천시는 세계도자문화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도예인들의 흙과 불의 대향연을 만끽하고,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좋은 추억을 가져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 중간중간에 다양한 무대로 관람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무예와 춤이 어우러진 '점프' 공연과 대한민국 명장 서광수씨와 경기도립무용단, 퓨전뮤지션 코라가 함께 펼친 '문화를 담는 도자'란 주제공연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됐다.

특히 '문화를 담는 도자' 공연은 경기도립무용단의 공연도중에 대형 도자모형의 풍선이 무대앞에 나타나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다, 모형이 벗겨지면서 2m 높이의 단 위에 대한민국 명장인 서광수씨가 물레위에서 직접 도자를 빚고, 그 옆에선 3명의 퓨전뮤지션 코라가 '천지를 여는 퓨전 음악'을 연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개막식후 비엔날레 첫 공식행사로 진행된 도예가 김구한씨의 '즈엄집' 제막행사는 도자의 아름답고 유용함, 향기로운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5m 높이에 2

층 구조로 제작된 대형도자조형물인 '즈엄집'이 공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개막 첫날인 지난 23일 주말을 맞아 13만 1천 500여명의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난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제6회 클레이올림픽, 토야교육관, 토야도예공방, 흙놀이공원 등 체험프로그램과 야외전시로 '도

자와 건축' 전과 세계도자의 흐름과 디자인 경향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세계현대도자전', 한·중 청자명품을 비교 전시하는 '세계청자전', '세라믹하우스II' 등을 관람객이 단순히 진열된 작품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작품 세계를 체험할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천설봉 2005. 4. 28

국내최초도자전문도서관 '도자만권당'

국내외 도자자료 완비, 도자연구지원센터에 개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지난 4월1일 국내외 다양한 도자전문자료를 갖춘 국내 최초의 도자전문도서관 '도자만권당'을 설봉공원에 도자연구지원센터에 개관했다.

지난 2월16일 설봉공원에 준공된 도자연구지원센터내에 갖추진 만권당은 국내 도자전문자료는 물론 일본, 영국,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도자전문자료와 국내도서관에 미소장된 다수의 한정본 및 절판본 등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내외 36종의 도

자전문 잡지를 비롯하여 해외도자시청각자료 119종, 국내 도자관련대학에서 출간된 2천여권의 도자관련 학위논문의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시청각자료실, 정보검색실을 갖춰 VTR, DVD,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D/B와 연계하여 편하고 손쉽게 도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자료를 국·영·일문으로 열람할 수 있는 번역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만권당에서 일정액의 카드를 구입하여 프린터와 복사기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춘 '도자만권당'은 국내 최초의 유일한 도자전문도서관이라는 의미외에도 도예인, 도예관련 학과교수, 학생 및 도자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어 도자문화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천설봉 2005. 4. 7

우리전통차 드셔 보세요

차를 취고 가슴높이로 들고 색을 감상한 후 가까이 가져와서 향을 맡고, 마실 때 맛을 음미한다.

싱그런 향과, 은은한 색과 오묘한 맛으로 표현되는 우리 전통차를 마시는 행사가 4월24일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유승우이천시장.이 기택 전 민주당총재 및 다도회 회원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이천 차도회(지부장 이봉숙)에

서도 초등학생 및 중학생 13명이 참여를 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동그렇게 앉아서 차를 마신다하여 “두리차”라고 하는 이날 행사는 120여명이 둘러 앉아 차를 준비하고 행사를 지켜보던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문화행사를 가짐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경험을 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천저널 2005. 4. 30

국제 유명 도자기관 잇따라 교류협력제의 일본 미노미술관, 대만 잉거도자박물관 등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자기관들이 (재)세계도자기엑스포와의 교류협력을 잇따라 제의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해외 도자기관들의 잇따른 협력제의를 세차례의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최로 재단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세계도자기엑스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최대 도자기관인 엔시카(NCECA)의 수잔 필리 워씨(Susan Filley Worthy)회장은 이전 제3회 국제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주디 슈왈츠(Judith Schwarz/미국 뉴욕대교수)교수가 직접 오는 2006년 3월 NCECA 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잔 필리 워씨회장은 이날 “이번 비엔날레를 관람한 후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는 제4회 국제 공모전을 준비하는 (재)세계도자기엑스포의 국제공모전 참여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여했던 일본 기후현의 미노미술관과 대만 잉거도자박물관 관계자가 재단과의 상호교류협력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호교류협력을 제의한 일본의 미노미술관은 3년마다 도자 국제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기후현 기토 요시노리 교육장과 이노모토 토루 미노미술관장이 이번 비엔날레를 방문, 소장품교환전시 등 상호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대만 잉거도자박물관은 이미 재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박물관으로 향후 ▶전시교환 및 협력▶심포지움 및 워크샵상호교환▶국제홍보협력▶비엔날레 개최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한국도자문화
및 도자산업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향상 위해

이같은 해외 도자기관들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설봉 2005. 5. 5

풍성한 공연에 화요일은 노인 무료입장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의 곳곳에선 크고
작은 공연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는 9~10시 사은행사, ~11시

게릴라퍼포먼스, 11~12시 극단 '봄'의 도자인
형 뮤지컬, 12~14시 토야게임짱, 14~19시 우
리가락우리춤 비트박스 칼춤 오카리나연주 요
들 하모니카연주 등 다양한 도자버라이어티쇼
가 이어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엔 유명도예가
들의 도자퍼포먼스와 도염천고 등의 볼거리가
더해져 발길을 머물게 한다. 특히 매주 화요일
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입장을 시키는
가하면 노인들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전통춤과
차력 등을 선보이는 武와 舞공연이 펼쳐진다.

이천저널 2005. 4. 30

“역시 이천은 뭔가 달라!” 매주토요일, 일요일 물레시연 ‘호응’

매주 축제장 동문쪽 상설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초등학교 물레시연과 안대를 두르고 물
레를차는 ‘물레시연’ 행사가 관람객들의 눈길
을 끌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2
시까지 펼쳐지고 있는 물레시연 행사는 도자
버라이어티쇼와 세라믹난타, 세라믹캐슬 등의
화려한 공연행사와 함께 오직 이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져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특히 5살 때부터 도자기를 만들어 온 한주성
(10. 신둔초)학생이 빚어내는 도자기는 관람객

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천에
서 유일하게 안대를 두르고 물레를 차는 지창
오씨(두성도요) 또한 물레시연을 통해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주성 학생은 도예인인 한도현씨(한석봉도
요)의 아들로서 최고의 도예체험학습시설을
완비한 신둔초교에 재학 중이다.

또 도예체험학습장으로 더욱 유명한 두성도
요의 지창오씨는 동생 지창근씨(지천요)와 함
께 몇 년째 도예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전통방식
에서 벗어나지 않는 창작품을 개발하는 도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14일 행사를 관람한 한관람객은 “단순히 만들어진 도자기를 보고, 사는 것에 익숙해있었지만 직접 흙을 손으로 만지고, 만드는 것을 지켜보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며 “역시 도자기

의 본고장 이천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5. 5. 19

비엔날레 이천행사장 100만명 돌파 축하

>>선착순 1천명에 장미꽃 전달

올해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개최되어 국제적 규모의 수준 높은 축제로 그 진면목을 보이고 있는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개장 23일을 맞은 5월 15일 방문 관람객이 백만명을 넘어서 백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관람객 백만 돌파 기념행사는 지난 2003년 세계도자비엔날레행사 때보다 10여일 앞당겨진 것으로, 특징으로는 눈에 띄게 외국인 관람객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에 대한 국내 및 국외 관람객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정문에서는 당일 입장 관람객 선착순 1천명에게 관람객 백만 돌파 기념 사랑의 장미꽃과 꽃화분 나누어 주기 행사를 벌였고, 특별공연으로 풍물난장패 한마당이 벌어져 관람객 백만 돌파를 기념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시, 시연,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람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천 세계도자비엔날레는 백만 돌파 기념행사가 있는 늦은 오후 7시에는 영월암 산사음악회가 개최되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공연을 선사했다.

>>미술전문가 높은 관심 표명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이천, 광주, 여주 등 3개 행사장에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미술작가, 대학교수, 평론가, 미술관, 화랑 디렉터 및 큐레이터, 미술전문기자 등 미술계 인사 30여명이 12일 오전 비엔날레 3개 행사장을 방문, 각 전시관의 전시행사를 관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천세계도자센터를 먼저 방문, 국제공모전과 세계현대도자전 등 현대도자미술을 관람한 뒤, 오후부터 여주세계생활도자관과 광주조선관요 박물관 등 세계도자비엔날레의 모든 전시행사를 높은 관심속에 관람했다. 이같이 미술계인사들이 대거 비엔날레 전시행사 일체를 관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비엔날레의 관련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건축 인테리어계와 디자인계 인사들의 방문도 예정돼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한 관련 전문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장 별 시군의 날 운영해

비엔날레 각 행사장별로 시·군의 날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이천 세계도자센터 옆 비엔날레 공연장에서 파주시

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창 국회의원과 유화선 파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연단 등 760여명이 참가해 이천세계도자센터의 전시행사를 관람하고 80여분동안 파주시의 날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의 공연에는 청암초교 퓨전밴드의 난타공연과 금산리 농요 민속놀이, 파주시합창단 공연, 그룹사운드 DMZ의 재즈와 팝송 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천설봉 2005. 5. 19

“한·중 청자의 우수성을 가린다” 비엔날레, 청자학술세미나로 문화 국제적 안목조명 시도

청자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청자문화를 확인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핵심전시중 하나인 ‘세계청자전’과 연계하여 한국과 중국의 청자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청자학술세미나’가 지난 3일 이천설봉공원 도자연구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한·중·일 청자 전문가를 비롯, 학계, 도예인, 학생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청자의 色과 形’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청자전 전시에 전문성을 더하고 학술적 연구결과를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중국과 한국의 청자를 비교하는 전시와 세미나에 걸맞게 청자제작과 연구의 역사가 깊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청자에 대한 원로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확인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조연설, 특별강연, 논문발표 및 토론 등 3부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기조연설에는 이번 ‘세계청자전’의 전시큐레이터인 정양모 경기대 석좌교수가 ‘한국청자와 중국청자의 특징’이란 내용

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이데미츠미술관의 하세베 가쿠지 교문이 ‘청자와 중국도자사’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어 중국 항주시문물고고소의 두정현부소장이 ‘항주 노호동을 통해 본 수내사관요와 가요요지’란 내용으로 노호동요지발굴에 대한 특별보고를 가졌으며 청자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한·중·일 학계와 박물관 등 전문가들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논문발표는 최건 광주조선폭요박물관장의 ‘고려청자의 색과 형’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와 ▶이마이 아츠시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특별전실장의 ‘중국청자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청자의 특징’ ▶심악명 중국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주임 연구원의 ‘월요기물과 장소공예의 변천’ ▶곽목삼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 부연구원이 ‘중국 하남 보퐁 청량사 여요와 여주 장공항요지 출토품의 비교연구’ ▶김재열 삼성미술관 부관장이 ‘중국 유적출토 고려청자’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청자세미나는 한·중 양국의 청자의 기형은 물론 유약, 문양 등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자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 청자문화를 조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평
를 살펴보고 국제적인 안목으로 중국과 한국의 가를 받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6. 9

58일간 대장정, 격려와 박수 속 폐막

58일간 전세계 도예인들과 이천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던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1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화를 담는 도자’를 주제로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열린 올해 비엔날레와 도자축제는 이천의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가 선보여져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도자제작시연과 물레시연, 토아 교육관등은 오직 이천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국내 외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전반적으로 규모와 수준,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대만, 프랑스, 유럽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도자 관련 기관들이 엑스포 재단과 교류협력을 잇따라 제의해 온 것도 높아진 비엔날레와 도자기축제의 위상을 실감케 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한편 올해 비엔날레와 도자기축제가 열렸던 이천세계도자센터는 다음달 4일부터 상설전시로 전환해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을 계획이다.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 결산

축제시기 봄이나 가을이나 논란 일듯 봄 축제 장점 많아 ‘우세’ ... 도예인들 오히려 매출감소 ‘반대’

제19회 도자기축제가 19일 271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5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치러진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봄에 열려 그 시기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됐으며 관람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대폭늘려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다.

특히 동문쪽에 무대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판매장쪽으로 이끌어냈고 전통도자관을 처음으로 설치해 생활관과 작품관을 분리

했다. 도자체험장의 규모를 대폭 늘림과 동시에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안대 가리고 물레차기, 도예신동의 성형시범 등 조합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볼거리들도 인기를 끌었다.

봄 축제라는 특성 탓에 271만명이라는 관람객 수를 기록 할 수 있었고 대회 기간 중에 총 409개 학교에서 20만6천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축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번 축제를 평가했다.

>> 관람객 많지만 매출은 적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축제시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가을에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추워졌던 것과는 달리 봄으로 옮기면서 날씨가 따뜻해 관람객들이 늘었고 행사진행에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봄축제의 장점이다. 장마나 태풍같은 천재지변도 없고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시기와의 맞물려 예비 소비자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도예인들은 “봄에는 관람객들의 주머니가 가벼워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매출감소를 호소했다. 한 도예인은 가을축제의 회소성을 들며 축제시기를 원상복귀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윤창호 조합이사장은 “봄축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실제로 도예인들의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관람객수의 증가는 눈에 봐도 알수 있는 것 아니냐”며 봄 축제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 동선 문제 여전히 해결 안돼

올해 축제는 도예인들의 판매장이 들어선 동문쪽에 무대를 설치해 많은 공연들이 진행됐다. 도예인들의 요구가 있어 설치됐지만 이렇게 되면서 대공연장쪽에 발길이 뜸해지는 현상을 낳고 말았다. 또한 도자기엑스포쪽 비엔날레 행사장은 이천행사장쪽에 비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동선계획이 새롭게 짜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대행사를 주관하는 이천예총의 김선우 사무국장은 “동문쪽의 무대를 주로 활용하고 주

말이나 휴일 등 관람객들이 많을 때는 대공연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설명했다.

동문무대는 관람객들을 위한 차양막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 음식점 그릇·쌀밥 문제 지적

행사장 음식점들이 당초에 도자기그릇과 이천쌀을 쓰기로 서약하고 입점했으나 막상 축제기간중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플라스틱 도자기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밥맛에 대한 불평도 나왔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도자기 그릇을 쓰다가 손님이 많아 급하게 그릇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일부 식당에서는 저녁에 남은 밥을 다음날 내놓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축제장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식당에 갔다가 당한 일”이라며 이천쌀을 쓰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 비엔날레와의 연계 중단되나?

이번 축제를 계기로 비엔날레와 지역 축제를 이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초기에 재단해체 등을 요구하며 한때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던 여주도예인들이 여전히 재단해체, 기금분배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가 엑스포 재단측에서도 이천축제 탓에 비엔날레 행사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천도자기조합에서는 “비엔날레와 이천축제가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라며 이같은 일부 의견을 일축했다. 이천신문 2005. 6. 23

‘봄의 전령사 산수유꽃과 교감’

학남산수유꽃축제



‘봄의 전령사 산수유 꽃과의 교감’을 주제로 1만5천여주의 산수유 꽃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산수유꽃축제가 4월 3일 막을 내렸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백사면 도립리, 정사리, 송말리 일원에서 이천백사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임관빈)가 주관하고 이천시청과 GBC-KCN방송이 후원하는 제6회 이천백사산수유 꽃축제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연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산수유꽃의 화사하고 노오란 추억을 남기고 3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첫날인 4월 1일 길놀이와 이장단협의회회의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개막을 알리고, 시춘목 앞에서의 풍년기원제, 축제화합의 한마당으로 노래자랑 등의 행사로 시작된 이번 산수유꽃축제는 둘째날인 2일에는 연희극단 배품의 퓨전콘서트, 이천한울림합창단의 공연, 삼도사물놀이와 우리춤이라는 주무대 행

사와 육괴정과 산수유 숲에서 시작해 백송, 반룡송, 연당 느티나무 군락지, 영원사를 잇는 코스를 순례하는 나무순례기행 행사와 이천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산수유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축제장 곳곳에서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날인 3일에는 국악한마당, 늘 품 예술단의 우리춤 한마당, GBC-KCN 방송주관 청소년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하는 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는 육현추모제, 산책로 걷기대회와 살고싶은고을 이천21주관 나무순례기행이 이어졌다.

한편, 행사기간중에는 이천시사진작가협회의 사진전시 및 촬영대회와, 푸른이천21의 추억의엽서보내기, 타임캡슐, 장작패기, 톱질하기, 산수유까지 체험, 투호·전통그네·널뛰기 등의 전통놀이, 산수유관련제품전시회, 산수유마스코트와 사진찍기, 들꽃압화전시 등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져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이다.

특히 자연관찰체험으로 진행된 개구리알, 도롱뇽알, 물고기 관찰과 장작패기, 톱질하기 등의 행사는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투호와 전통그네 등의 전통놀이는 아이들 뿐만아니라 함께 온 어른들에게도 향수와 즐거움을 제공해 단순히 산수유 꽃관람과 먹거리 위주의 행사에서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추억에 남는 축제였다는 평이다.

수령이 100년이 넘는 산수유가 자생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백사면 송말리와 도립리 등 원적산 기슭의 농가에서 6회째 진행되고 있는 백산수유꽃축제는 지난해부터 민간주도의 축제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천설봉 2005. 4. 7

산사에 올린 아름다운 선율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 기념 산사음악회가 지난 5월 15일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설봉산자락 영월암(주지 법수스님)에서 성대히 열렸다.

1부 행사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는 사카족의 왕자로 태어나 온갖 영화를 다누리며 자라난 싯다르타 태자가 만중생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출가해 중생교화에 힘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모든생명 모든 사람이 열반에 들게하여 세세생생 항상 보살도를 행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모아지는 가운데 관내 기관장 및 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해 부처님의 오심을 봉축하는 관육식이 함께 열렸다.

이천도자기 축제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이천예총이 주관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린 산사음악회는 웅산, 적우, 이은미, 정율스님 등이 출연해 저물어가는 봄날의 온기를 돋궜다.

영월암 법수스님은 “산사음악회가 성황리에 영월암에서 개최된데 대해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특별출연으로 영월암 합창단이 출연,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공연중인 남미에콰도르에

서 84년 오타발로(Otavallo)의 젊은이들로 결성된 시사이(SISAY)팀이 안데스민속음악을 연주해 관광객 및 음악회에 참석한 관객들의 흥을 돋궜다. 이들은 남아메리카 잉카문명의 후손들로서 자신들의 음악과 문화를 소개하고자 세계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허스키보이스로 멋진 재즈댄스 가수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웅산과 팝가수로 많이 알려진 적우(레드레인), ‘맨발의 디바! 무대 위에서 죽어도 좋다’는 이은미씨의 열정적인 무대는 음악의 흡입력을 실감케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천여명이 가득메운 축제기념 영월암산사음악회는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등을 밝혀놓은 연꽃등과 5월 초록잎새가 노오란 조명불빛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천년을 지켜온 산사입구 은행나무와 지장보살 마애여래상이 확연히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음악소리까지 거문고의 현을 타듯 어우러져 산사를 찾은 많은 이들에게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이천설봉 2005. 5. 19

“클래식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어요”

서울 신포니에타, 이천시민악 협회에서는 매일 클래식

“비발디의 사계 ‘봄’에서 봄이 오는 소리 가운데 개 짖는 소리는 비올라로 표현합니다. 2악장 전체에서 이 소리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세어보세요.”

악단의 비올라 연주에 맞춰 관객들은 손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셈을 하며 목격한 비올라 소리에 빠져들었다. 정답은 서른 여덟 번, 클래식도 알고 들으면 더욱 재미있다. 새소리, 물소리, 천둥번개소리를 각각 어떤 악기들이 표현하고 있는 지 설명을 듣고 함께 연주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귀에 닿는 맛이 다르다.

서울 신포니에타 4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이천을 찾은 김영준 음악감독은 곡이 연주되기 전 매번 곡의 특성 등을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자칫 딱딱해지고 지루해질수 있는 클래식 연주회장장을 밝고 유쾌하게 바꿔갔다.

미녀와 야수, 사운드오브뮤직, 아이네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등 클래식과 영화음악 등으로 알려진 곡들이 연주되자 관객들의 표정도 달라졌다. 수준 높은 공연에 공연이 끝날때마다 터져 나오는 관객들의 박수소리도 커졌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내내 관람객들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참여하며 재미에 빠져들었다.

성남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온 한 주부는 “지나해 성남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 이천까지 왔다. 공연이 짧은게 조금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SGI의 초청으로 6일 이천시민회관을 찾은 서울신포니에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씨에 의해 87년 창단된 정상급 실내악단으로 매년 1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각종 초청연주회와 자선음악회, 청소년음악회, 환경콘서트 등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천신문 2005 3. 10

어린이날,

2005 ETN 토야 콘서트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19회 도자기 축제를 맞아 5월 가정의 달 첫번째 축제일인 5일 어린이날, 인기가수들이 설봉공원 대공연장을 찾아 한자리에 모이는 ETN 토야 콘서트가 1500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공연은 어린이날을 맞아 문화와 예술을 하나로 하는 페스티벌로 이천, 전제향의 사회로 시작해 성시경, 왁스, 유니, 별, 나운권, 서문탁 등의 인기 가수들과 김우주, 아우라, 비바소울, 노브레인 등의 신인가수들이 출현해 공연장을 가득 메운 어린이 및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천저널 2005. 5. 9



한일 도예인들 민간차원 '한·일 친선협회' 창립

이천시와 일본의 세토시 양국의 도예인들과 주요인사들이 '한·일 친선협회'를 결성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친선협회는 지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때 일본의 아이치현 도자기조합이 참가해 세토를 비롯한 3개 도시의 한일 친선협회가 이천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해 본격적인 왕래가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유승우 이천시장이 일본의 도자 도시인 세토시를 방문하는 기간 중에 한일 친선협회 주최의 환영만찬에 참석하면서 양국의 유명한 도자도시간 교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8월에 세토시 친선협회 핫토리 마사루 회장이 이천을 방문해 민간교류를 희망했고 친선협회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제의했다.

1월 24일 신문의 한 쌀밥집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한일친선협회 한국측 모임은 공영래(현선요 대표)를 회장으로 하고 동부철강 최병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에, 기업인 정규표, 도예인 우종일, 전 여성연합회 회장 신해진씨를 각각 부회장에 선출했다. 고문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유승우 이천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명호 시의원, 청강대, 도예고, 신둔초교 등 도예관련 학교장, 도예인과 사회단체장 등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측에서는 핫토리 마사루 회장을 비롯해 재일교포 19명 등 모두 38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달 30일에는 일본측 협회 임원들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해 협회 결성에 따른 교류협력을 논의하고 아이치현 국제박람회내 한국관에 설치

될 이천도자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세토시 등에서 열리는 일본국제박람회는 '자연의 예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천신문 2005. 1. 27

김종갑씨, 국립합창단 정단원에 합격 영예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즐겼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음악인 되고 싶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해 이번에 국립합창단 정단원에 합격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천지역 최초로 국립합창단 정단원에 합격함으로써 이천지역 음악인들의 우수성을 입증한 테너 김종갑(36)씨의 말이다. 지난해 12월 국립합창단 정단원에 합격함으로써 본격적인 단원생활을 시작한 김종갑씨는 “합창단원 2명을 뽑는 시험에 60여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는데 처음부터 정단원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게됐다”며 “이번에 2명의 단원을 선발했으나 실제로는 1명만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성가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악과 인연을 맺은 김종갑씨는 지난 98년 이천콘서트콰이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전개했다. 콘서트콰이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음악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운 김종갑씨는 30세가 넘는 나이에 불구하고 여

주대학 음악과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한편 지난해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이천남성합창단과 코스모합창단, 서울의 코리아 남성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음악이 좋아서 합창단을 조직하고 아마추어로 시작한 연주가 오랜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연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연주가 끝난 후 느끼는 환희에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천설봉 2005. 1. 6

서광수씨, 무형문화재 선정 기념비 제막

이천문화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왕호상)은 지난 1월 23일 한도 서광수(58세, 한도요 대표) 선생의 지난해 말 경기도 무형문화재 41호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제막식을 신둔면 한도요에서 진행했다.

유승우 시장, 이규택 국회의원, 윤창호 이천도 자기조합 이사장, 조성열 신문농협조합장 등 관내 기관 및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제막식에서 서광수 선생은 “한국적인 유백색의 무지 백자 항아리 제작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1년부터 40여년간 한국도자 전통계승에 노력해온 서광수 선생은 지난 2003년에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1. 27

가족무지컬 “다녀왔습니다” 성료

민속의 날 구정명절을 앞두고 우리들 마음에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연극 공연이 열렸다. ‘좋은 친구들’이 주관하고, 이천시청, 이천예총, 기독교 중앙연합회, 청소년 무용단 등이 협창한 가족드라마 “다녀왔습니다”가 지난 1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1~2차에 걸쳐 1500여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루며 공연됐다.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화, 설자리를 잃어가는 아버지들, 무분별한 성 개방, 자제력을 잃어가는 인터넷 시대, 존경과 예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만들어 가고, 가족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랑이 남아있기에 아직 희망은 존재한다고 본다.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집은 왜 이렇게 살까? 더 좋은 것은 없을까? 더 부자로 살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게 되는 어리석은 자, 세월이 한 참 흐르고 난후에야 자신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 서야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다녀왔습니다”에서처럼 한번쯤 과거로 돌아가보고 싶었던, 아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천저널 2005. 2. 3



남천로타리클럽 작은음악회 개최

지난 2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남천로타리클럽(회장 박연자)주최, 양정분산부인과 협찬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국악음악회가 열려 인근지역 산모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모처럼 문화를 만끽 할 수 있는 좋은계기가 되었다.

이천소방소에서 벌이고 있는 무선페이징 독거노인 관리대상자 20여명을 초청해 개최한 이번 음악회는 이천여성의용소방대 한영순 대장 및 임원진들이 관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차량으로 이동해 모처럼 훈훈한 자리를 만들어주므로써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도 했다.

국악음악회에는 하영완, 장영수, 장경희, 유영희, 김소연, 전미선, 이승호씨등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준높은 출연진들이 참석해 축연무, 천년만세, 영화음악, 민요메들리, 소릿길, 팝송, 서도민요, 신밧놀이 등을 국악기로 다양하게 편곡한 곡들을 선보여 흥미있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2. 24

청강대 이색졸업식 졸업생 작품전시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졸업을 축하하기 위한

이색졸업식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천에 위치한 청강문화산업대학(학장 이수형)은 지난 2월 18일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제8회 전문학사 수여식을 개최하는 한편 졸업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색적인 졸업식을 개최했다.

청강대학은 최근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졸업생들에게 힘찬 행진곡과 퍼레이드 공연 등의 축하공연을 통해 축하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문화산업대학의 특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색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40인조로 구성된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졸업식의 개막을 알리면서 시작돼 학사보고와 학위수여식과 졸업생들에 대한 시상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인 졸업식이 끝나면서 40인조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공연과 팝페라 가수의 축하공연 등 본격적인 졸업축하무대가 열려 졸업생들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졸업식이 개최된 에듀플렉스 곳곳에서는 패션디자인과의 졸업 패션쇼 사진과 작품, 푸드스타일리스트과의 테이블세팅, 리빙세라믹 디자인과의 도자기 작품, 애니메이션과의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커리커처 작품 등이 선보이는 등 문화산업대학이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이색 졸업식을 열었다.

이천설봉 2005. 2. 24

**“설봉산엔 우리꽃이
얼마나 지랄까?”**
이천환경련 총 225종의 아생화 자생 발표

‘가시여뀌’, ‘가지깽이눈’, ‘가치수영’ 서부터 ‘깽의다리’에 이르기까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름만 38종에 이르는 등 설봉산에 자생하는 225종의 야생화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발표 됐다.

이천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용)은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설봉산을 찾아 총 30여회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련의 이번 조사는 이천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설봉산 자생 야생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야생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 동안의 지속적인 조사와 분류 및 분석엔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박병권 교수와 안양·군포·의왕 환경련 야생화 소모임 “꽃마리”, 이천 지역의 야생화전문가인 농업기술센터 조남걸 씨가 함께 참여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설봉산 등산로를 따라 2개의 노선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 실제로는 225종보다 훨씬 많은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올해에도 설봉산의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울면의 마이산 조사도 계획하는 등 연차적으로 이천지역의 산들을 조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장차 이천지역의 야생화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기대되고 있다.

‘이천지역의 야생화’는 설봉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설봉공원내 관광안내소에서 배포되며 이천환경련 홈페이지에서도 아름다운 사진으로 볼 수 있다.

(<http://icheon.kfem.or.kr>)

이천저널 2005. 2. 24

“흥겨운 노래에 어깨 춤도 덩실”

연예협회, 한나원에서 팔순잔치 열어

연예협회 이천시지부(지부장 서경석)는 18일 노인 요양시설인 한나원(대월면 소재)에서 팔순 잔치를 열고 70여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장기자랑 경연을 펼쳤다.

연예협회 사무국장인 김진갑씨가 반주를 맡았고 가수분과의 김성수씨(부지부장)와 손희주씨가 각각 흥겨운 트로트와 포크송을 선물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팔순을 맞은 어르신은 할머니 일곱분과 할아버지 한 분으로 팔순잔치는 지나해에 이어 두번째 행사라고 한다.

연예협회 서경석 지부장은 “노래와 음악이라는 우리들의 기술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많이 느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할아버지들도 나중에는 한 곡조씩 뽐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웠고 힘든 것도 잊었다”고 밝혔다.

한나원의 박양조 원장은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생신잔치를 마련해 드린 적도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흥겨워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잔치를 준비해주신 연예협회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예협회 측에서는 앞으로 한나원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을 찾아 공연과 음악을 선물하는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이천신문 2005. 3. 24

월전 장우성 화백 노환으로 타계

이천에 건립될 월전미술과 뭇분 아쉬움 남아

한국 화단의 거목이자 근현대 미술사의 대가인 월전 장우성(月田 張遇聖) 화백이 28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1912년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18세 때 이당 김은호 문하에 들은 후 서울대 미대(1946~1961)와 홍익대 미대 교수(1971~1974년)를 지내는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1950년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20여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대한민국 예술원 원로회원을 지냈으며 서울시문화상 예술원상 5·16민족상을 수상했다.

유족은 장남인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 학구(65)씨 등 4남 3녀. 지난해 9월 월전에게 세례를 준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서울 혜화동성당에서 영결미사가 열린 후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땅미리 산 1-1 선영에 안장됐다.

작년 여름 노환으로 쓰러지기 전만해도 문화계 원로들과 골프회동을 즐기며 “매화꽃 필때 미술관 정자에서 술 한 잔 하자”던 정정한 현역이었던 월전 선생을 2003년 가을 70년 화업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펴냈고, 중국화단의 대가 리커런(李可染)과 함께한 덕수궁 미술관 ‘한·중대가 2인전’을 갖기도 했다.

인물을 비롯해 학, 백로 및 산수와 정물을 즐겨 그렸으며 말년에는 먹과 선만으로 탈속한 선의 경지를 담아낸 월전 선생의 작품으로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대표작으로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 영정과

유관순 기념관의 유관순 열사 영정 외에 국회의사당의 ‘백두산 천지도’, 바티칸교황청 박물관의 성화 3부작인 ‘한국의 성모와 순교복자’ 등이 있다.

1989년 월전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1991년 삼청공원 입구에 월전미술관을 세웠고, 월전미술상을 제정해 한국화가들의 창작을 독려해왔다.

이천저널 2005. 3. 3

청소년 무용단 ‘새봄맞이’ 정기공연

2002년에 창단해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각종 지역축제와 세계비엔날레 등에서 공연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체코 등을 돌며 ‘웰컴투코리아’ 공연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각광을 받기도 했던 청소년 무용단(단장 신해진)이 정기공연을 가졌다.

3월 2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기공연은 주미화 총예술감독과 이은영 김선미 지도강사의 안무로 화관무, 달맞이, 제로 등 5개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정회원, 준회원을 포함한 30여명의 단원들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을 익혔고 공연을 며칠 앞둔 최근에는 새벽까지 연습에 몰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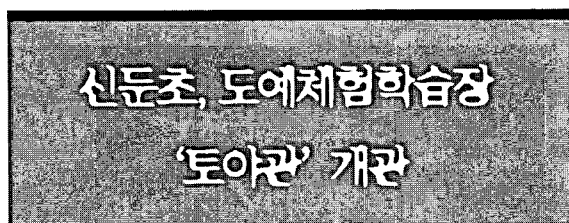
그러나 단원들이 동작하나하나를 익히며 무대에서 쏟아낸 열정에 비하면 이날 객석은 절반정도만을 채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신해진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용이라는 특기를 계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보아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며

다음 공연에서는 객석이 꽉찬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소년 무용단은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올 한해 각종 지역행사와 축제의 현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천신문 2005. 3. 31



흙 압축기, 전통 물레, 전통가마 등 다양한 도예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둔초등학교(교장 김형선)에 전통도예체험학습장 '도야관'이 7일 개관했다.

2001년 도 교육청 전통도예체험학습장 운영학교로 지정돼 9억 6천만원을 지원 받은 신둔초등학교는 1회 1백여명을 수용하던 도예실습실과 전시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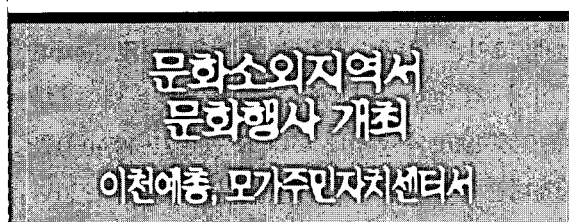
전통도예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현대도예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신둔초등학교 내 240여평(건물면적)의 규모로 설립된 도야관은 2003년 건립 확정 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 1월 건물 준공을 마쳤다.

약 4백여명 수용이 가능한 도야관 1층은 전통도예체험학습장, 지역사회도예연구소, 정보자료실로 꾸며졌으며, 2층은 지역사회 도예인들의 도자기를 전시한 전시관과 학습오리엔테이션장으로 구성 됐다. 이로써 신둔초등학교 학생들은 흙 밟기를 비롯해 도자기 물레 성형, 조각, 초벌구이,

문양 그리기, 유약 입히기, 재벌구이 등 다양한 도예 체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신둔초등학교는 토야관을 비롯해 사이버 도예 학습자료실인 도예정보실과 토담이 학습장, 화담이 학습장, 소담 학습장, 도예공원, 자료관 등 다양한 도예체험학습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천신문 2005. 4. 7



문화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펼침으로써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가 모가면 자치센터에서 열렸다.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모가면자치센터 개관기념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지난달 30일 모가 자치센터 앞 광장에서 100여명의 주민들과 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문화를 함께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린 이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열림의 장과 화합의 장으로 나누어서 열렸다. 열림의 장에서는 연희극단 배꼽이 모듬북 공연을 통해 모가자치센터 개관을 축하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화합의 장에서는 모가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주민노래자랑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준비한 이천예
충은 모가면 주민자치센터 개관기념 찾아가는 문
화행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장호원 육군교도소,
울면 부래미마을, 10월 행사는 대월면 대월중학교
에서 전시와 공연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설봉 2005. 4. 7

적십자봉사회가족 KIST 김재수 박사 초청강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지구협의회(회장 박
의협) 회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KIST 김재수
박사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적십자봉사회 이천지
구협의회 가족들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26일 시온성교회에서 KIST 김재수 박사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21세기와 우주과학'이라는 주
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김재수 박사는 미국의
달착륙 과정에서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한편 우주
의 신비로움에 대해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 앞서 적십자 봉사회 이천지
구협의회는 지난 적십자 경기도지사 총회에서 공
로패를 수상한 각 봉사회전임회장단과 우수회원
등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 한편 적십자 경기도지사
봉사단체중 우수봉사단체로 선정된 구만리봉사
회에 대한 시상식을 갖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3. 31

2005년도 제1회 이천프리마켓 개장 화창한 봄빛 아래 다양한 행사 펼쳐져

2004년 5월에 시작해 10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
공예 창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양
한 공연도 어우러지며 참가한 시민작가들로부터
현장에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등 즐거움을 함께
나눴던 이천프리마켓이 4월 10일 일요일, 문화의
거리 시계탑일원에서 2005년도 첫 행사를 시작했
다.

이천 프리마켓은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직
접 창작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예술 마당', 집
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쓸만한 물품을 이웃과의 소
통을 통해 나누거나 바꿔서 다시 쓰자는 '나눔마
당(벼룩시장)', 자신의 재능과 끼를 선보일 수 있
는 공연과 전시 등이 펼쳐지는 '놀이마당'으로 크
게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이날 개장행사
에서는 특히 프리마켓의 기본 취지인 창작정신을
적용시켜 진행한 '시민이 직접 만들어 먹는 떡'
행사가 열려 떡매치기를 벌였고, 풍선아트, 엽서
쓰기, 방명록 쓰기, 소원지 쓰기 등 시민들이 자유
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했다.

예술마당에서는 겨울동안의 창작활동으로 완
성된 토피어리, 리본, 지점토, 비즈, 모형나무집,
퀼트, 압화, 구슬공예, 인식표공예 등 다양하고 정
성이 가득한 수공예창작품들로 볼거리를 제공했
다.

놀이마당에서는, G&K실용음악학원의 밴드, 양
정여고 굿뉴스 밴드, 당동 청소년문화의집의 마술

동아리 CMS, 이천고 시티락밴드의 멋진 공연이 함께 펼쳐져 화창한 봄빛 아래 둘러선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천저널 2005. 4. 14

여성합창단 '사랑의 하모니' 선물 성안드레이병원 합창공연

이천시 여성합창단(단장 김경신)은 4월 15일 성안드레이 신경정신병원에서 환우와 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창공연을 갖고 환우들을 위로했다.

지난 90년 창단돼 총 13회의 정기공연을 가져온 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이천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으며 전국합창대회에서도 수상할 정도의 실력을 검증 받아왔다. 올해 초에는 중국 항주에서 열린 한·중 친교합창연주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드러운 합창곡에서부터 귀에 익은 민요에 이르기까지 총 11곡을 공연했으며, 어머니 플룻앙상블(단장 강연희)의 공연도 함께 진행돼 환우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었다.

이 병원 양운기 원장은 "병원 환우들을 위한 공연에 참여해주신 합창단원과 플룻앙상블 단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5. 4. 21

이수홍의사 일대기 무대오른다

연희극단 배꼽과 이천국악협회 마당극 제작

이천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인 이수홍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마당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이천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인 서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소리극 서희선생을 제작해 무대에 올렸던 연희극단 배꼽과 이천국악협회가 이번에는 이수홍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연희극단 배꼽(대표 성수석)과 국악협회 이천시지부(지부장 심덕구)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천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소리극 서희선생을 제작해 공연했으며 이번에는 이천인물 2탄으로 이수홍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번에 이수홍 의사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극단 배꼽과 이천 국악협회는 최근 일본의 교과서 문제 야기와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반일 감정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치다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천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수홍 의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이천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품을 만들게 됐다는 제작의도를 피력했다. 이천인물 프로젝트 제2탄으로 만들어지는 이번 마당극 '의사 이수홍'에서는 동소문로사건과 백사면 파출소피습사건 등 이수홍 의사의 4대사건을 작품에 담아 광복 60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첫 공연을 펼치게 된다.

이와관련 연희극단 배꼽의 성수석 대표는 “독도와 일본 교과서문제로 반일감정이 고취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올해로 광복 6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착안, 이천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다 젊은 나이에 산화하신 이수홍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마당극 형태의 작품을 구사하게 됐다”며 “지난해 소리극 형태로 서희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작품을 제작해 발표했는데 이번에 만드는 작품은 이천인물 프로젝트 제2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당극 형태의 ‘의사 이수홍’을 준비하고 있는 연희극단 배꼽과 이천국악협회는 이천출신의 위대한 인물인 서희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소리극 ‘서희선생’을 제작해 이천시민회관과 장호원 청미도서관, 안드레아 병원 등을 순회하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4. 21

설봉공원에서
이천문예백일장 열려
4백여명 참여해 김은지, 서윤지 등대상 차지

아미초등학교 봉해인 학생과 대서초등학교 이혜진 학생이 이천문예백일장대회에서 초등부 각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다. 문학을 통해 이천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문학에 대한 꿈을 심어 주기 위해 지난 4월 20일 설봉공원에서 열린 이천문협백일장에서 효양중학교 김은지 학생과 설봉중학교 서윤지 학생이 중등부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다.

문인협회 이천시지부(지부장 송병탁)가 주관하고 이천시와 이천교육청, 이천예총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백일장에는 400여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가해 자신의 문장실력을 뽐냈다. 황사숙에서 진행된 이날 백일장은 진달래꽃과 사랑, 가족, 고향, 이천쌀이라는 주제가 발표되면서 시작돼 산문과 운문의 형태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대학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한 이번 백일장대회에 입상한 수상자들은 지난 25일 이천교육청에서 열린 시상식을 통해 상장과 상품을 받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4. 28

이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찾아가는 해설 “우리고장 이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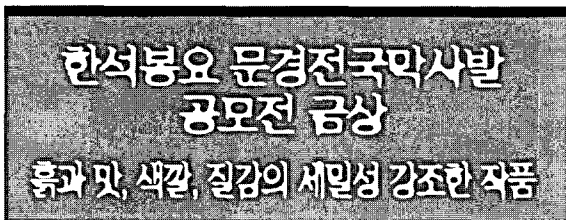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총 32개교 86학급)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이천의 문화 전반을 문화유산 해설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해설해주는 「찾아가는 해설 ‘우리고장 이천’」행사가 진행 중이다.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해설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이천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4월 12일 설봉초등학교(학교장 김명배) 3학년 4반 학생들 앞에서 김은희 씨는 학생들에게 나눠준 인쇄물과 이천문화전반을 요약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열심히 설명했다. 이천 9경 중 삼형제바위 전설을 들려줄 때는 마치 동화구연을 하듯 재미있게 풀어 나갔다.

40분에 걸친 해설이 끝난 뒤 최재현 담임교사는 “서희 선생이 거란을 물리 친 대목 등 아직 배우지 않은 역사 부분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재미있게 해설을 잘하고 이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찾아가는 해설 ‘우리고장 이천’은 이천시 관광 안내소의 김정자, 이선화, 김은희 씨 등 문화유산 해설사 3명이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 내용에 대해 참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며 더욱 알찬 해설로 이끌고 있다.

이천저널 2005.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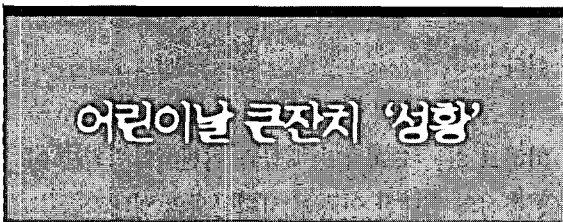
신둔면 수광1리 한석봉요 한도현씨가 지난 4월 30일 문경전국막사발공모전에서 금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자연에 가까운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도자기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한씨는 25년째 도예작가로 혼을 불사르고 있다.

만형부터 5형제가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중앙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인위적인 것은 사람의 눈을 버리게 된다는 한씨는 흙의 맛과 색깔, 질감의 정도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정성으로 도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도자기는 큰비전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 한씨는 전통을 중시하는 가운데 국내자료는 물론 인근 일본, 중국 등 도자기에 관련된 서적을 누구보다 많이 갖춰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의 도예작가로서의 삶을 열어가고 있다.

이천설봉 2005. 5. 12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재섭)와 보육시설연합회(회장 박명호)가 공동주관하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엑스포 재단의 수원시의 날 행사와 겹쳐 사전에 계획됐던 시간보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여성단체협의회와 보육시설연합회의 빠른 대응으로 50여분만에 예정된 공연이 진행됐다.

3천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가득 매워진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천시어린이합창단의 앙상블연주와 이천시어머니 플룻앙상블연주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마술공연과 택견시범, 뮤지컬공연인 ‘후크선장과 피터팬’이 순서대로 진행됐는데 이중 마술공연은 어린이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행사장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 공연중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빵, 과일젤리 등이 간식으로 제공됐



으며, 막간을 이용한 즉석 댄스경연대회도 펼쳐져 어린이들의 숨은 끼를 한껏 뽐내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한편 모든 공연마당이 끝난 뒤 행사장을 나서는 가족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신들이 머물렀던 주변은 깨끗이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천신문 2005. 5. 12

부래미마을에서 찾아가는 예술행사

농촌체험마을 3년차를 맞으며 많은 도시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울면 석산 2리 부래미마을이 4월 24일 '부래미 꽃보리 오세요'란 이름의 봄꽃 잔치를 벌였다.

플룻연주로 시작해 마임공연에 이어 새끼꼬기와 도자기만들기 시연이 펼쳐지고, 북공연과 별도로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드는 흥겨운 정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페이스 페인팅, 나물캐기 대회,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열려 마을을 찾은 체험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기열 부래미마을 이장은 "그동안 부래미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분들을 위하여 올해로 세번째 준비한 이 행사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농촌의 봄날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저널 2005. 4. 30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북한 문화예술단 합동공연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지부장 박선기)는 어버이날을 맞아 8일 오후 2시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남북한 문화예술단 합동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한의 태평무와 한량무 공연, 북한의 아코디언 병창과 여성 독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남북한이 번갈아가며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무대로 꾸며진 남북한 문화예술단과 행사진행을 도운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무대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천신문 2005. 5. 12

이천설봉신문사 주최 백일장 및 사생대회 성료 1천 7백여명 출전, 청강대학 페이스페인팅 전개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이천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 제3회 이천설봉신문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성화리에 마무리됐다. 도자비엔날레와 도자기축제가 열리는 설봉공원에서 5월 13일 열린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천 100여명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백일장과 사생대

회는 도자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도자기축제'라는 주제와 가정의 달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가족과 스승의 은혜를 일깨우기 위해 '가족', '스승'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백일장과 사생대회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페이스페인팅과 풍선 불어주기 행사를 열어 백일장과 사생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날 사생대회에서 창조미술 어린이집 김연찬 어린이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초등부 장예지(한내초1-2), 중등부장나린(설봉중3-13), 고등부 이민혜(양정여고3-2) 학생이 부문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백일장의 경우 최해규(아미초1-4), 권새봄(모가중1-1), 박상중(이천고3-5), 학생이 운문부문 장원을 차지했으며 지준호(한내2-5), 서혜인(이천제일고 전자과) 학생이 산문부문 장원을 차지했다.

이천설봉 2005. 5. 19

학생예능경연대회 청소년종합예술제
"끼와 재능 마음껏 펼치세요"
 초·중·고교 503팀 1800여명 참가

이천시와 이천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이천시 학생예능경연대회와 청소년종합예술제가 6월 8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막을 올렸다.

매년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스트레스 해소 축제 한마당으로 마련되고 있는 이 예술제는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계발해 새로운 문화창조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코자 개최되고 있다.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시민회관과 설봉공원 내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예술제에서는 관내 초·중·고교에서 총 503개팀 1800여명이 참가해 합창과 무용, 피아노, 한국음악, 합주,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끼와 재능을 펼쳤다.

이날 김재만 교육장은 격려사에서 "각자 자신이 가진 특기를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안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신문 2005. 6. 9

청강대, 코스튬플레이 경연
 28일 동대문 두산타워 야외무대에서 본선

청강문화산업대학(학장 이수형)은 28일 동대문 두산타워 야외무대에서 '제5회 청강 전국 코스튬플레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이번 콘테스트는 특별주제와 자유주제 부문으로 나누어 열렸으며 특별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전통의상을 비롯하여 무술과 국산 캐릭터 부문 코스튬플레이였으며, 자유주제는 국내외 모든 소재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창작 등의 캐릭터가 대상이었다.

본선에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예선에는 8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 들었으며 해신의 주인공 캐릭터를 표현해 장보고, 염강, 자미부인, 정화아씨를 시연한 '나를 능멸하는 자들(청강대학 최윤주 외)' 팀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청강대학 패션디자인과의

조영아 교수는 “대회가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 모방에 그치지 않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입상자에게는 3년 이내에 청강대학 패션디자인과에 응시할 수 있는 독자전형 지원자격이 부여되며, 2006학년도 패션디자인과 지원시 전형총점의 5%에 해당하는 5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천신문 2005. 6. 9

의왕시 방글아 학생
가요대상 수상

이천 연예협회, 5회 전국청소년가요제 개최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9회 도자기축제 기념 ‘제5회 전국청소년가요제’가 지난 5월 29일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연예협회 이천시지부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일 창전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열띤 경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의왕시에서 참가한 방글아 학생이 대상으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연예협회 이사장상인 특별상에는 대월면의 김민섭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천시장상인 금상은 전지훈(백사면) 외 2명이, 은상은 이천교육장상으로 이세미, 김하나(마장면), 안광호(김포시) 학생이 수상했으며, 동상수상은 한국예총이천시지부장상으로 김정아(증포동), 권은경(관고동), 김진

점(김포시)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천설봉 2005. 6. 9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 개최

‘이천’ 주제로 백일장·사생대회도

이천시 새마을문고(회장 이현호)가 주관하는 제10회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이 6월 15일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천시와 이천교육청,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관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이천, 설봉산, 여름, 가족을 주제로 한 백일장이 관내 초중고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치원생들은 풍경화를 그리며 행사를 함께 했다. 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편지쓰기 행사도 함께 치러졌다.

한편 행사가 끝난 뒤 문고 회원 50여명은 행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천신문 2005. 6. 16

내고장 청소년 문화사절단

본격적 활동

이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김관석)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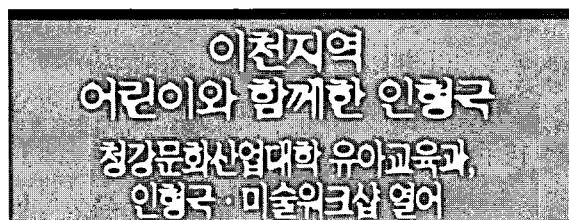
지난 5일 설봉공원 내 브리핑 룸에서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 고장문화홍보를 위한 청소년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활동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흥은 실 강사 선생님을 초청하여 진행했다.

교육 후 오후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유적지 답사활동으로 설봉산성과 이천 시립박물관을 답사하며 우리고장에 대한 역사공부를 실시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의 문화재 및 문화홍보에 적극 나서 우리고장 이천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우리고장 문화홍보 청소년동아리”는 올 한해동안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매월 1회 활동을 전개한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폭을 넓히고 환경정화 위주의 청소년봉사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설봉 2005. 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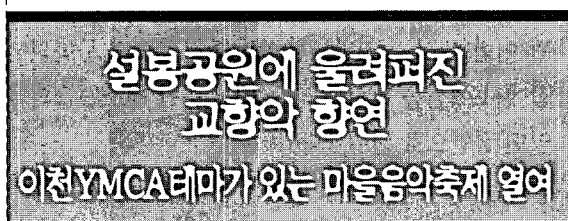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형극제를 여는 한편 워크숍을 통해 전공능력을 배양했다. 마장면 해월리에 위치한 청강문화산업대학(학장 이수형, 이하 청강대학) 유아교육과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9회 청강 인형극제 및 제3회 청강 음률 및 미술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사회에 봉사한

다는 목적으로 경기지역 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와 특별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인형극제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유아들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공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청강 인형극제는 청강대학 에듀플렉스에서 경기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2회씩 공연됐다. 이번에 청강대학에서 열린 인형극제에서는 청강대학 유아교육과 재학생 20여명이 탈인형극 ‘하모니카와 도깨비’와 손인형극 ‘사랑의 농장’ 등 총 4편의 인형극이 공연돼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도 했다.

또한 인형극제와 함께 열린 제3회 청강음률 및 미술워크숍에서는 유아교육과 실습실에서 이천지역 유아 40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직접 지도하는 형태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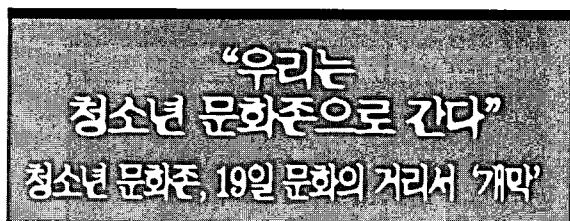


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리고 있는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에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교향악의 향연이 울려 퍼졌다. 이천YMCA(이사장 이교선) 청소년교향악단은 6월 11일 이천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에서 ‘테마가 있는 마을음

악 축제'를 열었다.

청소년교향악단과 객원단원의 연주로 진행된 이날 음악축제에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호두까기 인형 중 '정경' 등 우리들에게 익숙한 음악이 연주됐으며 청소년들의 춤과 함께 진행돼 청소년들에게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천설봉 2005. 6. 16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청소년 문화존(zone)' 사업이 19일 문화의 거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주5일 수업과 전일제 수업 등과 맞맞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오감만족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총 7천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될 올해 문화존 사업은 오는 11월 6일까지로 로봇체험, 포토드라마, 뮤지컬 배우기, 거리문화공연, 청소년 가요제, 도자문화 제작체험 등 다양한 역사·문화·사회적 인프라를 활용,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존 활동을 기획,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자체평가까지 맡아 운영해 청소년들이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

화 생산자로서 중장기적인 청소년 문화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오는 25일에는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문화배움존이 운영되며, 26일에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멀티문화존과 도자문화체험존이 운영된다.

문화배움존은 문화기획과 기자단 과정, 방송연출·제작과정, 포토드라마와 로봇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멀티문화존은 프리마켓과 더불어 청강대학의 이색학과 열전, 릴레이거리 문화공연, 만화·애니메이션 코스프레, 거리 캠페인 등으로 꾸며지게 된다. 또 도자문화존은 도자문화제작체험 등 체험 이벤트로 매주 일요일,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즉석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 조계형 운영국장은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위주의 문화와 그들을 흉내내는 청소년문화가 '문화존' 사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문화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문화를 함께 창조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5. 6. 23

“디자인과 지역도자 산업, 연계 필요성”

김진표 부총리 청강대 방문,
문화콘텐츠 교육현장 둘러봐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겸 부총리가 3월 21일 문화 콘텐츠분야 우수대학으로 7년 연속 지정된 청강문화산업대학 (학장 이수형)을 방문, 문화콘텐츠 전문인 양성 현장을 둘러보았다. 유승우 이천시장, 김재만 교육장 등 지역인사들과 이 대학 설립자의 아내로 이사를 지낸 정희경 전 국회의원, 이수형 학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안내했다.

김 부총리 일행은 애니메이션, 만화창작, 컴퓨터 게임, 푸드 스타일링, 패션디자인, 표면장식, 리빙세라믹과 등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된 곳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작품전시가 한창인 문화사랑관 로비에서 이 대학 리빙세라믹학과 신철 교수로부터 연리문 자기를 선물받았으며 만화창작과 송래현, 이가람, 이일섭, 장원영 학생이 공동작업한 캐리커처를 증정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도자기 작품들을 둘러본 김 부총리는 “대학의 훌륭한 인재들이 이천지역 도예산업과 연계해 디자인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청강대가 상호연관된 문화콘텐츠학과들을 지속적으로 개설,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 중추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천신문 2005. 3. 24

‘이천9경’ 홍보 본격화

4곳에 안내조형물 설치,
문화콘텐츠 교육현장 둘러봐



이천시가 지난해 정한 ‘이천9경’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아홉개의 경치와 ‘둘러본다’는 두 가지의미를 함께 가진 ‘이천9경’은 △도드람산 삼봉 △설봉산 삼형제바위 △설봉호 △산수유마을 △반룡송 △노성산 말머리 바위 △안흥지 애련정 △도예촌 △설봉산성이다.

시에서는 청강대 리빙세라믹디자인과 신철 교수가 제작한 높이 1m, 폭 45cm의 조형물에 도판을 설치해 이천구경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설치장소는 설봉호수, 설봉산성, 산수유마을, 애련정 모두 4곳이다.

시에서는 조형물 설치와 병행해 한영판 책자 5천부와 지도 5천부를 새로 제작, 관광안내소와 호텔, 모범음식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신문 2005. 3. 3

시승격 제9주년 기념식

**“신명나는 사물놀이때와 함께
성황리에 열려”**

봄의 서막을 알리는 꽃잎 같은 눈발과 함께 거행된 시승격 9주년 기념식이 3월 월례조화와 병행 지난 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풍물지기 ‘치레’의 사물놀이판을 시작으로 유승우시장 및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유시장은 유공시민과 공무원 시상상에 이어 2005년도 역점시책으로 평생학습도시, 사회복지도시, 전원환경도시, 문화관광도시, 미래계획도시, 선진경제도시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27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리더십’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3선 민선 시장이라는 지방정부의 리더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리더들의 행적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하여 우리것으로 만들어 가자는 바람직한 리더십론을 연설했다.

이천저널 2005. 3. 3

자연친화적이며 달과 학의 몸짓 형상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설계공모작품 최종선정**

월전미술관 설계현상공모에서 자연친화적이며 원형광장을 통해 달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독창적인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3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사에서 최종 당선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자연친화적이며 원형광장을 통해 달의 이미지를 형상화 했다. 또한 학의 날개짓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구성한 독창성도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천시가 지난 2월에 마감한 이천시립월전미술관건립 건축현상설계 경기공모에는 총 9개업체가 참여하여 최종 5개업체에서 응모작품을 제출하였으며 이날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미술 및 건축분야 전문가들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업체에서 제출한 조감도 및 계획도면과 설계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전시계획, 에너지절약계획 및 시공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최우수 당선작으로는 (주)삼우동인 건축사무소의 응모작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품 2점에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진터와 (주)건축사무소 예가의 작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중 당선작 1점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고, 우수작 2점은 각각 5백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앞으로 이천시에서는 당선작으로 이천시립월전 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신문 2005. 3. 17

반룡송 인근 공원부지 지정추진

사유지로 반룡송 인근지역 개발에 어려움

이천9경의 하나로 이천문화관광 산업에 중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백사면 송말리 반룡송 인근지역 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돼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천9경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반룡송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공원화함으로써 관광자원화한다는 전력을 추진했으나 수년동안 진행해온 토지매입 협상에 난항이 지속되자 최근 반룡송 인근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반룡송을 중심으로 토지수용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7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관광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열고 반룡송 개발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입을 추진했으나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이천9경의 하나인 반룡송 주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원부지지정과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천시가 반룡송을 중심으

로 영원사, 산수유마을, 신둔도예촌, 신둔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를 통한 관광상품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관광자문위원은 “개인 소유의 부지를 공원화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수년동안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진행되지 않아 이천9경의 하나인 반룡송 인근지역 개발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식물원 등을 개발해 이천관광산업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천설봉 2005. 3. 17

평생교육 통한 참살이 프로그램 진행

이천시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16개 발표

이천지역을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선정발표 됐다. 이천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 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5개 사업과 시민제안 우수 프로그램 3개, 지역사회단체나 학교, 동아리 등에서 접수된 44개 프

로그를 놓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진행된 이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에서는 ▲노인을 위한 동화구연지도자 교육 ▲삶을 가꾸는 우리 창작동화읽기 ▲한국의 전통색 찾기 ▲설봉산 들꽃들의 은은한 향과 색의 미학을 찾아서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 ▲디지털 영상아카데미 ▲통합 농산물 쇼펄물제작을 통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참살이 프로그램 등이 동아리, 시민제안 등을 통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또한 한국도예고등학교의 '리빙세라믹', 이천거북놀이 보존회의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청강문화산업대학의 '도자기와 상차림의 만남' 이 특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천설봉 2005. 3. 24

“평생학습도시 의욕적 추진에 감탄”

전국 평생학습 심포지엄 이천에서 개최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과 19개의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지역 관계자들을 비롯해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희망하는도시의 담당직원 등 총 350여명의 평생학습 담당 공무원들이 이천에 모였다.

5월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진행된 평생학습 심포지엄은 한국교육개발원과 이천시 공동 주최로 이 분야의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해 앞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시군의 경험을 나누

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정보교류의 장이 됐다. 교육은 세계도자센터와 숙소인 지산리조트로 이어졌다.

한국교육학회 김신일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정보혁명의 새로운 시대는 학교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환 서울대 교수는 지역사회 형성과 평생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 “사회교육이 풍성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국 지역사회의 문화수준과 시민들의 자치의식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강의한 박인주 평생교육 총연합회 회장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교류단위가 지구촌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창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평가받으며 계속 학습을 통해 발전된다고 말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부산대 조용복 교수는 21세기형 조직의 방향으로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네트워크 조직의 운영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섯번째 강의는 이종명 이천시청 평생학습과장이 맡았으며 이천시의 그동안 축적된 평생학습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강력한 추진의지 등을 설명했다.

이종명 과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큰

성과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천신문 2005. 5. 26

갈산동 유적지 통일 신라시대 축조 '안홍사'

발굴조사 결과 다량의 '안홍사' 이름의 기와발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갈산동 630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견된 유적지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사찰인 안홍사인 것으로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는 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천도호부조와 '여지도서'에 기록된 '안홍사'의 실체가 발굴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것.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자료에 따르면 발굴조사 2지구에서 출토된 '안홍사' 명 기와와 더불어 조사된 석탑재는 탑신석의 옥개석, 그리고 기단석에 해당되는 부재로써 옥개석은 4매만 조사됐으나 오층석탑으로 추정되며, 조각수법과 양식적으로 고려 후기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동이 조사된 건물지의 출토유물로 볼 때 안홍사의 초창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량의 '신묘사월구일조 안홍사' 명 기와의 출토로 신묘년(931년) 혹은

991년)에 중창되면서 고려 초기에 사세가 확장된 후 조선중기이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문헌에 기록된 '안홍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천도호부조에 안홍사가 부의 동쪽 4리에 위치하며, 조선 전기(1401년)에 감무 변인달이 안홍정사에서 생도를 가르치고 있는 곳을 보고 승려의 집을 학교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별도로 향교를 지었다는 기록과 '여지도서'에는 안홍사에 대한 이름만 간략히 기록돼 있다.

안홍사지 유적지는 사원이 창건되기전 이 지역에 거주하던 평민들이 주거지 또는 사원 창건시 동원된 인력들의 임시주거지였을 가능성이 있는 수혈주거지가 다량으로 조사되고, 건물지와 관련된 배수로, 석렬, 담장지 등 당시 건축기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양식상 나말여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안홍사지 오층석탑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경복궁으로 이전됐다.

이천설봉 2005. 6. 16

찾아가는 미술전시, 새 작품으로 시작 관공서 순회전 통해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미술전시, 관공서 순회전’이 새해들어 그 두번째 행사를 펼친다.

2월 1일 시청로비와 각층의 벽면에 신작 24점을 전시한 것을 필두로 경찰서, 시립도서관, 교육청 등에 전시되었던 작품이 장소를 바꿔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관심어린 시선을 받게된다.

전날 작품 설치를 끝낸 뒤 1일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 배산빈 사무국장과 함께 시청을 방문한 강신영 미협이천시지부장은 “6개월간의 전시기간 동안 단 한 점도 훼손이나 도난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공기관측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2차 찾아가는 미술전시가 이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에 행여라도 피의자들이 고까워할까봐 전시를 유보했던 경찰서 측에서도 금년엔 전시하기로 결정해 기쁘다면서 “시민들이 일부러 화랑이나작가를 찾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같은 친숙한 공간에서 회화, 조각, 공예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접할수있고, 작가에게도 훌륭한 전시기회가 되어 문화예술 발전에 좋은 자극이 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천저널 2005. 2. 3

이천예총 사진교실 졸업작품전

미래 사진작가의 꿈을 키워가는 이천예총 제7기 사진교실 수강생들이 졸업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사진인구의 저변확대와 아마츄어 사진동호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진작가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천예총 사진교실(지도강사 최갑수)은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7기 사진교실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6명의 7기 사진교실 수강생들의 작품과 지도강사인 최갑수 사진작가협회 이천시지부장 등이 찬란한 자연의 신비함과 주제를 가진 영상등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천설봉 2005. 3. 3

김기일 작가 제5회 한국현대미술제 참여

국내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중견작가들과 패기넘치는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들이 펼쳐지는 제5회 한국현대미술제에 이천 출신 미술가인 김기일씨의 작품이 초대됐다.

3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제5회 한국현대미술제는 전국에서 활약하는 57명의 작가들이 초대됐으며 김기일씨는 Contemplation(觀照)시리즈의 작품 3점을 출품했다.

이천저널 2005. 3. 3

“자연에서 온 사람들” 장경석 기행의 흔적

“그림을 걷는 우물의 주인이 되어, 맑은 그림을 퍼서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누리고 싶다”는 작가 장경석의 개인전 ‘자연에서 온 사람들’이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학교재 화랑에서 열린다.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작품활동을 해오고 이는 장경석은 2001년 성균관갤러리에서 ‘筆墨形象’이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사실적인 화풍으로 마을이 자리 잡은 산자락과 산그늘의 겹침을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그는 “세상을 상대적 구도보다는 상호대대관계(相互待對關係)로 인식할 때 유토피아가 실현 가능한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며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한 이번전시회의 구성을 들려줬다.이천저널 2005. 3. 31

제11회 샘표스페이스 기획전 “오늘은 예술... 내일은 아니다”

젊고 실험적인 자유로운 예술세계, '샘표스페이스 기획전'이 7일부터 31일까지 샘표식품(대표 박진선)의 이천공장(호법면) 내 샘표스페이스 갤러리에서 펼쳐진다. 킬러플한 바닥재와 기둥, 4m 높이의 천장, 500여 평의 부지 240여평의 전시장. 하나의 조형물로써도 손색이 없는 이천공장 샘표스페이스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제11회 샘표스페이스 기획전은 “오늘은 예술...내일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시는 상명대 예술디자인 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한 이성희 작가의 유니폼 시리즈 14점과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한효석 작가의 인간에 대한 회의를 담은 작품 5점 총 19점으로 꾸며졌다.

엄진희 갤러리스트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예술의 정반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판이하게 다른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대립시켜 관람객이 작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심을 갖고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과 타지역 관람객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천지역 주민들의 열린 문화 예술 공간이 되기 위해 다양한 작품의 전시회를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관한 샘표스페이스 갤러리는 공장 내 입지를 통해 비문화와 문화, 생산과 향유라는 대칭적 의미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문화코드를 파생시켜 이천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천신문 2005. 3. 10

하찮은 사소한 그러나 소중한 기억들 이종철, 2005 아트 서울 초대전

여러 차례의 공모전 수상과 단체전 참가를 통해 독특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작가 이종철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2005 아트 서울(ART SEOUL)'에 초대됐다.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이천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이고 있는 그는 1997년의 개인전 '허물벗기-작업을 통한 단절된 절대의식의재통합전' 이후 허물벗기 시리즈를 연속해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품되는 작품도 같은 허물벗기 연작으로 '기억의 그림자', '기억의 달', '기억의 흔적'이란 제목을 가졌다.

그는 일회적인 채 반복되는 삶의 구체성을 하찮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기억의 되새김으로 이야기 한다.

혼합재료를 써서 마치 커다란 한 판의 검은 피자 같기도 한 그의 작품은 몽개지고 채색되며, 들어와 박힌 어떤 것들과의 기쁨과 포감을 통해 축적된 기억을, 혹은 사라지는 시간의 무게를 붙들고 있다.

이천저널 2005. 3. 31

시립박물관에서도 도자감상하세요 축제기간동안 한중일 현대도자전

이천시립박물관에서는 2005년 첫 번째 기획전으로 4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자비엔날레 기간동안 도자역사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도공들의 현대 도자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 전시되는 도자작품들은 이미 97년부터 이천 도자기축제와 국제 도자공모전에 출품되었던 작품들 중 그 미적 아름다움이 뛰어난 30여점을 선별한 것으로, 전통적인 도자제작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전통적 모티브와 현대적 형상의 이원적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기간동안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천저널 2005. 4. 22

색다른 분위기의 러시아 도예전 수광리 「토·아트」 5월 8일까지 전시

러시아 작가 5인의 현대도예전이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신둔면 수광리에 자리잡은 도자전문 화랑 「토·아트」에서 열린다.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맞춰 한국전시를 갖는 Aleksey Krasnykh, Natalia Fadeeva, Daria Sourovtsseva, Matsumaro Khan, Orlova Maria 등 5인의 러시아작가와 작품에 대해 우병탁 관장은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지만 각자 여러 차례의 해외전을 가진 경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자유스러우면서도 샤프하달까 날렵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사물의 뒤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존재감(Aleksey Krasnykh), 또는 상처처럼 처리된 빗줄기 형상(Matsumaro Khan)등 나름의 생에 대한 울림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천저널 2005. 4. 22

이천시 수석연합회 창립전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며, 수석을 통한 인격도야에 힘쓰는 이천의 수석인들이 모여 이천시수석연합회(회장 이찬의)를 창립하고 첫 전시회를 가졌다. 5월 6~8일 농협 하나로 마트 2층 전시관에서 열린 이천시수석 연합회 창립전엔 연합회 산하 이천석우회(회장 조남철), 청석회(회장 하재만), 돌사랑수석회(회장 윤석모), 이천수석회(회장 박동식) 회원들의 수석작품이 소석 김덕연 선생을 비롯해 여러분의 축하, 축시와 함께 전시돼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천저널 2005. 5. 14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시회

김민기의 노래 ‘백구’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 기획한 창작그림책 『백구』(김민기 글, 권문희 그림)에 실린 원본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다.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천 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사계절출판사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시회’는 강아지를 낳다가 잃어버린 백구, 백구를 안고 동물병원을 찾아가는 아이와 아빠, 아픈주사에 놀라 병원을 뛰쳐나가는 백구, 백구를 찾아 헤매는 아이의 안타까운 얼굴 등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정감어린 그림으로 그려져 전시되고 있다.

이천저널 2005. 4. 30

양정, 제8회 우리들꽃 전시회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이색적인 작품들로 다시 만나요.”

양정여중(교장 홍덕중)의 제8회 우리들꽃 전시회가 19일부터 5일간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틔움이 모종삽으로 화단을 가꾸 일궈낸 210여종 500여 들꽃작품들이 교내 화단과 들꽃 전시장에서 선보여졌으며 전통 짚 공예 농기구 전시, 들꽃 사진전 등도 교내 곳곳에서 마련됐다.

특히 들꽃 전시 개관 첫날에는 개관식 행사와 함께 미국 뱅가드 대학교 합창단의 초청공연이 정암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튿날에는 이천과 여주, 광주, 용인, 양평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들꽃 사생대회가 들꽃전시장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이천신문 2005. 5. 26

양정여고 교지 『등대』

순결, 박애, 자주, 봉사가 교훈인 양정여고(교장 김학소) 교지『등대』가 발간됐다. 통권 제63호의 내용을 보면 교지편집부 팀이 한국 교육방송공사(EBS)와 신문박물관을 다녀온 이야기, '대통령 탄핵사태를 바라보며'란 시사논단(2-7 심지혜), 목소리 연기자인 성우를 다룬 직업탐구(2-10 위보람), 외모지상주의를 통렬히 공박하는 '깍뎀기 나라' (1-11 조나영), 뇌호흡 건강법인 '뇌 안에 답이 있다' (1-1 이은경)와 같은 흥미있고 유익한 글과 함께 교사와 학생의 문예작품도 실려있다.

이천저널 2005. 2. 24

송곡초교 교지 『소리울아이들』

꿈과 미래를 밝혀주는 늘 '푸른 교육'을 지향하는 송곡초등학교(교장 손종진)의 두번째 교지가 발간됐다. 이천 교육장으로 부터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로 표창받은 송곡초교 교사진이, 작년 한해동안 학생들과 함께 한 각종 행사 사진을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의 글은 물론 학년별로 학생작품을 듬뿍 실고 있으며, 산수유축제 문예백일장등 각종 글짓기 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송곡초교는 올해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천저널 2005. 2. 24

『이천청소년 문화기획단 MOSS 활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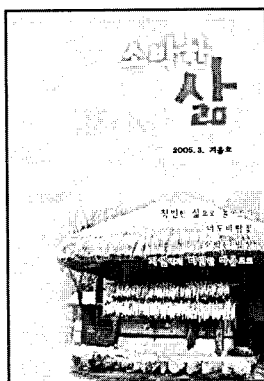
2004년 7월 청소년 문화기획단이란 이름으로 모여 그들은 의논하고 행동하고 만들어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청소년 문화를. 이 책은 9월 18일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토요일일에 펼쳐졌던 2004 경기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진행한 이천 청소년 문화기획단 MOSS의 활동 보고서이다.

'이끼'라는 뜻을 가진 MOSS는 중·고·대 9개교 20명으로 구성돼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전명기)에 뿌리를 내리고 주체적인 행사를 기획, 섭외, 준비, 홍보, 운영했으며 그 모든 과정과 평가회의, 언론보도 등을 담아 보고서로 펴냈다.

이천저널 2005. 2. 24

봄소식처럼 반가운 계간 『소박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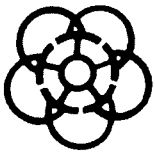


좋은부모되기 연구회 발간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계간 『소박한 삶』 제2호가 발간됐다. <푸른이천21> 회장인 한기석

발행인의 '청빈한 삶으로 돌아가기', 이순이 시인의 '겨울에 핀 민들레', 강순남 자연식 연구가의 '소박한 밥상' 등 자연과 대화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잔잔한 감동이 담긴 글과 김용주 시인의 시 '이른 봄' 등 30여편의 글이 실린 『소박한 삶』은 '좋은부모되기 연구회'에서 펴냈으며 정가는 3천원이다.

이천저널 2005. 3. 17



문화원 소식



利川文化院會報 2005. 2. 28 발행인/이상구 편집인/이인수 경기도 이천시 청전동 산 105-3번지(시민회관3층) T. (031)635-2316 F. (031)637-7486

2000여 시민동참, 새해 소망빌어 2005년 설봉산 새해맞이 행사



을유년 새해 첫아침을 맞아 설봉산 새천년의 탑 앞에서는 이천시민과 각급 기관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고 새해 소망을 비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이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이천시가 후원하며, 이천청년회의소와 연합동문회, 풍물지기 치레 팀이 참여한 새해맞이 행사에는 유승우 시장, 원종성 시의회의장, 주기주 경찰서장, 이상구 원장 등 각 기관단체장과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희망찬 새해 첫아침을 설봉산에서 맞았다.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시민들은 한해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행사장 복판에 세워놓은 신대에 정성껏 매달았고, 풍물치기 치레는 제물이 차려진 팔각제단 주변에서 흥겨운 길놀이로 시민들의 안녕과 복을 빌었다. 7시 44분 함성 속에 붉은 해가 떠오르자 유승우 시장의 선창에 따라 '대한민국 만세, 이천시 만세, 이천시민 만세'의 만세삼창을 힘차게 외쳤고, 참석인사들의 새해 덕담과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서 시민들의 안녕과 이천시의 번영을 기원하

는 새해맞이 풍물굿이 팔각제단에서 진행되었고, 소원지를 매단 신대를 태워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한편 이날 연합동문회에서는 설봉주차장 등산로 입구에서, 청년회의소 회원들은 설봉산성 새천년의 탑 주변에서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른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여 추위로 언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했고, 농협 이천시지부가 준비한 복돼지저금통 1,000개가 기념품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을유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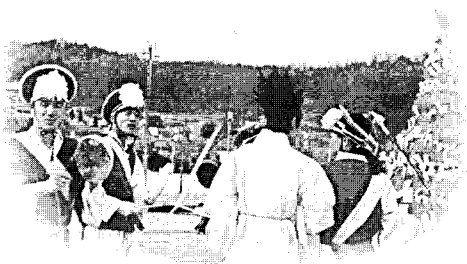
전통문화의 계승과 사라져 가는 민속놀이 보존을 목적으로 이천시와 이천문화원이 해마다 열고 있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대보름 명절날인 2월 23일 설봉공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참전주민 자율방범대가 행사준비와 진행을 맡아 수고한 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전래의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윷놀이·연날리기와 제기차기·널뛰기·투호·줄넘기 등의 민속놀이에는 추운 날씨 탓인지 노인들보다도 부모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서는 오후 4시부터 시내 문화의 거리를 돌며 풍물놀이를 흥을 돋우기도 했다.

오후6시, 달뜨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풍물기원굿과 함께 달맞이행사가 시작되었다. 유승우 시장, 김응호 교육장,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참석인사들은 달집 앞에서 술을 따르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고, 시민 1백여명과 함께 설봉호수 주위를 한바퀴 도는 햇불행진을 벌였다.

달집태우기를 끝으로 행사가 끝난후 각종 민속놀이 입상자와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TV와 자전거를 비롯한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문화원여성회는 회원들이 한복차림으로 나서서 따뜻한 커피와 인삼차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문 화 단 신

2005년도 정기총회와 문화가족의 밤

2005년도 정기총회겸 문화가족의 밤이 2월3일 오후6시 상공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승우 시장, 이은구 전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과 정회원, 여성회원 등 1백여 명의 문화가족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제1부 축하공연과 제2부 정기총회, 제3부 만찬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래예술원 전미경 원장과 문화생들의 우리 민요, 문화원 소슬패풍물단의 설장고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상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4일 동안이나 열었던 국제조각심포지엄, 서희선생 선양사업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분주하게 보낸 지난 한해를 회고하고, 문화원 회원 1,000명 확보를 위한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총 5억7천2백9십만원의 사업계획안을 승인하였으며,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토요일문화탐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 및 무의탁 노인 등을 대상으로한 소외계층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제8회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지난 해와 같은 9월달에, 도자기축제 관련행사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같은 기간인 4월 ~ 6월에 열리게 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회원들에 대한 우수회원 표창도 이루어 졌다.

우수회원 표창

- - 권명자 (2004년도 문화원여성회장)
- - 장은실 (2004년도 문화원여성회 총무)
- - 오미희 (문화원 학생회 부회장)
- - 김진희 (문화원 학생회 총무)

전임원장단 간담회

전임원장단 초청 신년간담회가 1월4일 정오 임금쌀밥집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종구·유광렬·이은구 전임원장과 박의협 전부원장, 이상구 원장,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제65회 이천아카데미

이천시와 이천문화원, 이천시 평생학습 도시추진 실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5회 이천아카데미가 1월1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성공 패러다임과 자기혁신'을 주제로한 박명래(위캔컨설팅대표) 초청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4월23일부터 6월19일까지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1월21일 오후2시 시청회의실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이천문화원 제1차 임원회의가 1월26일 저녁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의안심의가 이루어 졌다.

이천시 지명위원회 참석

이천시지명위원회 회의가 1월27일 시청상황실에서 유승우 시장 주재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과 신배섭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봉산 봉우리들과 능선, 계곡의 명칭을 선정하는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2005 3월~4월 문화 달력

문화원소식

3.28 제7기 이천문화학교 개강
4. 2 문화원 회원가족 역사문화탐방
4월중 도자기축제 관련 행사주진

문화단체 안내

기독교박물관 632-1391
도립서당 634-3357
부래미마을 643-0817
부발청소년문화의집 634-7000
샘표 스페이스(실험전시공간)644-4615
세계도자센터 631-6504
시민회관 635-0100
시립박물관 644-8742
유네스코문화원 638-9051
이천문화원 635-2316
이천시립도서관 644-8734
이천도자기협동조합 633-6381
이천환경운동연합 632-6246
이천YMCA 635-0887
이천예중 635-1414
이천시 청소년상담실 634-2777
이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644-2090
장호원 문화의집 641-3004
창전청소년문화의집 636-0300
청강만화역사박물관 639-5721
청암관광농원 632-5082
해강도자미술관 634-2266

3월 March

	행사대회
1 주	
2 주	정개산 산신제 신둔면 지석리 (3.11)
3 주	이천시민장학금 수여식 시민회관 대강당 (3.21)
4 주	제67회 이천아카데미 시민회관 대강당 (3.21)
5 주	

3월 March

4월 April

전시·공연	프로그램	행사·대회	전시·공연	프로그램
이천시민을 위한 패밀리콘서트 시민회관 대강당 (3.6)	이천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3월 25일까지)	제6회 백사 산수유 축제 백사면 도립리 (4.1~4.3)	청강만화역사 박물관상설전시	문화원회원가족 역사문화탐방 (4.2)
제11회 기획전 이성화·한효석전 샘표스페이스갤러리 (3.7~3.31)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전국순회 전시회 (2.21~4.17) 도자기엑스포 재단 (631-6509)	부래미 마을 농촌 체험
	이천시민문화교실 시립도서관 (3.14~6.3)		조선의 미를 찾아서 특별전시 시립박물관 (4.19~6.19)	자채 방아 마을데마 체험 (634-4283)
“굿모닝 안데르센” 뮤지컬 공연 시민회관 대강당 (3.26)				
이천청소년 무용단 공연 시민회관 대강당 (3.27)	이천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3.28~)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 설봉공원 (4.23~6.19)	

※ 행사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문화원 Icheon Cultural Center ☎ 635-2316

2005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1. 강좌기간

- 가. 3개월 코스 : 2005년 3월 ~ 6월 (12주 24시간 이상)
- 나. 6개월 코스 : 2005년 3월 ~ 10월 (24주 48시간 이상)
- 다. 개 강 일 자 : 2005년 3월 28일(월)

2. 강의시간

오전 10시 ~ 12시 (주 2시간) 기준
강좌별 시간 조절 가능

3. 수강인원

과목당 30명 기준, 수강 신청자가 10명 미만의 강좌는 폐지함.

4. 참가비

- 가. 문화원 회원 및 회원가족 : 월 10,000원
- 나. 일반 수강자 : 월 20,000원
- >>> 참가비는 수강 신청시 일시불로 납부함.

5. 재료비

각 과목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실비로 자부담

6. 수강신청

2005년 3월 25일까지 문화원 사무국 (전화 635-2316)으로 신청

7. 기타(특전)

- 가. 6개월 과정 이수자 : 한국문화학교장 수료증 발급
- 나. 3개월 과정 이수자 : 이천문화학교장 수료증 발급
- 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우선 초대 및 문화원 발간 도서 무료 제공
- 라. 기타 문의는 문화원 사무국 (전화 635-2316)으로 문의바람.



문화예술강좌

강좌명	대상	기간	요일	장소	담당강사	경력
노래교실	일반	3개월	월, 10시	세광음악학원	전무선	세광음악원장, 평생교육원강사
기타교실	일반	6개월	화, 10시	세광음악학원	전무선	세광음악원장, 평생교육원강사
서양화 (기초소묘, 수채화, 유화)	일반	6개월	목, 10시	문화원 문화교실	박호창	전)한국미술협회 이천지부장 문화학교 강사
생활도예반	일반	6개월	화, 10시	도예공방 들꽃마을	최현숙	도예공방 들꽃마을 운영 평생교육원 강사
장구·뽕과리반	일반	3개월	수, 10시	시민회관 5강의실	이석진	이석진 퓨전국악단 대표 문화학교 강사
사물 직장인반	일반 직장인	6개월	수, 19시	시민회관 5강의실	이석진	이석진 퓨전국악단 대표 문화학교 강사
전통풍물반(고급)	일반	1년	월·수, 14시	시민회관 5강의실	이석진	이석진 퓨전국악단 대표 문화학교 강사
서예반	일반	3개월	화·목, 10시	청청서예학원	최영미	청청서예학원장, 문화학교 강사
규방 공예반(전통퀼트)	일반	3개월	금, 10시	2000디자인스플랜	오해식	2000디자인스플랜 운영 문화학교 강사
자녀독서지도반	일반	6개월	화, 10시	문화원 문화교실	정복매	독서지도사, 문화학교 강사
경기민요반	일반	6개월	금, 10시	소래예술원	전미경	중요중형문화재 57호 전수자 소래예술원장
독서논술교실	학생	48시간	방학중	문화원 문화교실	신배섭	설봉문화회장, 시인, 교사
생활차다례교실	일반	3개월	수, 10시	초인목	김경의	초인목 다례교실 운영 문화학교 강사
시창작 교실	일반	3개월	목, 18시	문화원 문화교실	신배섭	설봉문화회장, 시인, 교사

취미생활강좌

강좌명	대상	기간	요일	장소	담당강사	경력
일본어 초급반	일반	6개월	월, 11시	문화원 문화교실	KOSEKI-EMI	일본어 공부방 운영 문화학교 강사
일본어 회화반	일반 직장인	3개월	수·금, 18시	문화원 문화교실	KOSEKI-EMI	일본어 공부방 운영 문화학교 강사
요가교실	일반	3개월	화, 10시	시민회관 5강의실	이미자	국제요가지도자과정수료 밝음요가교실강사
토탈플라워반	일반	3개월	화, 10시	하수꽃꽃이학원	최정애	하수꽃꽃이 원장 문화원 부원장
퀼트반	일반	3개월	수, 10시	문화원 문화교실	서은영	풀잎문화센터 퀼트사범 평생교육원 강사
차밍 메이크업	일반	3개월	금, 10시	문화원 문화교실	남경애	메이크업협회 강사 프로메이크업 강사
컴퓨터반	일반	3개월	금, 10시	상아탑컴퓨터학원	김건기	상아탑컴퓨터학원장 문화학교 강사
댄스 스포츠반	일반	6개월	금, 10시	댄스스포츠 이천연수원	김인수	댄스스포츠 이천연수원장 댄스스포츠교육협회 지도자
발지압 건강반	일반	3개월	목, 10시	시민회관 5강의실	민정식	한국족반사학술연구원장
전통음식반	일반	3개월	월, 10시	양지말(수하리)	김재섭	농업기술센터강의 이천전통주 제조 자문위원

문화단신

이인수 사무국장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제44차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가 1월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한국의 집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인수 사무국장이 지역문화 및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참석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1월31일 시청회의실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중요한 사업추진과 시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천거북놀이 민속촌 초청공연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이천거북놀이가 설날명절인 2월10일 한국민속촌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 오후 1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된 거북놀이 공연에는 이천거북놀이 보존회(회장-김양원) 회원 5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문화원장 연찬회

2005년도 전국문화원장 연찬회가 2월20일, 21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자체와 문화원간 수범사례 발표'등 워크숍과 함께 전국문화원 연합회가 <열린 극장 창동>에서 주최한 봄맞이 문화가족 큰잔치에도 참석했다.

시간안내 ●●

울면 정승달구지 조사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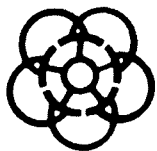
'달구지'란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통과 의례 가운데 상례 때 시신을 매장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달구질소리, 달구소리, 화다지소리, 회방아소리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고, '달구질노래'처럼 '노래'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울면 고당리에 전해 내려오는 달구지소리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정승달구지'라는 명칭부터 독특하고, 내용면에서도 소리의 후렴구가 일곱가지로 다양하게 바뀌면서 그때마다 춤사위(달구질 동작)도 달라지는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준다. 정승달구지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조선조 말 세도 정치로 이름난 안동 김씨들의 일족인 효정공(孝貞公) 김영근(金泳根)이 별세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당시 조선팔도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소리꾼이 뽑혀왔다고 한다. 이 선소리꾼으로부터 마을로 전수된 것이 오늘의 정승달구지라는 것이다.

김영근은 이조판서 김병기의 생부이며, 그의 묘가 고당리에 있어 달구지의 유래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천문화원과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울면지역 민속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그후 문화재청 이소라 전문위원의 조사로 학계에도 소개되었다. 2003년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고당리 주민들과 힘을 모아 놀이로 구성하고, 이 해의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은 바 있다.

다른 민속문화들이 그렇듯 정승달구지 역시 고령의 기능보유자 몇 분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울면정승달구지 조사보고서는 정승달구지의 기록보존을 위해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김양원 회장이 자료조사와 정리를 맡았으며, 유래와 현황, 놀이의 구성과 악보, 춤사위 등 전과정을 수록하였다.

이천문화원 발행, 4×6배판 72쪽으로 비매품이다.



문화원 소식



利川文化院會報 2005. 4. 30 발행인/이상구 편집인/이인수 경기도 이천시 청전동 산 105-3번지(시민회관3층) T. (031)635-2316 F. (031)637-7486

지구촌 도자를 한 눈에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도자와 건축, 풍경과 도자 같은 특별전시와 함께 도자관련 학술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학술행사로 이천에서 열리는 국제도자학술회의가 '도자에 술의 새 지평'이란 주제로 열리며 그밖에도 국제청자학술 세미나와 국제장작가 마워크샵(광주), 국제도자 워크샵(여주)이 있다.

행사기간 중 계속되는

공연 및 이벤트는 도자테마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공연을 즐기는 동안 도자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하였다.

도자퍼포먼스를 화려한 공연, 영상쇼와 결합한 <도자버라이어티쇼>, 야간목외비주열쇼에 도자테마를 결합한 <도염천교>, 세라믹 난타, 도자인형 뮤지컬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3월22일 오후 2시30분 설봉공원내 이천세계도자센터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5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손하규 경기도지사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귀빈들과 국내외 도예관련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이 대신 낭독하기도 했다.

'문화를 담는 도자'를 주제로 하여 3월23일부터 6월19일까지 열리는 세계도자비엔날레는 먼저 이천세계도자센터에 마련된 국제도예공모전과 세계현대도자전을 통해 세계 현대도자의 흐름을 조망할수 있다. 광주 조선관요박물관에서는 세계청자전과 함께 전통도자전인<자연과 함께>가 열리며, 도자문화실이 마련되어 도자기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주 세계생활도자관에서는 세라믹하우스와 세계주전자전, 세계도자기 기념품전이 열리고 있다.



도자기 명장전과 함께 김대균 줄타기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도예교실, 도자기 진기명기, 물레체험교실, 도자 및 옹기 제작시연같은 다양한 도자기 체험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도자기명장전, 아름다운 상차림전, 요업기술전 등의 기획전시와 함께 다도시연, 야생화전, 교류도시 특산품전도 열리며, 170개소가 넘는 이천의 요장들이 참여한 상품관 자체가 다양한 도자기들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볼거리이기도 하다.

도자기명장전과 야생화전은 이천문화원이 주관을 맡아 행사를 준비하였다. 대한민국 도자명장과 이천시 도자명장으로 뽑힌 아홉명의 도예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도자기명장전은 이천을 대표하는 도예가들의 수준높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행사기간 중 문화원이 준비한 각종 공연행사로는 지난해에 이은 중요무형문화재 김대균 줄타기 공연을 비롯해서, 페루 워나이그룹의 잉카민속음악, 전통타악연구소의 퓨전콘서트 등이 있다. 또 풍장 21 예술단, 장호원난장패, 거북놀이보존회, 소슬패풍물단 같은 지역예술단체와 학교 풍물단의 초청공연도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김진표 부총리 초청 제67회 이천아카데미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초청한 제67회 이천아카데미가 3월21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천시와 이천문화원, 이천시평생학습도시 건설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강연회에는 공무원, 교사, 일반시민등 7백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제전문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교육의 과제' 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비롯한 교육문제 전반에 관해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

호반의 도시 춘천방문 열 번째 주말문화탐방으로

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열 번째 주말문화탐방에 이 상구 원장을 비롯한 87명의 회원가족들이 참가하여, 지난 4월2일 호반의 도시 춘천시에 있는 국립춘천박물관과 애니메이션박물관, 춘천 재래 품물시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2002년 10월에 문을 열었으며, 현대적인 감각의 아름다운 건축미가 주변 야산의 수려한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어 2003년도에 '올해의 우수건축물'로 선정되어 한국건축가협회가 주는 상을 받았다.

4개의 상설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 1,000여점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강당을 비롯한 도서관, 세미나실, 강의실 외에도 야외공연장과 전시장, 뮤지엄 숍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춘천시 약사동 거리에 있는 재래품물 시장은 이천장처럼 매주 2일과 7일에 장이 서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사라져 가는 시골장터의 정감어린 맛과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다.

춘천호를 끼고 춘천시 서면에 자리 잡은 애니메이션박물관은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세계 최초의 박물관으로 2003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1층 전시관은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탄생, 발전의 역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고, 2층 전시관은 미국관, 유럽관, 일본관, 북한관 등으로 세계 애니메이

션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1만여 점의 애니메이션 관련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외에도 아트갤러리, 입체극장, 소리체험실, 3D 애니메이션 상영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애니메이션박물관 견학을 마친 일행은 명동 닭갈비촌을 찾아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한 뒤 귀로에 올랐다.



2005 5월~6월 문화달력

문화원 소식

5.23 제69회 이천아카데미 공동주관
5.28 문화원 주말문화탐방(단양군)
6.8~10 시가라키관광협회 이천방문
6월말-설봉문화 제33호 발간

문화 시설 및 단체

기독교 박물관 632-1391
도립서당 634-3357
부래미 마을 634-0817
샘포스페이스(실험전시공간) 644-4615
세계도자센터 631-6504
이천시민회관 635-0100
유네스코 문화원 635-9051
이천문화원 635-2316
부발청소년 문화의집 634-7000
이천시립박물관 644-8742
이천시립도서관 644-8734
이천도자기협동조합 633-6381
이천환경운동연합 632-6246
이천YMCA 635-0887
이천예총 635-1414
이천시 청소년상담실 634-2777
이천시청 문화공보 담당관실 644-2090
장호원 문화의집 641-3004
창전청소년 문화의집 636-0300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639-5721
해강 도자미술관 634-2266

5월

행사.대회

제8회청강전국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경진대회
청강문화산업대학
(5.9~5.21)
639-5940

제3회 설봉신문
백일장 사생대회
(5.13) 설봉공원

산사음악회
(5.15 저녁7시)
설봉산 영월암

제69회
이천아카데미
장사익초청공연
설봉공원 대공연장
(5.23 오후5시)

국제교류작가
퍼포먼스
(5.25~5.30)
도자센터 장작가마터
한국.프랑스작가

1주

2주

3주

4주

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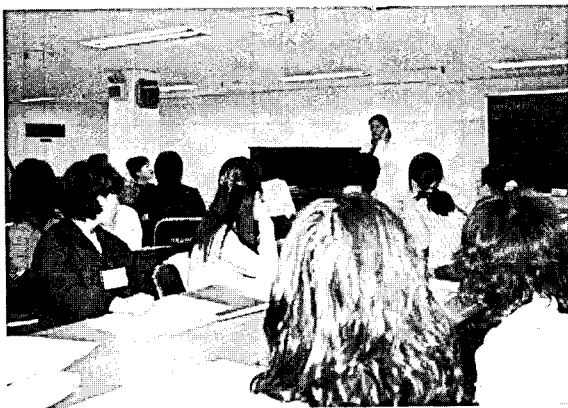
5월

6월

전시·공연	프로그램	행사·대회	전시·공연	프로그램
한중일현대도자전 (4.22~6.19) 이천시립박물관	이천YMCA 소비자교육실시 증포동 사무소 (4.27~5.6) 638-9898	국제교류작가 퍼포먼스 (6.8~6.13) 도자센터 장작가마 터 한국·일본작가	청소년프리마켓 (매주일요일 1시~4 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매주토3시~4시 탁구교실 매주수2시~4시종이 접기교실
샘표스페이스 기획전 지용호 외5인전 "치 환전" (5.9~5.31) 샘표 스페이스	청소년 어울마당 (5.14 오후2시) 창전청소년 문화의집	시가라키관광협 회 이천방문 (6.8~6.10) 한일청년도예가 교류 이천방문 (6.8~6.17)	예총찾아가는 그림사진전 (6.13~6.17) 이천우체국 전시	
우리들꽃 전시회 (5.19~5.23) 양정여중	5월명작영화상영 (매주토요일2시)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제70회 이천아카데미 유광렬 관장 초청강연 시민회관 대강당 (6.13 오후 4시30분)	예총 찾아가는 그림사진전 (6.18~6.24) 농업기술센터 전시	청소년 문화존 개막식 (6.19 중앙로) 창전청소년 문화의집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시회 (5.25까지) 이천시립도서관	문화원 주말문화탐방 (5.28) 단양군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제19회 이천도자기 축제 폐막식 (6.19) 설봉공원 대공연장		
청소년 종합 예술제 (5.30) 시민회관 대강당			예술시장 프리마켓 (6.26) 중앙로 문화의 거리	

※ 행사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05년도 이천문화학교 개강



2005년도 이천문화학교가 3월28일 전통음식반과 초급일본어반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강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초부터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던 금년도 이천문화학교는 모두 16개 강좌에 254명이 수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부터는 전통음식과 규방공예가 새로운 강좌로 채택되었고, 요가교실과 자녀독서지도, 전통음식, 서양화교실 등이 특히 인기있는 강좌로 나타났다. 이천문화학교는 6개월 강좌가 끝나는 11월 중에 수료식과 함께 작품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개강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3개월 강좌

※ 전통음식 · 요가교실 · 토탈플라워 · 생활차
다례 일본어회화 · 전통풍물 · 발지압건강교실
컴퓨터 · 규방공예 · 차밍메이크업

6개월 강좌

※ 초급일본어 · 자녀독서지도 · 도예교실
서양화 댄스스포츠 · 민요교실

문화원 학생회 입회 및 선서식



2005년도 제6기 이천문화원 학생회 입회 및 선서식이 4월9일 오전 10시30분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선서식에는 신입회원 10명을 포함한 30명의 학생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박향수, 최정애 부원장과 신배섭 지도교사, 박선옥 여성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고 신입회원들의 가입을 축하해 주었다.

한편 선서식을 끝낸 후 학생회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백사면 도립리를 방문하여 육괴정과 산수유축제 행사장을 견학했다.



문화단신

민들레회 3월 월례모임

이천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부들과 이천여성들의 모임인 민들레회(회장-고세키 예미)가 3월8일 문화원에서 월례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고세키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인수 사무국장, 이천의제21 공동의장에

살고싶은 고을 이천21 추진협의회 정기총회가 3월8일 오후4시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공동의장에 선임되었다. 이날 선임된 공동의장은 김응호, 이수형, 이성근, 조남철씨 등 5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문화원여성회 3월 월례회

문화원여성회 3월 월례회가 2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10일 문화원 문화교실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이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문화원 사업 및 활동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공주문화원 방문

이천시와 공주시 간의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구 원장이 3월19일 공주문화원을 방문하고 정재욱 공주문화원장과 상호교류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공주문화원 방문에는 박향수 부원장과 김학원 이사, 이인수 사무국장, 김영길 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화원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2005년도 전국문화원 경기도지회 정기총회가 4월13일 오전11시부터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평생 학습도시

중간보고회 참석

이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가 3월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려 김영길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주대 양병찬 교수로부터 연구용역에 따른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천시 지명 위원회

이천시 지명위원회(위원장-유승우 시장)가 3월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려 신배섭 이사와 이인수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이천시 도로명 제정에 따른 읍면 지역 각종 도로명을 심의했다.

제60회 식목일행사참석

이천시가 마련한 제60회 식목일행사가 4월4일 오전10시부터 설봉산 칼바위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독립운동 관련자료집 기증

대월면 사동리에 거주하는 서성환씨가 독립운동사 관련 문헌 및 자료 다수를 문화원에 기증했다. 기증자료는 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공훈록, 백범일지, 운동주평전 등 140여 권으로 서성환 씨가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동안 모은 자료들이다.

문화원여성회 탈춤강습 실시

문화원여성회(회장-박선옥)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민회관 지하연습실에서 탈춤강습회를 갖기로 하고 4월14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강습회에는 18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문 화 단 신

제68회 이천아카데미

제68회 이천아카데미가 4월18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초청 강사는 함성득 고려대학교 부총장이며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 졌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워크샵

지난 해에 이어서 소외계층 문화향수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워크샵이 4월19일 수원 나프리조트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05 경기방문의 해 자문위원회의

2005 경기방문의 해 자문위원 회의가 4월20일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따른 보고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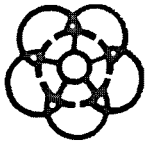
송정중 우리문화연구회 향토사 강의

송정중 우리문화연구회 회원 28명이 4월20일 오후 최의광 지도교사의 인솔로 문화원을 방문, 이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향토의 인물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미정 간사 결혼식 문화원 한미정 간사가 신랑 이정근 군을 맞아 4월30일 오후 1시 은혜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이날 결혼식에는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과 회원, 여성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다.

정회원 33명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NO	성 명	직 업	NO	성 명	직 업
190	오영환	효원관광대표	207	박유선	동림숯불갈비
191	형상혁	카이스트 안경원	208	태유호	인왕상사 대표
192	박병건	이천농협전무	209	조원행	법무사 조원행 사무소
193	이정규	모범택시 대표	210	전병준	법무사 전병준 사무소
194	기보중	공무원	211	차호준	청운부동산랜드 대표
195	김만식	공무원	212	김규식	이천신문 취재부장
196	유병택	유원농장	213	김옥동	해동수산
197	김세현	석강농장	214	김민찬	중앙약국 약사
198	이건상	선진사료이천(代)	215	조병돈	이천시 부시장
199	김해숙	도정요	216	황금자	영진농장
200	신현숙	미즈헤어클럽 대표	217	이상범	(주)일신환경엔텍
201	안인식	제일고교 교장	218	류승현	이천교육청 장학사
202	오동수	오동수세무회계사무소	219	현승의	이천고등학교 교사
203	한기대	(주)청한 대표	220	이하섭	황금공인중개사 대표
204	우귀식	토아레스토랑	221	유현식	황금부동산
205	박용우	웅주섬유	222	정기란	고려관광 대표
206	박선옥	보람유치원장			



문화원 소식



利川文化院會報 2005. 6. 30 발행인/이상구 편집인/이인수 경기도 이천시 장전동 산 105-3번지(시민회관3층) T. (031)635-2316 F. (031)637-7486

日本 시가라키 관광협회 이천방문



이천문화원과 국제우호 친선제휴를 맺고 있는 일본 시가라키정 관광협회 도미마쓰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 16명이 6월 8일, 9일 양 일간에 걸쳐 이천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루어져온 상호교류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난 해 가을 시가라키정이 고카시로 통합되고난 후로는 첫 방문이 된다.

방문단 일행은 6월 8일 오후 이천에 도착하는 길로 이천문화원을 예방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저녁 6시 30분부터 은혜웨딩홀에서 문화원이 주최한 환영만찬회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회에서는 시가라키의 전통무용가 오오히라 요오코씨를 비롯한 3인의 일본전통무용이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고, 문화원 소속패 품물단의 흥겨운 북놀이가 흥을 돋우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9시부터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진과 함께 도자기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장을 돌아본 방문단은 옛날쌀밥집에서 유승우 시장이 마련한 환영오찬회에 참석했으며, 오찬에 이어서 다시 축제장을 찾아 쇼핑을 마친 후 서울로 떠났다.

한편 방문단과 함께 이천을 찾은 시가라키 청년도예가들 3인은 6월 17일까지 열흘 동안 이천시에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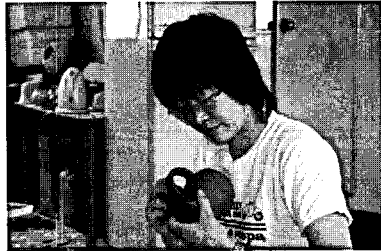
물면서 우리 도자기와 고유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제4회 한·일 청년도예가 교류

시가라키정의 청년도예가 3명이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천을 방문하여 이천의 젊은 도예가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함께 도자기를 빚고 우리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이천문화원과 시가라키정 관광협회가 도자기가 최대의 관광산업이며 문화상품인 양 도시의 특성을 살려 청년도예가 상호교류를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이천의 청년도예가 3인의 시가라키정 방문을 시작으로 금년 네 번째이다.

오쿠다 아키라(奥田章, 32세) · 우에다 아야코(植田綾子, 30세) · 모리사키 기누요(森崎絹代, 28세) 등 3인의 청년도예가들은 각각 이천의 도예가들인 한기웅(예진도예) · 박래현(원정도예원) · 백소연(백소연도예공방)씨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도자기 만들기 뿐만 아닌 우리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



하고 익혔다.

6월 15일 청년도예가들은 이인수 사무국장의 인솔로 나들이길에 나서서 호암 미술관과 한국민속촌을 견학했으며, 문화원 최병주·임치환·엄기환 이사와 이화회 등이 마련한 환영회와 초대, 비엔날레

견학, 인사동 방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천에 머무는 동안 청년도예가들은 우리말과 우리 예절을 익히기에도 매우 열심이어서, 한·일 두 나라의 미묘한 갈등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민간 교류의 중요성이 느껴지기도 했다.

제11차 주말문화탐방 온달산성 등 충북단양군 문화유산 답사



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관 관람 다음은 가파른 산길을 숨이 턱에 닿도록 땀을 흘리며 올라야 하는 온달산성 답사였다. 해발 425m 성산위에 축성된 온달산성은 길이 972m의 작은 반월형 석성으로 사적 264호로 지정되었으며, 고구려 온달 장군의 전설을 간직한 삼국시대의 성이다. 성 위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굽이쳐 흐르는 남한강의 푸른 물줄기와 중첩된 산맥들이 그림같은 경치를 보여 준다.

온달산성 아래 자리잡은 온달동굴은 길이 800m의 석회암 천연동굴로 천연 기념물 제26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구불 구불 이어진 동굴속을 사다리를 타고 오르거나 비좁은 바위틈을 엉금 엉금 기어서 빠져나오기도 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창조된 석회암의 갖가지 비경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온달관광지 안에서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천태종의 총본산인 구인사를 돌아본 후, 유명한 단양8경의 하나인 사인암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사인암은 고려말 유학으로 이름을 떨친 우탁 선생이 사인(舍人)벼슬에 있을 때 이곳을 자주 찾은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전한다.

문화원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한 제 11회 주말문화탐방이 5월 28일 산자수명한 충북 단양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85명의 문화가족들이 참가했다.

아침 8시 30분 시민회관을 출발한 일행은 오전 10시경 단양에 도착하여 단양군 문화유산해설사 이해송씨의 안내로 온달관광지를 찾았다. 맨처음 온달관부터 찾은 일행은 온달관 안에 마련된 온달전시관, 고구려생활관, 고구려고분관, 고구려인물관, 문화체험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고구려의 역

제12차 주말문화탐방 충남 당진군 서해안 갯벌체험



문화원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2차 주말문화탐방인 서해안 갯벌체험이 6월 25일 충남 당진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82명의 문화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아침 9시 시민회관을 출발한 일행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오전 11시경 당진에 도착하여 당진문화원 이문호 사무국장의 안내로 왜목마을 석문 방조제에서 갯벌체험을 가졌다.

방조제 주변에는 주말을 이용한 갯벌체험 및 바지락 채취를 위해 모여든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뤘으며 가족단위로 참가한 문화가족들은 방조제너머로 펼쳐진 갯벌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조개, 바지락 등을 주우며 갯벌이 갖는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왜목마을은 전국에서 일출·일몰·월출 광경까지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없어 일행들은 아쉬워했다.

석문 방조제 안에 있는 대호회관에서 바지락국과 한정식으로 늦은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당진 동서 발전소내에 있는 석문각을 향해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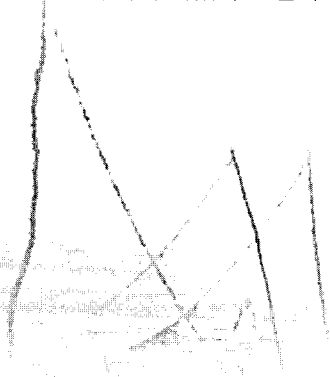
석문각은 발전소측이 흙을 돌워 만든 언덕에 세운

8각 정자로 언덕아래에는 소난지도, 대난지도와 풍도, 육도, 입화도가 한눈에 들어오며 난지도 너머 수평선 아래로 펼쳐진 주변 바다와 섬들이 장관을 이루며, 바다를 한가로이 지나는 작은 고깃배들이 시원한 바다 바람과 함께 펼쳐져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의 솔피성지를 찾아 담당 신부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 유적을 둘러 보았다.

솔피성지는 국가 지정 기념물 제146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안드레안 김대건 신부가 순조21년(1821) 8월 21일 출생할 곳으로 국내 제1의 카톨릭 성지로서 명성이 높은 곳이며, 이곳은 김대건 신부의 순교정신을 추모하고 카톨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순례객이 찾아와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해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성인으로 시성된 후 전세계 카톨릭 교회의 공경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적이 되었다고 한다.





2005년 7월~8월

문화달력

문화원소식

- 7.11 제71회 이천아카데미 공동주관
 7.19 일본부인회 초청 그린스쿨
 7.22~7.27 제2회 해외역사문화탐방(중국)
 8.26~9.12 제8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문화시설 및 단체

- 기독교 박물관 632-1391
 독립서당 634-3357
 부래미 마을 634-0817
 샘표스페이스(실험전시공간) 644-4615
 세계도자센터 631-6504
 이천시민회관 635-0100
 유네스코 문화원 635-9051
 이천문화원 635-2316
 부발청소년 문화의집 634-7000
 이천시립박물관 644-8742
 이천시립도서관 644-8734
 이천도자기협동조합 633-6381
 이천환경운동연합 632-6246
 이천YMCA 635-0887
 이천예총 633-6414
 이천시 청소년상담실 634-2777
 이천시청 문화공보 담당관실 644-2090
 장호원 문화의집 641-3004
 창전청소년 문화의집 636-0300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639-5721
 해강 도자미술관 634-2266

7월

행사·대회

지방자치10주년
기념식

7.1 오후 4시30분
시민회관 대강당

1주

제71회 이천아카데미
박석무 단국대
이사장초청

7.11 오후 4시30분
시민회관 대강당

2주

전국무용대회

(7.17)
이천무용협회

3주

4주

YMCA 하루체험기행
두들·들꽃기행 등

(7.25~8.4)
이천 YMCA

5주



7 월

전시 · 공연

어린이미술프로그램
〈우리동네미술관〉

(7.4~7.31)
샘포 스페이스

프로그램

7월명작 영화상영

(매주 토요일 2시)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연희극단 배꼽

장사의 꿈 기획공연

(6.23~7.10)

설봉새마을금고
해밀소극장
018-221-1924

제2회 이천설봉
가족신문 전시회

(7.15~7.16)

설봉공원
도자판매관

서당체험 특별교육

(7.24~8.6)

도립서당

한여름밤의
토요음악회

(7.23~9.10)

매주토요일)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제2회
해외역사문화탐방

(7.22~7.27)

이천문화원

이천YMCA방학캠프
해신, 대륙문화탐방

(7.2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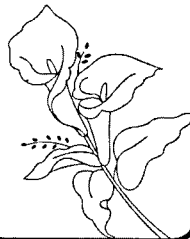
YMCA
사회교육부

8 월

행사 · 대회

이천예술시장
프리마켓

(매주일요일
1시~6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제3회
조국순례대행진

(8.16~8.19)

BBS이천시지회
부발청소년
문화의집

제8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

(8.26~9.12)

이천문화원

전시 · 공연

프로그램

여름방학캠프
도미노환상체험

별자리래프팅캠프
(8.8~8.10)
이천 YMCA

서당체험
특별프로그램

(8.7~8.20)

도립서당

엄마와함께
NIE 창작교실

(8.16~8.19)

이천문화원



※ 행사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중 다채로운 예술단 공연 선보여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함께 열린 58일 동안, 행사장 야외대공연장과 동문광장에서는 각종 예술단체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서 방문객들을 즐겁게 했다.

공연행사들은 대부분 이천문화원과 예총이천시지부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했으며, 외부로부터 초청된 전문예술단들의 공연과 함께 지역학교와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소중한 발표의 장이 되기도 했다.

문화원이 준비한 공연행사로는 모두 17개 예술단체의 33회에 걸친 공연물이 선보였으며, 그중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김대균의 줄타기 공연인 '아주 특별한 여행'과 전통타악연구소의 퓨전콘서트, 페루 민속악단 위냐이의 잉카민속음악, 풍장21예술단의 국악공연 등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동문광장 공연이 행사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운 날씨 탓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 수준 이하의 공연물이 일부 선보인 점 등은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설봉산을 뒤흔든 절박한 목청

제69회 이천아카데미서 심금 울린 소리꾼 '장사익'

공연이 끝난 후에도 소리꾼의 호소력 짙은 음성이 컷가에서 맴을 돌듯 여전히 울렸다. 5월 23일 오후 5시부터 한시간동안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에서 제

69회 이천아카데미가 열렸다.

어눌한 사투리가 영락없이 충청도 아저씨인데 소리를 하는 동안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혹은 엄마의 자장가처럼 매우 특이한 창법을 구사하며 청중을 압도했다.

봄날 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이날 아카데미에서 장사익씨는 '여행(서정춘 시/장사익 곡)'을 시작으로 '아버지(허영만 시/장사익 곡)'와 하찮게 여겼던 꽃의 향기에 눈물을 흘린 사연이 담긴 '필레꽃(장사익 시·곡)' 그리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를 장사익 창법에 맞춰 부른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김세환 곡)', '님은 먼곳에(김추자 곡)', 그리고 녹음해 직접 찾아가 허락을 받았던 '동백아가씨(이미자 곡)'와 앵콜곡으로 '그리운 강남(아리랑)'을 불렀다.

이천신문 2005. 5. 26

격동기의 조선과 오늘의 한국

유광렬 관장 초청

제70회 이천아카데미

70회를 맞은 이천아카데미가 6월 23일 오후 4시 30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유광렬 해강도자미술관장 초청강연으로 열렸다. 문화원 전 원장이며 현 임원이기도 한 유광렬 관장은 '격동기의 조선과 오늘의 한국'이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한말 외세침략에서 한일합방에 이르는 격동기의 역사를 상세한 화상자료들을 통해 설명하면서,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생생한 교훈이 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유광렬 관장은 1시간 남짓 진행된 이날 강연을 위해 80장의 희귀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으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서둘러 끝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공무원, 문화원 회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가 끝난 후, 이천아카데미 70회를 기념하는 기념품 추천행사가 있었다. 기념품으로는 유광렬 관장이 기증한 쇠가 4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점과 도자기 소품, 문화원이 제공한 도자소품 15점과 문화상품권이 추첨을 통해 청중들에게 돌아갔다.

경기 동부권 문화원장 회의 이천에서 열려



경기동부권 문화원장협의회가 6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권영태 전국문화원 연합회장, 김종기 도지회장을 비롯하여 9명의 동부권 문화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이천문화원 현황소개에 이어 권영태 연합회장으로 부터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내용과 당면 현안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고 미정에서 열린 유승우 시장 초청 오찬회 참석에 이어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을 견학했다.

문 · 화 · 단 · 신

권연옥 천안문화원장 내방

권연옥 천안문화원장이 5월 4일 문화원을 방문, 사업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상구 원장의 안내로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을 돌아 보았다.

도예고등학교 향토문화강연

이인수 사무국장이 5월 14일 한국도예고등학교 초청으로 고장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주제로한 강연회를 가졌다. 도예고 강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1~3학년생 16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평생학습 심포지엄 참석

5월 18일 오후 1시, 이천세계도자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전국평생학습심포지엄 및 평생교육관계자 직무 연수회가 열렸다. 이천시가 주관하고 교육인적 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구 원장, 김영길 총무과장이 참석했다.

한·일 친선협회 일본 세토시 방문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이천 한·일 친선협회 회원들이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상호교류차 일본 세토시를 방문하고 아이치 국제박람회 등을 둘러보았다.

문화원 여성회 한택식물원 견학

문화원여성회(회장-박선옥)가 지난 5월 21일 가족동반으로 용인시에 있는 한택식물원에서 5월 월례회 겸 회원친목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제2차 문화원 이사회 개최

2005년도 제2차 임원회의가 5월 26일 오후 6시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3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시가라키 방문단 영접을 비롯한 당면문제 협의가 이루어 졌다.

과천문화원 도자비엔날레 방문

과천문화원 문화가족 160명이 5월 27일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을 방문, 대공연장에서 열린 과천 시민의 날 행사참석에 이어 이인수 사무국장의 안내로 행사장을 돌아 보았다.

제8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

문화원 경기도지회가 주최한 제8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수원 나프리리조트에서 열렸다.

합동연수에는 경기도내 문화원 관계자 200여명



이 참가했고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정책방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이해, 문화원 활성화 방안 등의 강연과 토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연, 경기도 박물관 견학을 가졌다.

이날행사에는 이상구원장, 한승남 향토사연구회장, 남경애 여성회총무, 김영길 총무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김영길 총무과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문화원 발전 공로로 문화원 경기도지회장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문화원 여성회 박의협 이사 초청강연

문화원 여성회는 6월 9일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월례모임을 갖고 문화원 이사인 박의협 법무사를 초청하여 생활 법률과 법률자문 관련 강의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여성회원 15명이 참가했다.

이천 의제21 공동의장단 간담회

살고싶은고을 이천21은 6월 16일 금석궁에서 공동의장단과 분과위원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인수 사무국장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日本 公民館 견학

제15차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회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제15차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규슈 지방 방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일본의 평생교육기관인 공민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한 이번 연수는 벳부중앙 공민관, 구마모토 고우다공민관 방문 외에도 아소시 나미노소학교 방문, 기쿠치성, 요시노가리 선사유적지 답사 등으로 짜여졌다.

이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법령 제4718호)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 법인으로 1963년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 보존 · 전승 및 선양 사업
- ☞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출판 사업
- ☞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국내외 교류사업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 ☞ 지역환경 보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회원구분 :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 ☞ 정 회원 - 입회비 30,000원, 월 회비 15,000원
(연 180,000원)
- ☞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원, 월 회비 5,000원
(연 60,000원)

- ☞ 특별회원 -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원 발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월 회비 20,000원

※ 회비납입통장 : 농협 233018-55-000521

예금주 : 이천문화원

※ CMS 자동이체신청도 가능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총회를 통해 문화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규약의 준수, 총회 의사결의사항 준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갖습니다.

3. 회원가입 혜택 : 연2회 발행하는 설봉문화지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 우송, 본회에서 기획하는 각종 공연 전시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이천문화학교 수강 신청 시 할인혜택, 회원 중심 문화강좌 및 문화유산답사 참여, 예능 취미 교양 활동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천 문 화 원

우.467-804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05-3번지(시민회관3층)

전화 : (031) 635-2316, 632-7970 팩스 : (031) 637-7486

홈페이지 : www.cc2000.or.kr E-mail : cc467ic@hanmail.net



“희망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하이닉스의 노력이 있기에
반도체의 내일을 확신합니다 - 하이닉스반도체

hynix
하이닉스반도체